

▶ 내신 기출 국어, 비상 박안수-상편 ◀

1. 읽기의 가치와 즐거움

- (1) 자화상 (47문제)-----1쪽
(2) 책 속에 길이 있다 (37문제)-----19쪽

2. 마음을 잇는 소통의 창

- (1) 매체를 읽는 눈 (31문제)-----36쪽
(2) 책임감 있게 글쓰기 (23문제)-----52쪽
(3) 서로를 존중하는 대화 (42문제)-----63쪽

3. 문학으로 그리는 삶

- (1) 첫사랑 (42문제)-----79쪽
(2) 아홉 켈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49문제)-----94쪽
(3) 결혼 (54문제)-----125쪽
(4) 반 통의 물 (37문제)-----158쪽

4. 바른 말, 바른 글

- (1) 음운의 변동 (70문제)-----175쪽
(2) 한글 맞춤법 (65문제)-----198쪽

5. 책 속의 지혜, 말 속의 길

- (1) 고릴라를 못 본 이유 (32문제)-----220쪽

◆빠른 전체 정답-----238쪽

◆해설-----241쪽

교재 버전: 2021.02.01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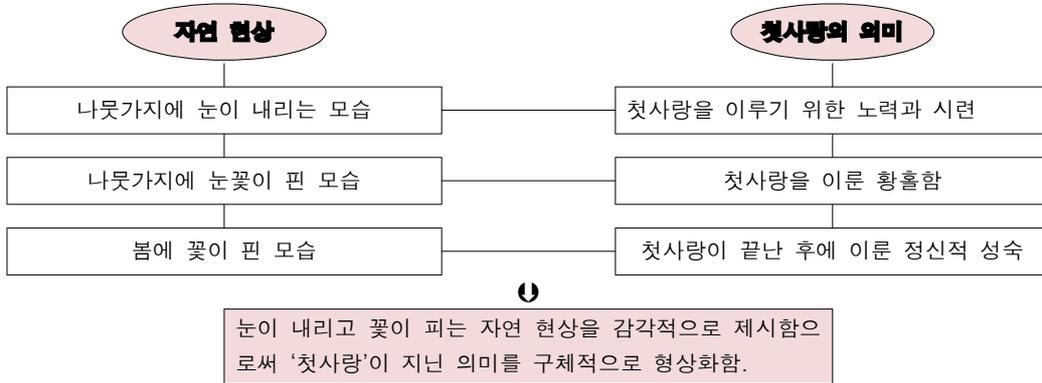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첫사랑” 영미 분석

● 핵심 정보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낭만적, 시각적, 비유적, 역설적
어조	대상에 대한 경탄과 예찬
소재	한겨울 나뭇가지에 쌓인 눈
주제	도전과 헌신으로 피워 낸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 자연 현상에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함. • 역설적 표현을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함. •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연의 모습을 표현함.

1. 이 시의 주된 형상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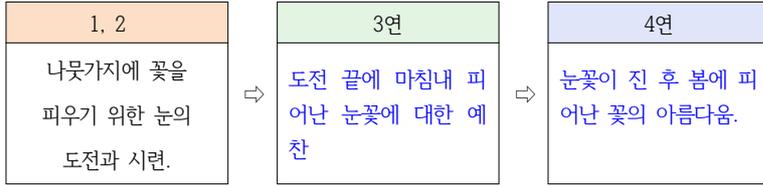


2. 이 시에 사용된 비유적 표현

은유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관념인 '눈꽃'을 '바람 한 자락 불면 획 날아갈 사랑', '마침내 피워 낸 저 황홀'에 비유하여 표현함. • 원관념인 '꽃'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에 비유하여 표현함.
직유법	눈꽃을 피우기 위한 눈의 순수한 노력을 '햇솨 같은 마음'이라고 표현하여 폭신하고 따스한 눈의 이미지를 형상화함.
의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눈이 나뭇가지에 쌓이는 모습을 '도전'을 멈추지 않는 것으로 표현함. • 눈이 나뭇가지에 내려앉는 모습을 두드려 보는 것, 춤추는 것, 미끄러지는 것으로 표현함.

“첫사랑” 그라친 시론

1. 이 시의 시상 전개 과정을 정리해 보자.



2. 이 시의 제목이 ‘첫사랑’인 이유를 생각해 보자

→ 이 시는 자연 현상을 통해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 겨울에 눈꽃이 피는 과정에서 첫사랑의 의미를, 눈꽃이 진 자리에 봄꽃이 피는 것에서 성숙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는 것이다. 시인은 ‘눈꽃’과 ‘첫사랑’이 모두 쉽게 사그라들 수 있는 속성을 지닌 동시에 인내와 헌신의 과정을 겪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눈꽃이 지나간 자리에 피는 것이 ‘봄꽃’이듯이 ‘성숙된 사랑’이 첫사랑의 슬픔을 딛고 온다는 점을 통해 성숙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 이 시에서는 특히 눈꽃(첫사랑)이 피는 과정을 매개로 아름다운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제목을 ‘첫사랑’이라고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다음 시구에 드러난 표현상의 특징과 시구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해 보자.

시구	표현상의 특징	함축적 의미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눈을 의인화하고 설의적 표현을 사용함.	사랑을 이루기 위한 눈의 노력.
‘햇숨 같은 마음’	눈의 마음을 ‘햇숨’에 비유하는 직유법을 사용함.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순수한 마음.
‘마침내 피워 낸 저 황홀 보아라’	눈꽃이 핀 모습을 ‘황홀’이라고 표현하는 은유법을 사용함	첫사랑이 이루어진 기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봄에 피어난 꽃을 ‘아름다운 상처’라고 역설적으로 표현함. ·봄에 핀 꽃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라고 표현하는 은유법을 사용함.	첫사랑을 겪고 난 후에 도달한 정신적 성숙.

4. 이 시가 취하고 있는 발상을 파악해 보자.

→ 자는 한겨울 나뭇가지에 내리는 눈과 그 눈이 나뭇가지에 쌓여 있는 모습, 또 봄에는 그 눈이 녹은 자리에 핀 꽃의 모습에서 첫사랑을 떠올리고 있다. 즉, 이 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뀌는 (자연 현상의 모습에서 첫사랑의 의미를 떠올리는) 발상을 취하고 있다.

5. 이 시에 드러난 심상을 말해 보고, 이와 관련된 시구를 찾아보자

- 2연의 ‘짜그락 짜그락 두드려 보았겠지’에서 눈이 내리는 소리가 표현되고 있어 청각적 심상이 드러난다.
- 2연의 ‘난분분 난분분 춤추었겠지’에서 눈이 내리는 모습이 표현되고 있어 시각적 심상이 드러난다.

6. 이 시에서 운율이 두드러진 부분을 찾고, 그 효과를 말해 보자.

- 운율이 두드러진 부분: 2연. '짜그락', '난분분'이라는 음성 상징어,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이라는 유사한 시어, '~겠지'라는 종결 어미의 반복과 2연의 1행과 2행에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배치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효과: 눈꽃을 피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눈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7. 이 시의 주제를 파악해 보고, 시의 구성 요소가 주제의 형상화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보자.

- 주제: 안내와 헌신으로 이뤄 낸 사랑의 결실.
- 시의 구성 요소가 주제의 형상화에 미치는 영향: 이 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 즉 나뭇가지에 눈이 내리고 눈이 녹은 자리에 다시 꽃이 피는 모습을 통해 사랑의 속성을 표현하고 있다. 운율을 형성하는 반복적인 표현과 시각, 청각과 같은 감각적 심상, 비유, 역설과 같은 표현 방법을 통해 '안내와 헌신으로 이뤄 낸 사랑의 결실'이라는 시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첫사랑” 두번째 읽기

1.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눈이 나뭇가지에 쌓이는 모습을, 눈이 눈꽃을 피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2. 짜그락 짜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 난분분 난분분 춤추었겠지

→ 눈이 나뭇가지를 두드리는 소리를 '짜그락 짜그락'이라는 의성어로 표현함으로써 청각적 심상을, 눈이 춤을 추듯 흩날리는 모습을 '난분분 난분분'이라는 의태어로 표현함으로써 시각적 심상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표현함으로써 운율감을 형성하고, 눈이 내리고 그것이 나뭇가지에 쌓이는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3. 바람 한 자락 불면 획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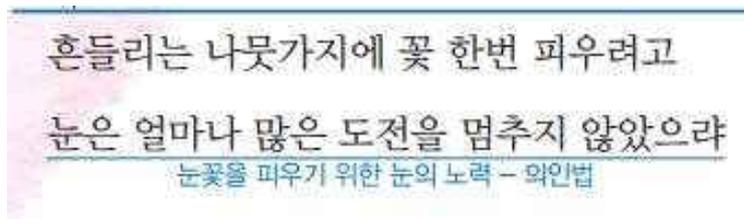
→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에 쌓인 눈이 날아가 버리는 자연의 모습에서 첫사랑이 지닌 위태로움과 순간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4.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덴 자리에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 눈꽃이 녹은 '덴 자리'에 피어난 봄꽃의 모습을 통해 첫사랑의 아픔 뒤에 찾아오는 성숙한 사랑의 가치를 표현하고 있다. 첫사랑의 아픔은 성숙한 사랑을 하기 위한 과정이며 그러기에 역설적으로 '아름다운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첫사랑” 세번째 읽기

1)



2)

□: 음성 상징어를 통해 눈이 도전하는 모습 형상화

의성어 - **싸그락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눈이 나뭇가지를 두드리는 소리 - 청각적 심상

의태어 - **난분분 난분분** 춤추었겠지
 눈이 훑날리는 모습 - 시각적 심상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동일하거나 유사한 말을 반복하며 운율을 형성함

3)

바람 한 자락 불면 획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첫사랑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암시함

햇솨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 준 다음에야
 순수한 눈의 마음을 '햇솨'에 비유 - 직유법

마침내 피워 낸 저 황홀 보아라
 눈꽃 - 역경을 딛고 피워낸 첫사랑

4)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덴 자리에
 눈꽃이 녹는 계절 눈꽃이 녹은 자리 - 첫사랑의 아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동꽃 - 첫사랑의 아픔을 통해 도달한 성숙한 사랑

▶ **홈피 자료실 파일 다운로드** ◀

- 출제 예상 연계 작품 정리
- 답 제거된 문제 반복 연습 파일
- 각종 시험 대비 자료 (기본문제, 자습서 등)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짜그락 짜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난분분 난분분 춤추었겠지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바람 한 자락 불면 획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햇숨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 준 다음에야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 보아라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댄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 고재종, 「첫사랑」

숙지고등학교 (경기)

1.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 자연 현상에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
- ㉢ 역설적 표현을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연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 공간의 대비를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숙지고등학교 (경기)

2. <보기1>을 읽고 <보기2>에서 위 시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1>

시인은 시어, 화자, 운율, 심상 등의 구성요소와 다양한 표현방법을 통해 주제를 형상화한다. 함축적 의미를 담아 낱 시어를 선택하고, 그 시어를 배열하여 운율을 만들어 낸다. 또한 비유나 상징 등의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심상을 구체화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현한다. 이렇게 각 구성요소들과 작품의 주제가 마치 하나의 몸처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완성된 한 편의 시는 독자에게 미적 감동을 전해 준다.

<보기2>	
㉠ 심상	위 시에 드러난 심상을 말해 보고, 이와 관련된 시구를 찾아보자.
㉡ 운율	위 시에서 운율이 두드러진 부분을 찾고, 그 효과를 말해 보자.
㉢ 표현법	시구에 드러난 표현상의 특징과 시구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해 보자.
↓	
㉣ 주제와의 관련성	위 시의 주제를 파악해 보고, 시의 구성 요소가 주제의 형상화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보자.

- ㉠ ㉠ : '짜그락 짜그락 두드려 보았겠지'에서 눈이 내리는 소리가 표현되고 있어 청각적 심상이 드러난다.
- ㉡ ㉡ :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이라는 유사한 시어, '~겠지'라는 종결 어미의 반복이 운율감을 느끼게 한다.
- ㉢ ㉢ : '햇숨 같은 마음'에서 봄을 기다리는 화자의 순수한 마음을 '햇숨'에 비유하여 의미를 강조했다.
- ㉣ ㉣ : '봄꽃'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하여 첫사랑을 겪고 난 후에 도달한 정신적 성숙의 의미를 드러냈다.
- ㉤ ㉤ : 위 시의 구성 요소가 '인내와 헌신으로 이뤄낸 사랑의 결실'이라는 시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숙지고등학교 (경기)

3. 위 시의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 꽃을 나뭇가지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시련을 의미한다.
- ㉡ ㉡ : 봄에 꽃잎이 흩날리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 ㉢ : 눈꽃이 나뭇가지에 오래도록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 ㉣ ㉣ : 눈이 녹은 자리에 피워낸 봄꽃의 아름다움을 의미한다.
- ㉤ ㉤ : 봄에 꽃을 피우기 위해 나뭇가지 위로 새싹이 올라오는 모습을 고통으로 표현하고 있다.

비전고등학교 (경기)

4. 위 시의 제목인 '첫사랑'과 관련지어 ㉠의 함축적 의미를 한 문장으로 쓰시오.

※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짜그락 짜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난분분 난분분 춤추었겠지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바람 한 자락 불면 획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햇숨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 준 다음에야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 보아라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덴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 고재종, 「첫사랑」

신도고등학교 (부산)

5. 이 작품을 서정 갈래로 볼 수 있는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시인의 대리인인 화자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 ㉡ 동일하거나 유사한 말을 반복하여 운율감이 느끼고 있다.
- ㉢ 작가가 자신의 정서를 객관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 비유와 상징 등의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 ㉤ 추상적인 대상을 감각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구체적인 형상으로 그려내고 있다.

신도고등학교 (부산)

6. ㉠~㉤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 사랑을 이루기 위한 눈의 노력
- ㉡ ㉡ : 첫사랑은 쉽게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암시
- ㉢ ㉢ :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순수한 마음
- ㉣ ㉣ : 첫사랑이 이루어진 기쁨
- ㉤ ㉤ : 첫사랑의 아픔

자양고등학교 (서울)

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 유사한 시어를 반복해서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감각적 심상을 표현하고 있다.
- ㉣ 의문문 형식을 사용하여 절제된 감정표현을 보여주고 있다.
- ㉤ 비유적 표현을 통해 시적 대상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자양고등학교 (서울)

8. 윗글을 읽고 느낀 감상으로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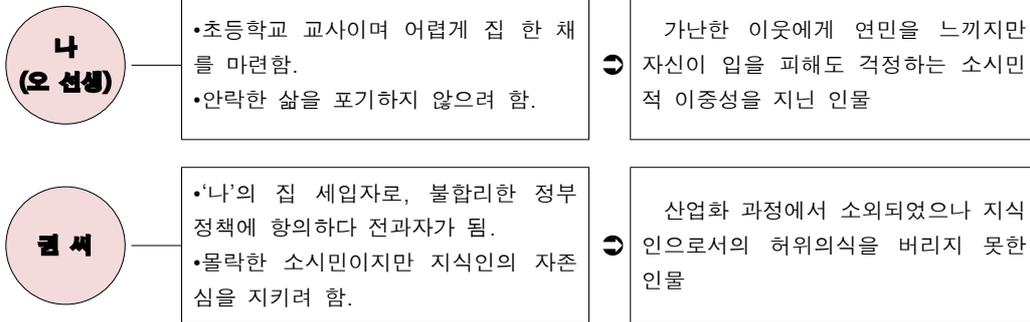
- ㉠ 수많은 인내와 시련을 통해서 정신적 성숙을 얻을 수 있어.
- ㉡ 불가능한 일에 대해 포기하지 않는 심정이 잘 드러나 있어.
- ㉢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려는 노력을 통해 공동의 성취를 이룰 수 있어.
- ㉣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얻고자 하는 모습이 존경스러워.
- ㉤ 다양한 경험을 통해 내적인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느낄 수 있어.

‘단숨 댕댕의 구두로 남은 사내’ 영리 분석

● 핵심 정보

갈래	현대 소설, 중편 소설, 세태 소설
성격	사실적, 비판적, 사회 고발적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제재	도시 개발 과정에서 밀려난 가난한 이의 삶과 자존심
배경	•시간적: 1970년대 •공간적: 성남 지역
주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의 어려운 삶과 부조리한 현실 고발
특징	•상징적 소재와 관련된 행위를 통해 인물의 심리와 성격을 그려 냄. •사실적 문체와 예리한 문제의식으로 현실의 모순을 지적함.

1. 주요 등장인물



2. 작품의 갈등 양상

인물의 내적 갈등	‘권 씨’가 아내의 출산 문제로 돈을 빌리러 왔을 때, 그에게 돈을 빌려줄 것인지 말 것인지 ‘나’가 겪은 갈등
인물 간의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내의 수술비를 빌려 달라는 ‘권 씨’의 부탁을 ‘나’가 거절하면서 겪는 갈등 •도시 빈민층으로 살아가는 ‘권 씨’에게 수술비를 강요하는 ‘의사’와 ‘권 씨’ 간의 갈등 •자신의 집에 강도로 침입한 ‘권 씨’를 배려하는 ‘나’의 행동과 말 때문에 겪는 갈등
인물과 사회의 갈등	‘권 씨’가 우연히 시위 주동자로 몰려 전과자가 되고, 사회 빈민층으로 전락해 가는 과정에서 겪는 사회와의 갈등

‘아홉 쪼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그래픽 읽기

1. ‘나’와 ‘권 씨’의 말이나 행동에서 드러나는 성격을 파악해 보자.

행동	성격
‘...따르는 동정은 피하는 게 상책이었다.’ ‘제대로 된 수입이 없는 ‘권 씨’가 ‘나’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것을 우려해 ‘권 씨’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음.’	·이웃에게 연민을 느끼나 자신의 안락한 삶은 포기하지 않으려 함. ·이성적이고 냉정한 면모가 있음.
“오 선생, 이래 봐도 나 대학 나온 사람이오.” ‘궁색한 살림살이 속에서도 구두만큼은 소중히 여기며 깨끗하게 닦아 놓는다.’	·몰락한 소시민이지만, 지식인의 자존심은 지키려고 함. ·순박하고 착한 성품을 지님.

2. 이 소설의 시간적·공간적 배경은 어떠한가?

→ 개발이 진행 중인 도시 주택가를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하여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1970년대의 사회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3. 이 소설의 등장인물이 처한 상황은 어떠한가?

→ ‘권 씨’는 대학을 나와 우연히 시위에 가담해 전과자가 되어 궁핍하게 살아가며 아내의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나’는 초등학교 교사로 가난한 이웃인 ‘권 씨’에 대한 연민으로 그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도 하나 어설픈 배려로 그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다.

4. 등장인물 사이에 일어난 중심 사건은 무엇인가?

→ 아내의 수술비를 마련해야 하는 ‘권 씨’가 ‘나’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나 거절당한 이후 ‘나’의 집에 강도로 침입했으나 정체가 들통나고 집을 나간다.

5. 이 소설의 구성 단계 중 결말 부분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무엇인가?

→ 이 소설의 결말 부분에서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권 씨’가 아홉 쪼레의 구두만을 남긴 채 행방불명이 되고, ‘나’가 ‘권 씨’의 행방불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 끝맺고 있다. 이처럼 ‘권 씨’의 행방과 관련한 이야기를 완결 짓지 않음으로써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독자에게 깊은 여운을 느끼게 한다.

6. 이 소설의 주제를 파악해 보자.

→ 이 작품은 산업화가 진행 중인 도시 변두리에 살고 있는 ‘권 씨’의 모습을 통해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소시민의 힘겨운 삶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아울러 ‘권 씨’가 처한 상황이 개인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당대 사회의 모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이야기함으로써 산업화라는 화려한 국가 발전의 이면에 소외된 이들에게 가해진 사회적 폭력을 고발하고 있다.

7. 이 소설에 나타나는 갈등의 원인과 양상을 파악해 보자.

- ‘나’와 ‘권 씨’의 갈등: ‘나’는 아내의 수술비를 빌려 달라는 ‘권 씨’의 부탁을 거절하며 그와 갈등을 겪는다. 또한 ‘권 씨’가 강도로 ‘나’의 집에 침입하면서 그를 배려하고자 한 ‘나’의 말과 행동 때문에 ‘권 씨’와 갈등을 겪는다.
- ‘나’의 내적 갈등: ‘권 씨’는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되니 그의 부탁을 거절해야 한다는 생각과, 자신이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권 씨’의 아내가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걱정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다.
- ‘권 씨’와 ‘의사’의 갈등: 수술비를 가져와야만 수술을 해 준다는 ‘의사’와, 수술비를 구하지 못하는 ‘권 씨’는 갈등을 겪는다.

8. 다음은 연작 소설집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에 실린 「직선과 곡선」의 일부이다. 본문과 다음 소설의 시점을 비교한 후, 서술자가 작품에 미치는 영향을 말해 보자.

오 선생 말로는, 훗날의 일을 생각해서 강도를 끝까지 강도로 대우해서 보낼 작정으로 취한 부득이한 조처였다고 그러지만, 내 눈에 비친 그의 거동은 강도범이 다른 아닌 자기네 문간방 사내임을 일찌감치 간파하고 사람을 여지없이 조롱하고 경멸하는 투가 시종일관 분명했던 것이다. 오 선생의 눈초리를 등 뒤에 느끼면서 대문을 나서는 그 순간 나는 도무지 더 살고 싶은 기분이 아니었다. 삼십대 중반의 나이까지 나를 굳게 지탱해 주던 긍지의 기둥이 샅시에 허물어져 내리는 찰나였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잃지 않고 살아온 자존심이였다.

- 윤홍길,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 본문에서는 ‘오 선생(‘나’)'이 서술자로 등장하여 주인공인 ‘권 씨’를 관찰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권 씨’의 심리가 구체적으로 전달되지 않는다. 반면 「직선과 곡선」에서는 주인공인 ‘권 씨’가 서술자로 등장하여 자신의 심리와 태도를 독자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해 주고 있다.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구두로 남은

1. [87쪽 6~8행] 먼지가 풀풀 이는 언덕길을 터벌터벌 올라왔을 터인데도 그의 구두는 놀랄 만큼 반짝거렸다. 나를 기다리는 동안 틀림없이 바짓가랑이 뒤쪽에다 양쪽 발을 번갈아 가며 문지르고 있었을 것이었다.

→ 반짝거리는 구두는 ‘권 씨’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것으로, ‘권 씨’가 구두를 바지에 문질러 닦는 행위는 돈을 벌리면서도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2. [87쪽 14~19행] “수술을 해야 된답니다. 엑스레이도 찍어 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답니다. 모든 게 다 정상이래요. 모체 골반두 넉넉하구요. 조기 파수도 아니구 전치태반도 아니구요. 쌍둥이는 더더욱 아니구요. 이렇게 정상적인데도 이십사 시간이 넘도록 배가 위에 달라붙는 경우는 태아가 돌다가 탯줄을 목에 감았을 때뿐이랍니다. 제기랄, 탯줄을 목에 감았다는군요.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산모나 태어나 모두 위험하대요.”

→ ‘권 씨’의 아내가 돈이 없어 수술을 못 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 있음을 보여 준다.

3. [88쪽 11~13행] 책임이 따르는 동정은 피하는 게 상책이었다. 그리고 기왕 피할 바엔 저쪽에서 감히 두말을 못 하도록 야멸차게 굴 필요가 있었다.

→ ‘나’는 ‘권 씨’의 처지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권 씨’의 힘겨운 상황을 떠올리며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게 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나’가 자신이 받을 피해를 염려하며 ‘권 씨’의 부탁을 단호히 거절하려는 모습에서 ‘나’의 이해타산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다.

4. [89쪽 20행] “오 선생, 이래 봐도 나 대학 나온 사람ियो.”

→ ‘권 씨’는 ‘나’에게 돈을 빌리려다가 거절을 당하자, 상처 입은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학력을 말하고 있다. 비록 대학까지 나왔지만 가난한 처지로 살아가는 ‘권 씨’가 지식인으로서의 자존심만은 지키려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5. [89쪽 26~28행] 돌팔매질을 하다 말고 뒤집혀진 삼륜차로 달려들어 아귀아귀 참외를 깨물어 먹는 군중을 목격했을 당시의 권 씨처럼, 이건 완전히 나체구나 하는 느낌이 팍 들었다.

→ ‘나’가 ‘권 씨’에 대해, 그가 매우 절박한 생존의 상황에 놓여 있음을 깨닫는 장면이다.

6. [90쪽 11~12행] “맞습니다. 의사가 애를 꺼내는 방법도 여러 질이듯이 아버지 노릇 하는 것도 아마 여러 질일 겁니다.”

→ 사람의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하며 ‘권 씨’ 아내의 수술을 미룬 비정한 의사를 향한 빈정거림의 표현이다.

7. [93쪽 4~8행] 암전히 구두까지 벗고 양말 바람으로 들어온 강도의 발을 나는 그때 비로소 볼 수 있었다. 내가 그렇게 염려를 했는데도 강도는 와들와들 떨리는 다리를 옮기다가 그만 부주의하게 동준이의 발을 밟은 모양이었다. 동준이가 갑자기 청얼거리자 그는 질겁을 하고 옆드리더니 녀석의 어깨를 토닥거리는 것이었다.

→ 구두를 벗고 방에 들어오고, 와들와들 떨다가 잠에서 깨려는 아이를 토닥여 다시 재우는 행동에서 강도의 어설피름이 드러난다.

8. [94쪽 20~23행] “어렵다고 꼭 외로운 법은 없어요. 혹 누가 압니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아끼는 어떤 이웃이 당신의 어려움을 덜어 주었는지?” “개수작 마! 그따위 이웃은 없다는 걸 난 똑똑히 봤어! 난 이제 아무도 안 믿어!”

→ ‘나’는 자신이 ‘권 씨’의 아내가 수술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실을 강도에게 우회적으로 말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권 씨’는 ‘나’가 부인의 수술비를 지불한 사실을 모르고 있으므로, 의지할 데 없는 현실에 깊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9. [95쪽 1행] “대문은 저쪽입니다.”

→ ‘권 씨’는 자신이 강도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이었으나, 강도가 ‘권 씨’임을 아는 ‘나’는 여유롭게 대처하고 있다. 이러한 ‘나’의 행동은 ‘권 씨’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뜨리는 비정한 행동이 되고 만다.

10. [95쪽 5행] “이래 봐도 나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요.”

→ ‘권 씨’는 자신의 정체가 탄로난 것을 알고 자포자기한 심정에서 마지막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다.

11. [95쪽 25~27행] 그가 행방불명이 된 것이 이제 분명해졌다. 그리고 본의는 그게 아니었다 해도 결과적으로 내 방법이 매우 졸렬했음도 이제 확연히 밝혀진 셈이었다.

→ 강도로 침입한 자신을 강도로 대우해 주지 않는 ‘나’의 행동에 자존심이 상한 ‘권 씨’는 집에

돌아오지 않고, ‘나’는 어설피름 배려로 ‘권 씨’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 것을 자책하고 있다.

12. [95쪽 28행~96쪽] 2행 밝은 아침에 술이 깬 권 씨가 전처럼 나를 땃땃이 대할 수 있게 하자면 복면의 사내를 끝까지 강도로 대우하는 그 길뿐이라고 판단했었다.

→ 강도로 침입한 ‘권 씨’에게 ‘나’가 한 말과 행동의 이유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학습 활동의 목표 3번에 제시된 직선과 곡선의 내용과 이 내용을 비교하며, 동일한 상황에 처한 두 인물(‘권 씨’와 ‘나’)의 심리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안내한다.

13. [96쪽 21~23행] 잘 닦인 일곱 중에서 비어 있는 하나를 생각하던 중 나는 한 켄레의 그 구두가 그렇게 쉽사리는 돌아오지 않으리란 걸 알뜰뜰하게 깨달았다.

→ ‘권 씨’를 동정하다 오히려 그의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준 ‘나’는 ‘권 씨’가 쉽게 귀가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자존심도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임을 깨닫고 있다.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영문 요약

1. 87쪽 - ‘권 씨’가 ‘나’를 찾아온 이유는 무엇인가?
→ ‘나’에게 아내의 수술비로 쓸 돈을 빌리기 위해서이다.
2. 88쪽 - ‘나’가 ‘권 씨’의 부탁을 거절하려고 마음먹은 까닭은 무엇일까?
→ 제대로 된 수입이 없는 ‘권 씨’가 ‘나’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3. 89쪽 - ‘권 씨’가 자신이 대학을 나왔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돈을 빌리고자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학력을 말하며 상처 입은 자존심을 회복하려 하고 있다.
4. 90쪽 - ‘의사’의 말과 행동으로 미루어 볼 때 그의 성격은 어떠한가?
→ ‘권 씨’ 아내의 상태가 위중한데도 수술비를 요구하며 수술을 미루고, ‘권 씨’의 경제적인 무능함을 탄하는 것으로 보아 물질 만능주의적이고 비정한 인물이다.
5. 93쪽 - ‘나’가 ‘강도’의 행동을 애교스럽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일까?
→ 여느 강도와 다르게 구두를 벗어 놓고 양말 바람으로 방에 들어와, 떨리는 다리를 옮기다가 아이의 발을 밟고, 칭얼대는 아이의 어깨를 토닥거리는 등 미숙하고 어설픈 강도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6. 94쪽 - ‘강도’가 분개한 이유는 무엇일까?
→ ‘나’가 자신의 정체를 알아차린 것을 알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다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영문 요약

1)

를 자꾸만 그렸다. 먼지가 풀풀 이는 언덕길을 터벌터벌 올라왔을 터인데도 그의 구두는 놀랄 만큼 반짝거렸다. 나를 기다리는 동안 틀림없이 바짓가랑이 뒤쪽에다 양쪽 발을 번갈아 가며 문지르고 있었을 것이었다.

2)

밑도 끝도 없이 그는 이제까지의 수줍음이 싹 가시고 대신 도발적인 감정 같은 걸로 그득 채워진 얼굴을 들어 내 면전에 대고 부르짖었다. 담배 한 대만 꾸자는 식으로 십만 원 소리가 허망히도 나왔다. 내가 잠시 어리둥절해 있

3)

리는 출판사 싸구려 번역 일 가지고 어느 해에 빚을 갚을 것인가? 책임이 따르는 동정은 피하는 게 상책이었다. 그리고 기왕 피할 바엔 저쪽에서 감히 두
자신이 받을 피해를 염려하며 권 씨의 부탁을 단호히 거절하려는 모습 - '나의 이해타산적인 면모'
말을 못 하도록 야멸차게 굴 필요가 있었다.

4)

가는 건 틀림없이 갈기갈기 찢어진 한 줌의 자존심일 것이었다. 애당초 의도
강도를 안심시켜 편안하게 돌아가게 하려는 의도
했던 바와는 달리 내 방법이 결국 그를 편안케 하긴커녕 외려 더욱더 낭패케
권 씨의 자존심을 상하게 함
만들었음을 깨닫고 나는 그의 등을 향해 말했다.

5)

“개수작 마! 그따위 이웃은 없다는 걸 난 똑똑히 봤어! 난 이제 아무도 안
① '나'가 자신의 부탁을 거절한 것을 떠올리며 한 말 ② 의지할 데 없는 현실에 대한 깊은 좌절감의 표현
믿어!”

그는 현관에 벗어 놓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 구두를 보기 위해 전등을

6)

“대문은 저쪽입니다.”

권 씨의 자존심을 지켜 주기 위한 '나'의 배려이지만 '권 씨'의 자존심을 자극함

문간방 부엌 앞에서 한동안 망연해 있다가 이윽고 그는 대문 쪽을 향해 느

릿느릿 걷기 시작했다. 비틀비틀 걷기 시작했다. 대문에 다다르자 그는 상체

7)

“이래 봐도 나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오.”

자신의 정체가 탄로난 것을 알고 자오자기한 심정에서 마지막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음

누가 뭐라고 그랬나? 느닷없이 그는 자기 학력을 밝히더니만 대문을 열고

▶ **홈피 자료실 파일 다운로드** ◀

- 출제 예상 연계 작품 정리
- 답 제거된 문제 반복 연습 파일
- 각종 시험 대비 자료 (기본문제, 자습서 등)

목적 노트

"기억나는 모든 것을 떠올려 보고 설명하고 써보라"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정상 분만비 일, 이만 원 정도라면 또 모르지만 단 순히 권 씨를 도울 작정으로 나오서는 거금에 해당하는 십만 원 가까이를 또 빚진다는 건 무리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아내의 양해도 없이 멋대로 그런 큰일을 저질러도 괜찮을 만큼 나는 자유롭지도 못했다.

“빌려만 주신다면 무슨 짓을, 정말 무슨 짓을 해서라도 반드시 갚겠습니다.”

반드시 갚는 조건임을 강조하면서 그는 마치 성격 위 에다 오른손을 얹고 말하듯이 엄숙한 표정을 했다. 하마 터면 나는 잇을 뻔했다. 그가 적시에 일깨워 주었기 망정 이지 안 그랬더라면 빌려주는 어려움에만 골몰한 나머지 빌려줬다 나중에 돌려받는 어려움이 더 클 거라는 사실 은 생각도 못할 뻔했다. 그렇다. 끼니조차 감당 못하는 주제에 막별이 아니면 어쩌다 간간이 얻어걸리는 출판사 싸구려 번역 일 가지고 어느 겨를에 빚을 갚을 것인가? ⓐ책임이 따르는 동정은 피하는 게 상책이었다. 그리고 기왕 피할 바엔 저쪽에서 감히 두말을 못하도록 야멸치 게 굴 필요가 있었다.

(나) 원 산부인과에서는 만단의 수술 준비를 갖추고 보 증금이 도착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학교에서 우격다 짐으로 후려낸 가을에다 가까운 동료들 주머니를 닦치는 대로 떨어 간신히 마련한 일금 십만 원을 건네자 금테의 마비츠 안경을 쓴 원장이 바로 마취사를 부르도록 간호 원에게 지시했다. 원장은 내가 권 씨하고 아무 척분도 없 으며 다만 그의 셋방 주인일 따름인 걸 알고는 혀를 찼 다.

“아버지가 되는 방법도 정말 여러 질이군요. 보증금을 마련해 오랫동안 오전 중에 나가서는 여태껏 얼굴 한 번 안 비치지 됩니까?”

“맞습니다. ⓑ의사가 애를 꺼내는 방법도 여러 질이듯 이 아버지 노릇하는 것도 아마 여러 질일 겁니다.”

나는 내 말이 제발 의사의 귀에 농담으로 들리지 않기를 바랐으나 유감스럽게도 금테 안경의 상대방은 한 차례의 너털웃음으로 그걸 간단히 능처 버렸다.

(다) 우리 집에 강도가 든 것은 공교롭게도 그날 밤이었 다. 난생 처음 당해 보는 강도였다. 자꾸만 누군가 내 어깨를 흔들며 대고 있었다. 귀찮다고 뿌리쳐도 잠자코 계속 흔들었다. 나를 깨우려는 손의 감촉이 내 식구의 그것 이 아님을 퍼뜩 깨닫고 눈을 떴을 때 나는 빨간 꼬마전 구 불빛 속에서 복면의 사내를 보았다. 그리고 똑바로 내 멱을 겨누고 있는 식칼의 서슬도 보았다. 술 냄새가 확 풍겼다. 조명 빛깔을 감안해서 붉은 빛을 띤 검정 계통의 보자기일 복면 위로 드러난 코의 일부와 눈자위가 나우 취해 있음을 나는 재빨리 간파했다.

“일어나, 얼른 일어나라니까!”

나 외엔 더 깨우고 싶지 않은지 강도의 목소리는 무척 낮고 조심스러웠다. 나는 일어나고 싶었지만 도무지 일어 날 수가 없었다. ⓒ역을 겨누는 식칼이 덜덜덜 위아래로 춤 을 추었다. 만약 강도가 내 목통이라도 찌르게 된다면 그 것은 고의에서가 아니라 지나친 떨림으로 인한 우발적인 상해일 것이었다. 무척 모자라는 강도였다.

(라) “개수작 마! 그 따위 이웃은 없다는 걸 난 똑똑히 봤어! 난 이제 아무도 안 믿어!”

그는 현관에 벗어 놓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 구두를 보기 위해 전등을 켜고 싶은 충동이 불현듯 일었으나 나 는 꼭 눌러 참았다.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내려선 다음 부주의하게도 그는 식칼을 들고 왔던 자기 본분을 망각 하고 엉겁결에 문간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의 실수를 지적하는 일은 훗날을 위해 나오서는 부득이한 조처였다.

“대문은 저쪽입니다.”

문간방 부엌 앞에서 한동안 망연해 있다가 이윽고 그는 대문 쪽을 향해 느릿느릿 걷기 시작했다. 비틀비틀 걷기 시작했다. 대문에 다다르자 그는 상체를 뒤틀어 이쪽을 보았다.

ⓓ“이래봐도 나 대학까지 나온 사람ियो.”

누가 뭐라고 그랬나? 느닷없이 그는 자기 학력을 밝히 더니만 대문을 열고는 보안등 하나 없는 칠흑의 어둠 저 편으로 자진해서 삼켜져 버렸다.

(마) 이사 올 때 본 그대로 세간이라곤 깔고 덮는 데 쓰이는 것과 쌀을 익혀서 담는 몇 점 도구들이 전부였다. 별다른 이상은 눈에 띄지 않았다. 구태여 꼭 단서가 될 만한 흔적을 찾자면 그것은 구두일 것이었다. 가장 값나 가는 세간의 자격으로 장롱 따위가 자리 잡고 있을 꼭 그런 자리에 아홉 켈레나 되는 구두들이 사열 받는 병정 들 모양으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정갈하게 닦인 것이 여섯 켈레, 그리고 먼지를 덮어쓴 게 세 켈레였다. 모두 해서 열 켈레 가운데 마음에 드는 일곱 켈레를 골라 한 꺼번에 손질을 해서 매일매일 갈아 신을 한 주일의 소용 에 당해 온 모양이었다. 잘 닦아진 일곱 중에서 비어 있 는 하나를 생각하던 중 ⓔ나는 한 켈레의 그 구두가 그 려게 쉽사리는 돌아오지 않으리란 걸 알뜰뜰하게 깨달았 다.

권 씨의 행방불명을 알리지 않으면 안 될 때였다. 내 쪽에서 먼저 전화를 걸기는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 다. 나는 되도록 침착해지려 노력하면서 내게, 이웃을 사랑하게 될 거라고 누차 장담한 바 있는 이 순경을 전화 로 불렀다.

윤홍길, ‘아홉 켈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덕계고등학교 (경기)

1. 위와 같은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주로 등장인물의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 ② 작가가 자신의 구체적 경험을 바탕으로 교훈을 전달한다.
- ③ 유사한 갈래로 향가, 시조, 민요, 고전 소설, 현대 소설 등이 있다.
- ④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이지만, 실제로 일어난 사건으로 구성된다.
- ⑤ 등장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 인물의 특성과 사건의 전개 양상을 보여준다.

덕계고등학교 (경기)

2.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 '권 씨'의 부탁을 받고 '나'는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
- ② (나) : 생명보다 돈이 우선시 되는 비정한 세태를 보여준다.
- ③ (다) : '나'는 취기에 범행 대상을 잘못 고른 어설픈 강도에게 연민을 느낀다.
- ④ (라) : 주요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⑤ (마) : 상징적 소재를 통해 산업화 속에서 소외된 인물의 비참한 처지를 형상화하였다.

덕계고등학교 (경기)

3. ㉠~㉣의 문맥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자신이 받을 피해를 염려하여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려는 소시민적 태도이다.
- ② ㉡ : 환자의 생명보다 수술비가 우선인 의사를 향한 우회적인 비난이다.
- ③ ㉢ : 긴장과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인물의 심리를 짐작하게 한다.
- ④ ㉣ : 낙심한 인물이 스스로 마지막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다.
- ⑤ ㉤ : 사라진 구두를 단서로 인물의 행방을 추리하고 있다.

덕계고등학교 (경기)

4. (마)의 특징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열린 결말의 방식이다.
 ㄴ.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결말이다.
 ㄷ. 갈등이 해결됨으로써 긴장이 해소된다.
 ㄹ. 이야기가 종결된 뒤에도 여운을 남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덕계고등학교 (경기)

5. 위의 (라)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오 선생 말로는, 훗날의 일을 생각해서 강도를 끝까지 강도로 대우해서 보낼 작정으로 취한 부득이한 조처였다고 그러지만, 내 눈에 비친 그의 거동은 강도범이 다름 아닌 자기네 문간방 사내임을 일찌감치 간파하고 사람을 여지없이 조롱하고 경멸하는 투가 시종일관 분명했던 것이다. 오 선생의 눈초리를 등 뒤에 느끼면서 대문을 나서서 그 순간 나는 도무지 더 살고 싶은 기분이 아니었다. 삼십 대 중반의 나이까지 나를 굳게 지탱해 주던 궁지의 기둥이 삽시에 허물어져 내리는 찰나였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잃지 않고 살아온 자존심이였다.

- 윤홍길, '직선과 곡선' 중

- ① (라)와 <보기>는 모두 등장인물인 서술자가 과거를 회상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
- ② (라)와 <보기>는 모두 등장인물인 서술자가 주인공으로서 자신의 입장과 그에 따른 감정을 서술하고 있다.
- ③ (라)는 '오 선생'에게 우호적이고 '권 씨'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보기>는 '권 씨'에게 우호적이고 '오 선생'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 ④ (라)는 '오 선생'이 겪은 사건을 비판적이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전달하고 있고, <보기>는 '권 씨'가 느낀 바를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시선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⑤ (라)는 '오 선생'의 입장에서 관찰한 '권 씨'의 모습과 그에 대한 판단을 제시하고 있고, <보기>는 '나'로 지칭되는 주인공 '권 씨'의 심리가 주관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덕계고등학교 (경기)

6. 밑줄 친 ‘인물의 성격 제시’에 해당하는 예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직접 제시는 서술자가 직접 인물의 특성이나 성격에 대해 판단하고 분석해서 이야기해 주는 서술 방식이고, 간접 제시는 인물의 말과 행동, 외양 등을 통하여 인물의 특성이나 성격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서술 방식이다.

<보기>

ㄱ. 간신히 마련한 일금 십만 원을 건네자 금테의 마비츠 안경을 쓴 원장이 바로 마취사를 부르도록 간호원에게 지시했다.

ㄴ. 나를 깨우려는 손의 감촉이 내 식구의 그것이 아님을 퍼뜩 깨닫고 눈을 떴을 때 나는 빨간 꼬마전구 불빛 속에서 복면의 사내를 보았다.

ㄷ. 무척 모자라는 강도였다.

ㄹ. “개수작 마! 그따위 이웃은 없다는 걸 난 똑똑히 봤어! 난 이제 아무도 안 믿어!”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차례 길게 심호흡을 뽑은 다음 강도는 마침내 결심했다는 듯이 이부자리를 돌아 화장대 쪽으로 향했다. ㉠앞 전히 구두까지 벗고 양말 바람으로 들어온 강도의 발을 나는 그때 비로소 볼 수 있었다. 내가 그렇게 염려를 했는데도 강도는 와들와들 떨리는 다리를 옮기다가 그만 부주의하게 동준이의 발을 밟은 모양이었다. 동준이가 갑자기 칭얼거리자 그는 질겁을 하고 엎드리더니 ㉡녀석의 어깨를 토닥거리는 것이었다. 녀석이 도로 잠들기를 기다려 그는 복면 위로 칠푹하게 땀이 뻘 얼굴을 들고 일어나서 내 위치를 힐끗 확인한 다음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터지려는 웃음을 꼭 참은 채 강도의 애교스러운 행각을 시종 주목하고 있던 나는 살그머니 상체를 움직여 동준이를 잠재할 때 이부자리 위에 떨어뜨린 식칼을 집어 들었다.

“연장을 이렇게 함부로 굴리는 걸 보니 당신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 만합니다.”

내가 내미는 칼을 보고 그는 기절할 만큼 놀랐다. 나는 사람 좋게 웃어 보이면서 칼을 받아가라는 눈짓을 보냈다. 그는 겁에 질려 잠시 망설이다가 내 재촉을 받고 후닥닥 달려들어 칼자루를 낚아채 가지고 다시 내 멍을 겨누었다. 그가 고의로 사람을 찌를 만한 위인이 못 되는 줄 일찍이 간파했기 때문에 나는 칼을 되돌려 준 걸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식칼을 옆구리 쪽 허리띠에 차더니만 몹시 자존심이 상한 표정이 되었다.

㉢ “도둑맛을 물건 하나 제대로 없는 주제에 이죽거리긴!”

“그래서 경험 많은 친구들은 우리 집을 거들떠도 안 보고 그냥 지나치죠.”

“누군 뭐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왔나? 피치 못할 사정 땀에 어쩔 수 없이…….”

나는 강도를 안심시켜 편안한 맘으로 돌아가게 만들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 “그 피치 못할 사정이란 게 대개 그렇습니다. 가령 식구 중에 누군가가 몹시 아프다든가 빛에 물려서…….”

그 순간 강도의 눈이 의심의 빛으로 가득 찼다. 분개한 나머지 이가 딱딱 마주칠 정도로 떨면서 그는 대청마루를 향해 나갔다. 내 옆을 지나쳐 갈 때 그의 몸에서는 역겨울 만큼 술 냄새가 확 풍겼다. 그가 허둥지둥 끌어난고 나가는 건 틀림없이 갈기갈기 찢어진 한 줌의 자존심일 것이었다. 애당초 의도했던 바와는 달리 내 방법이 결국 그를 편안케 하긴커녕 외려 더욱더 낭패케 만들었음을 깨닫고 나는 그의 등을 향해 말했다.

“어렵다고 꼭 외로우란 법은 없어요. 혹 누가 압니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아끼는 어떤 이웃이 당신의 어려움을 덜어 주었는지?”

㉤ “개수작 마! 그 따위 이웃은 없다는 걸 난 똑똑히 봤어! 난 이제 아무도 안 믿어!”

그는 현관에 벗어 놓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 구두를 보기 위해 전등을 켜고 싶은 충동이 불현듯 일었으나 나는 꼭 눌러 참았다.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내려선 다음 부주의하게도 그는 식칼을 들고 왔던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엉겁결에 문간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의 실수를 지적하는 일은 훗날을 위해 나로서는 부득이한 조처였다.

“대문은 저쪽입니다.”

문간방 부엌 앞에서 한동안 망연해 있다가 이윽고 그는 대문 쪽을 향해 느릿느릿 걷기 시작했다. 비틀비틀 걷기 시작했다. 대문에 다다르자 그는 상체를 뒤틀어 이쪽을 보았다.

㉥ “이래 봐도 나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요.”

누가 뭐라고 그랬나? 느닷없이 그는 자기 학력을 밝히더니만 대문을 열고는 보안등 하나 없는 칠흑의 어둠 저편으로 자진해서 삼켜져 버렸다.

정말고등학교 (경기)

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작중 인물이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② 의식의 흐름을 통해 사건을 요약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③ 인물 간의 대결 의식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다.

- ④ 등장인물의 독백을 직접 인용하여 내면을 보여주고 있다.
- ⑤ 등장인물의 외양을 자세히 묘사함으로써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정말고등학교 (경기)

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어설픈 행동을 통해 강도의 어리숙함이 드러나고 있다.
- ② ㉡ : 아이가 깽깽바 노심초사하는 강도의 순진무구한 면모가 드러나고 있다.
- ③ ㉢ : '나'가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④ ㉣ : 의도와 다르게 강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 ⑤ ㉤ : 불길한 일을 암시하는 복선 역할을 하여 긴장감을 조성한다.

정말고등학교 (경기)

9. <보기>는 연작 소설집 「아홉 컬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에 실린 「직선과 곡선」의 일부이다.

<보기>

오 선생 말로는, 훗날의 일을 생각해서 강도를 끝까지 강도로 대우해서 보낼 작정으로 취한 부득이한 조처였다고 그러지만, 내 눈에 비친 그의 거동은 강도범이 다름 아닌 자기네 문간방 사내임을 일찌감치 간파하고 사람을 여지없이 조롱하고 경멸하는 투가 시종일관 분명했던 것이다. 오 선생의 눈초리를 등 뒤에 느끼면서 대문을 나서는데 그 순간 나는 도무지 더 살고 싶은 기분이 아니었다. 삼십 대 중반의 나이까지 나를 굳게 지탱해 주던 궁지의 기둥이 삽시에 허물어져 내리는 찰나였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잃지 않고 살아온 자존심이였다.

- (1) <보기>를 참고하여 강도(권씨)가 밑줄 친 ㉢처럼 말한 이유를 서술하시오.
- (2) 윗글과 <보기>의 시점을 비교한 후, 서술자가 작품에 미친 영향을 서술하시오.

정말고등학교 (경기)

10. 윗글의 '나'와 <보기>의 '덕순'에게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덕순이는 통째 짓무를 듯싶은 동어리를 견디지 못하여 먼젓번에 쉬어 가던 나무 그늘에 지계를 벗어 놓는다. 땀을 들어가며 아내를 가만히 내려다보니 그동안 고생만 시키고 변변히 먹이지도 못하였던 것이 갑자기 후회గా 나는 것이다. 이럴 줄 알았다면 동넛집 닭이라도 훔쳐다 먹었을 걸 싶어,
 “울지 말아, 그것들이 뭘 아나 제까짓 게!”
 하고 소리를 뺏 지르고는,
 “채미 하나 먹어 볼 테야?”
 “채미 싫어요.”
 아내는 더위에 속이 탔음인지 한길 건너 저쪽 그늘에서 팔고 있는 얼음냉수를 손으로 가리킨다. 남편이 한푼 더 보태어 담배를 사려던 그 돈으로 얼음냉수를 한 그릇 사다가 입에 먹여까지 주니 아내도 황송하여 한숨에 들이켈다.

- 김유정, '땡별'

- ① 자신의 이중적 태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
- ② 다른 인물에 대한 배려와 동정을 보이고 있다.
- ③ 다른 인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④ 현실적 욕망에 대하여 경멸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⑤ 다른 인물을 위로함으로써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흥진고등학교 (경기)

1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윗글은 1970년대 우리 사회가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를 통해 급성장했지만, 그 이면에 소외된 사람들도 존재했다는 것을 다루고 있다. 권 씨의 경우 본래부터 하층민은 아니었으나, 소외 주동자로 지목되면서 본인의 의지나 능력과는 상관없이 도시 빈민으로 추락한다. 또한 그는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나, 현실은 이조차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비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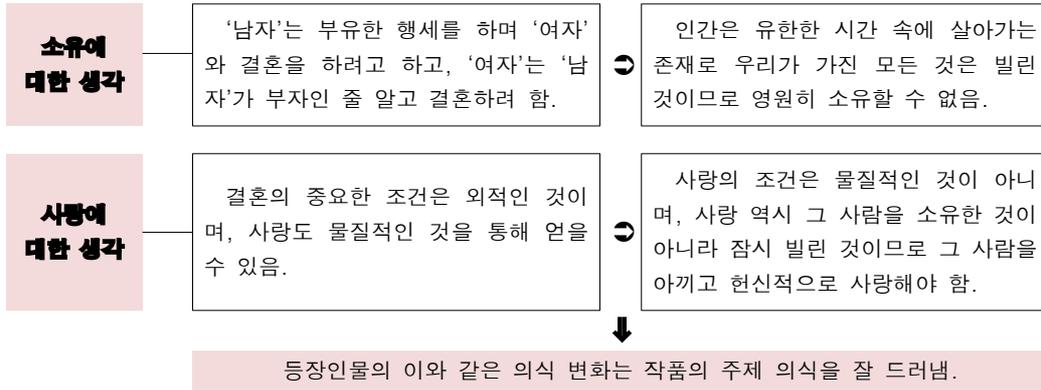
- ㉠ 시대적 모순 앞에 무기력한 개인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 급속한 산업화 속에서 도시 빈민은 필요한 존재임을 알 수 있다.
- ㉢ 현실 문제를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 지식인이라면 부조리한 현실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걸 보여 주고 있다.
- ㉤ '나'의 행동을 통해 현실 개혁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땀” 땀의 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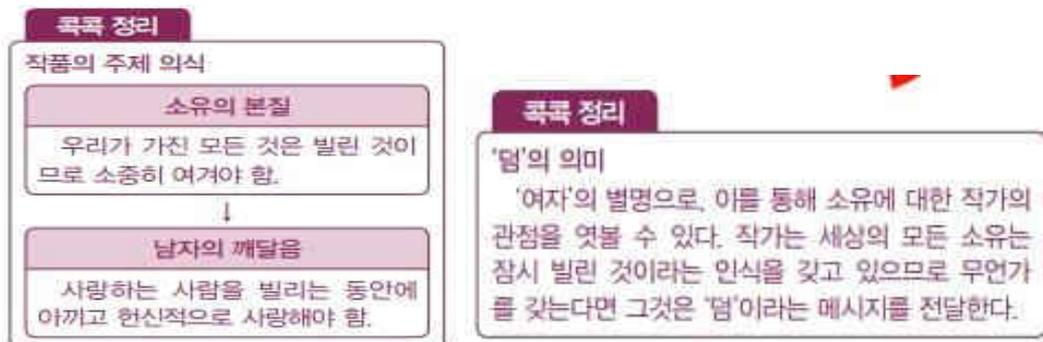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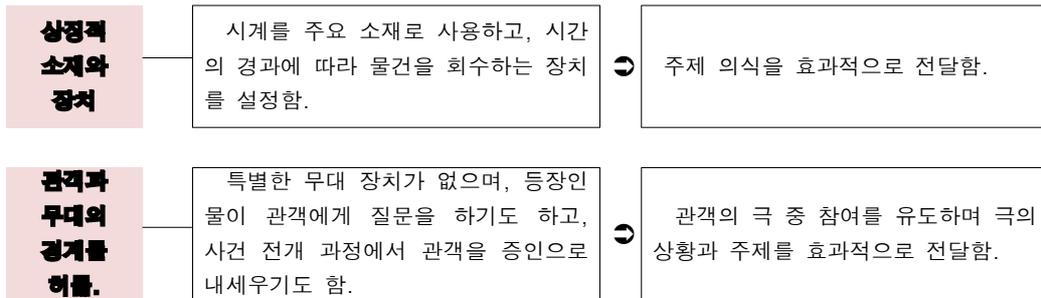
●핵심 정리

장르	현대 희곡, 단막극, 실험극
성격	희극적, 비판적
제재	한 남녀의 결혼담
배경	•시간적: 현대 •공간적: 어느 저택의 응접실
주제	소유의 본질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
특징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으며 무대와 관객석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 •관객을 극 안으로 끌어들이며 등장인물과 관객의 소통이 이루어짐.

1. '소유'와 '사랑'에 대한 등장인물의 의식 변화



2. 이 작품에 사용된 실험적 기법과 효과



“김춘” 희곡의 서론

1. 사건 전개에 따른 ‘남자’와 ‘여자’의 행동과 심리를 정리해 보자.

보기로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남.	‘남자’는 여러 물건을 빌려 부자 행세를 하며 ‘여자’와 결혼하려고 함. ‘여자’는 (‘남자’가 부자라고 생각하여 호감을 가짐.)
‘하인’이 ‘남자’가 빌린 물건을 차례로 되가져 감.	‘남자’는 ‘여자’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느끼고, 빌린 물건을 빼앗기면서도 행복해함. ‘여자’는 (‘하인’의 난폭한 행동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남자’가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인’이 ‘남자’에게 주인의 경고장을 전함.	‘남자’는 (우리가 소유한 것은 다 빌린 것이라며 ‘여자’를 설득하려 함.) ‘여자’는 (‘남자’가 빈털터리임을 알았지만, ‘남자’의 진실한 사랑을 깨닫고 ‘남자’를 떠나지 않음)

2. 이 희곡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자’가 ‘남자’의 청혼을 수락한 이유를 추측해 보고, ‘여자’의 선택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보자.

‘여자’가 청혼을 수락한 이유	‘여자’의 선택에 대한 내 생각
소유한 모든 것은 빌린 것이라는 ‘남자’의 말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또한 ‘남자’가 부자는 아니지만,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진실이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외적 조건보다는 내면적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한다.

3. 소설과 희곡의 갈래적 특성을 비교해 보자.

소설	희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술자가 자신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전달한다. •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나 성격을 해설하거나 묘사한다. • 주로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사건을 표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술자 없이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사건을 전개한다. • 등장인물의 심리나 성격은 무대에서 대사와 행동으로 직접 나타난다. • 현재 시제로 사건을 표현한다.

4. ‘빌렸다가 되돌려 준다’라는 말의 의미를 주제와 연관 지어 파악해 보자.

→ 우리가 소유한 것은 모두 빌린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돌려주어야 한다는 작품의 주제 의식이 담겨 있다. 즉 소유의 본질에 대해 전달하며 외적 조건보다 내면적 가치가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5. 무대 장치 및 관객 참여와 같은 설정이 주제를 형상화하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자.

→ 연극 「결혼」은 특별한 무대 소품 없이 관객의 물건을 이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설정은 관객의 극 중 참여를 유도하면서 관객의 집중도를 높이고, 극 중 상황에 친밀감을 느끼게 한다. 또한 극의 상황과 주제 의식을 관객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김춘” 단편 읽기

1. [104쪽 12~14행] 여자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신이 이렇게 부자리라곤 꿈도 못 꿔죠. 전보에 알려 주신 대로 찾아왔더니……. 이걸 너무 어마어마한 저택이잖겠어요? 문 앞에서 저는요, 한참이나 망설였어요.

→ 어마어마한 저택은 물질적 부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자’가 생각하는 결혼의 조건을 나타낸다. ‘남자’를 만나기로 한 큰 저택 앞에서 망설였다고 말하는 ‘여자’의 모습에서, ‘여자’가 결혼에 대한 세속적인 통념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3) 결혼 [이론편]

2. [104쪽 16행] 여자 아뇨. 황홀해서 망설였던 거예요.

→ '남자'를 만나기도 전에, 큰 저택만 보고도 황홀했다고 말하는 '여자'의 모습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3. [104쪽 18~20행] 여자 네. 당신의 전보를 받았을 때요, 저의 어머니 말씀하셨습니다. 애야, 어서 가 봐라. 가 봐서 빈털터리 같거든 아예 되돌아오고 부자거든 꼭 붙들어야 한다.

→ '남자'가 부자이면 꼭 붙들라고 당부하는 '여자의 어머니'의 모습에서 물질적, 세속적 가치관을 엿볼 수 있다.

4. [105쪽 13행] 남자 (씩씩거리면서 웃고 있다.) 이번엔 넥타이가 내 목에서 떠나갔습니다.

→ '하인'이 역센 힘으로 넥타이를 풀어 간 뒤, '남자'의 대사를 통해 빌린 것을 되돌려 줄 시간이 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빌린 것은 영원히 소유할 수 없고 결국 되돌려 줄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5. [105쪽 15행] 남자 뭐, 놀랄 게 못 됩니다. 그저 시간이 지난 것뿐이니까요

→ 소유한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되돌려 주게 된다는 의미로, 소유에 대한 '남자'의 깨달음을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작품에서는 소유와 시간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한다. 등장인물 중 '하인'은 시계를 가지고 다니는데, 이것 또한 소유와 시간의 관계를 부각시키기 위한 형상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6. [106쪽 13~15행] 남자 물론 그래요. (속상하다는 듯이) 저 인정사정도 없는 하인이 나더러 잘해 보라고 그런 말 한마디 하진 않았어요.

→ '남자'가 관객에게 말을 걸며 관객을 극 중에 끌어들이고 있다. 이는 관객과 무대의 경계를 허무는 실험적 기법으로, 관객의 극 중 참여와 몰입을 유도하여 극의 상황과 주제 의식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7. [06쪽 21~23행] 남자 빌린 동안에는 소중히 다룰 겁니다. 사실 이건 내 것이 아니라 당신 것인데……. 혹시 모르긴 하지요. 당신도 누구에게서 빌려 온 건지는.

→ 관객에게 빌린 넥타이가 사실은 관객도 누군가에게 빌렸을 수 있다며,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군가에게 빌린 것이라는 작품의 주제 의식을 전달하고 있다.

8. [106쪽 25행] 남자, 급한 걸음으로 여자에게 돌아간다.

→ 시간이 흐르면 빌린 것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남자'는 시간에 쫓겨 급하게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9. [107쪽 17행] 남자 당신 어머니 성품은 어떻습니까? 난폭하십니까? 상냥하십니까?

여자 (잠시, 생각하더니) 난폭에다 상냥을 겸하신 분이예요.

남자 (자기 이마에 손을 얹는다.)

→ '여자'는 자신의 어머니의 성품을 묻는 '남자'의 말에 난폭에다 상냥을 겸하신 분이라고 대답하고 있다. '여자'가 말하는 '여자의 어머니'의 성격을 통해, 두 사람이 결혼에 이르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물질 만능주의를 극복하는 일이 쉽지 않음을 암시하는 구절이다.

10. [08쪽 9~12행] 여자 아버지 덤이 태어나자 달아나셨대요. 말하자면 뺑소닐 치신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고 어머니에게 보여 줬던 그 많은 재산은 모두 다 잠시 빌렸던 거래요.

→ '여자의 아버지'가 물질로 '여자의 어머니'를 현혹하여 결혼했음을 드러낸 부분으로, 지금의 '남자'와 유사한 상황이었음을 흥미롭게 제시하고 있다. 이는 '여자의 어머니'가 물질적 가치에 집착하게 된 이유가 나타난 부분이기도 하다.

11. [108쪽 14행] 여자 하지만요, 저는 아버지질 미워 안 해요.

[108쪽 28행~109쪽 2행] 여자 사실 이런 덤 이야기는 처음인 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답니다. 그냥 가슴속에 덮어 두었죠. 그리고 보면 당신은 참 친절하신 분이예요.

→ 물질의 소유와 무관하게 '여자'는 아버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남자'의 이해심과 친절함에 호감을 느끼고 있다. 이는 나중에 '여자'가 '남자'의 정체를 알고도 떠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며, '여자'가 '여자의 어머니'에게 맹세를 했음에도 빈털터리인 '남자'와 결혼하게 되는 이유라고 볼 수 있다.

12. [109쪽 11~15행] 남자 (관객석을 거닐며 그는 자기에게 들려주듯 중얼거린다.) 덤, 덤, 덤, 난 당신을 사랑해. 덤, 덤, 난 당신을 사랑해…….

여자 거기서 뭘 하시죠?

남자 (계속 혼잣말처럼) 덤, 난 당신을 사랑해…….

3-(3) 결혼 [이론편]

→ ‘남자’가 ‘여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을 큰 소리로 하지 못하고 혼잣말을 하는 부분이다. 이를 방백이라 한다. 이때 ‘여자’는 ‘남자’의 말을 듣지 못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다.

13. 109쪽 23행] 하인, 위압적으로 한 걸음씩 남자에게 다가온다.

→ ‘하인’이 물건을 또 빼앗으려 ‘남자’에게 다가오며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14. [110쪽 3~4행] 남자 난 지금 행복합니다.여자 저도 행복해요.

[110쪽 5~8행] 하인, 남자에게 덤벼든다. 호주머니를 뒤져서 소지품들을 몽땅 털어 간다.

남자 이번엔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것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 자꾸만 행복해집니다.

여자 (눈을 감은 채 미소를 짓고 있다.)

→ 소유의 본질을 깨닫고 ‘여자’에게 사랑을 느끼게 된 ‘남자’는 물건을 빼앗겨도 행복을 느끼고 있다

15. [110쪽 10~15행] 남자 어떤 나무는요, 가을이 되자 수천 개의 이파리들을 몽땅 되돌려 주고도 아무 소리 없습니다. 덤, 나는 고양이 한 마리를 길러 보았습니다. 고양이는 차츰 늙어지고, 그래서 시간이 다 지나가자 그 생명을 돌려주고도 태연했습니다. 덤, 덤, 덤……. 난 뭔가 진실한 걸 안 것 같습니다.

→ 가을에 떨어지는 나무의 이파리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늙어 가는 고양이를 예로 들어, 소유한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지게 된다는 ‘남자’의 깨달음을 말하고 있다.

16. [112쪽 8~11행] 남자, 얼굴에 대었던 사진들을 탁상 위에 내려놓는다.

남자 재미난 놀이를 해 봤지요?

여자 네, 재미있었어요.

남자 짐작하셨겠지만, 이 놀이의 재미는 시간이 지나간다는 데 있습니다.

→ ‘남자’는 ‘여자’의 얼굴 위에 ‘여자의 어머니’와 ‘여자의 할머니’의 사진을 대어 보면서 시간이 흐르면 사람 또한 변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여자’에게 소유의 본질을 깨닫게 하기 위한 ‘남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17. [112쪽 17행] 여자 “나가라!” 나가라가 뭐예요?

→ ‘하인’이 전해 준 쪽지에 쓰인 문구로, 저택을 빌릴 수 있는 시간이 다 되었으니 ‘남자’에게 나가라고 하는 저택 주인의 경고 문구이다. 이 문구를 통해 ‘여자’는 모든 것이 ‘남자’의 소유가 아님을 알게 되고 극에 긴장감이 조성된다.

18. [113쪽 2~4행] 남자 모두 빌린 것들뿐이었지요. 저기 두동실 떠 있는 달님도, 저 은빛의 구름도, 이 하늬바람도, 그리고 어쩌면 여기 있는 나마저도, 또 당신마저도……. (미소를 짓고) 잠시 빌린 겁니다.

→ ‘남자’는 사물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까지도 모든 것은 다 빌린 것이라고 말하며 소유에 대한 깨달음을 말하고 있다. 이는 세상 모든 것은 영원히 소유할 수 없으며 언젠가는 되돌려 주어야 할 빌린 것임을 의미한다.

19. [113쪽 10행] 여자 …… 아, 어쩌면 좋아?

→ ‘여자’는 ‘남자’가 사기꾼에다 빈털터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남자’에게 사랑을 느꼈기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20. [113쪽 14~15행] 남자 시간이 가고 남자에게 남는 건 사랑이라면, 여자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사진 석장입니다.

→ ‘남자’는 사진 이야기를 다시 한 번 꺼내고 있다. 이는 외적인 요소는 시간이 흐르면 결국 변한다는 사실을 ‘여자’에게 인식시키기 위함이다.

21. [114쪽 9~11행] 남자 (누구든 관객석의 사람을 붙들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리키며)이게 당신 겁니까? 정해진 시간이 얼마지요? 잘 아셨다가 그 시간이 되면 꼭 돌려주십시오.

→ ‘남자’가 관객을 다시 극 중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는 등장인물인 ‘여자’뿐만 아니라 관객도 작품의 주제인 소유의 본질을 깨닫게 하기 위해 설정한 극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

22. [115쪽 7~10행] 남자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이 증인 앞에서 약속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덤 당신을 빌리는 동안에, 아끼고, 사랑하고, 그랬다가 언젠가 그 시간이 되면 공손하게 되돌려 줄 테요.

→ ‘남자’가 증인 앞에서 ‘여자’를 헌신적으로 사랑할 것을 맹세하고 있다. 이는 ‘진정한 사랑의 의

미'라는 주제와 연결된다. 또한 여기 등장하는 증인은 관객으로, 관객을 극에 참여시키고 있다.

23. [115쪽 13~14행] 여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다급하게 되돌아와서 남자를 부축해 일으키고 포옹한다.
→ '여자'가 '남자'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남자'에게 설득당해 결혼을 결심했음을 알 수 있다.

“결혼” 탐문 문제

1. 104쪽 - '여자의 어머니'가 중시하는 결혼의 조건은 무엇일까?
→ '여자의 어머니'가 남자가 부자라면 꼭 붙들어야 한다고 당부하는 모습으로 보아, 결혼의 조건으로 재산 소유의 정도와 같은 외면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105쪽 - '남자'와 '하인'이 다투는 이유는 무엇일까?
→ '남자'는 물건들을 더 오래 빌리려고 하고, '하인'은 시간이 다 된 물건들을 회수하려 하기 때문이다.
3. 106쪽 - '남자'가 관객에게 넥타이를 빌리도록 연출한 작가의 의도는 무엇일까?
→ '남자'가 관객에게 직접 넥타이를 빌려 소품으로 사용함으로써 관객을 극에 참여시킨다.
4. 108쪽 - '여자의 아버지'와 '남자'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 '여자의 아버지'와 '남자'는 둘 다 가난한 사람이며, 잠시 빌린 재산으로 여자를 현혹한다.
5. 110쪽 - '남자'가 깨달았다고 말하는 진실은 무엇일까?
→ 소유한 모든 것은 빌린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모두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6. 112쪽 - '이 놀이의 재미는 시간이 지나간다는 데 있습니다.'에서 알 수 있는 '사진'의 의미는 무엇일까?
→ 젊음도 시간이 흐르면 결국 사라진다는 점을 깨닫게 하고 있다.
7. 113쪽 - '여자'가 '남자'의 말에 충격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 '남자'의 재산이 모두 빌린 것이며, 사실은 빈털터리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8. 114쪽 - '하인'의 행동이 이 희곡의 전개 과정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
→ '남자'를 차 버릴 듯이 다가오는 '하인'의 행동은 극의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결혼” 탐문 포인트

1)

남자 뭐, 놀랄 게 못 됩니다. 그저 시간이 지난 것뿐이니까요. 안심하십시오.
소유에 대한 '남자'의 깨달음 - 소유한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되돌려 주어야 함
 만약 내 목이 떠나가고 넥타이만 남았다면……. (결연쩍은 듯 바라보고
 있는 여자의 관심을 돌리려고) 그걸 그렇고요. 당신 어머니 펍 재미난 분

2)

남자, 관객석을 투덕투덕 걸어 다니다가 넥타이를 맨 남성 관객 앞에 앉는다.

『 : 관객에게 말을 걸며 객석과 무대의 경계를 허물
→ 관객의 참여와 몰입을 유도하고, 극의 상황과 주제 의식을 적극적으로 전달함

나 모르 그레슈 (소사르라는 드시) 긴 이저가저드 어느 퀴이시 니더피드

3)

『 : 방백 부분, 무대 위 다른 인물은 듣지 못하나, 관객만 들을 수 있다고 약속된 등장인물과 대사
빌린 건 돌려 드립니다. 시간은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웬지 모
르게 슬퍼진 건 무슨 까닭일까요? (관객석을 거닐며 그는 자기에게 들려
주듯 중얼거린다.) 텁, 텁, 텁, 난 당신을 사랑해. 텁, 텁, 난 당신을 사
랑해…….

4)

여자 (충격을 받는다.)
남자 모두가 빌린 것들뿐이었지요. 저기 두둥실 떠 있는 달님도, 저 은빛의 구
름도, 이 하늬바람도, 그리고 어쩌면 여기 있는 나머지도, 또 당신마
저도……. (미소를 짓고) 잠시 빌린 겁니다.

5)

여자 (악의적인 느낌이 없이) 당신은 사기꾼이에요.
남자 그래요, 난 사기꾼입니다. 이 세상 것을 잠시 빌렸었죠. 그리고 시간
이 되니까 하나둘씩 되돌려 주어야 했습니다. 이제 난 본색이 드러나

6)

객석의 사람을 붙들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리키며) 이게 당신 겁니
까? 정해진 시간이 얼마지요? 잘 아셨다가 그 시간이 되면 꼭 돌려주
십시오. 텁, 이젠 알겠어요?
『 : 관객을 다시 극에 참여시키며 등장인물인 '여자'뿐만 아니라
관객도 소유의 본질을 깨닫게 하려는 의도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남자, 관객석을 투덕투덕 걸어 다니다가 넥타이를 맨 남성 관객 앞에 앉는다.

[A] 남자 : 물론 그래요. (속상하다는 듯이) 저 인정사정도 없는 하인이 나더러 잘해 보라고 그런 말 한마디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말입니다. 나도 그래요. 기죽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도대체 제가 뭐라고 겨우 심부름이나 하는 주제에…… 속 좀 상합니다만, 그야 뭐 그건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니까 말해 보나 마나겠고…… 저어, 당신 넥타이 참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아름다운 색깔, 기막히게 멋진 무늬, 딱 오 분만 빌립시다. 정확하게 오 분만. 더 이상은 어기지 않겠습니다. 빌려주시겠습니까? (남성 관객으로부터 넥타이를 빌려 착용하며) 고맙습니다. 빌린 동안에는 소중히 다룰 겁니다. 사실 이걸 내 것이 아니라 당신 것인데…… 혹시 모르긴 하지요, 당신도 누구에게서 빌려 온 건지는. 아무튼 잘 사용하고 돌려 드리겠어요. 자야, 그럼 당신은 시간을 재고, 난 이만.

남자, 급한 걸음으로 여자에게 돌아간다.

남자 : 어때요, 이젠?

여자 : 네, 당신은 멋진 분이세요.

남자 : (웃으며) 뭘요.

(나) 여자 : 갑자기 이런 말을 하면 놀라시겠지만요…….

남자 : 말해 봐요, 뭐든지.

여자 :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남자 : 놀랐습니다, 갑자기.

여자 : 네, 태어난다는 건 언제나 갑자기죠. 그래서요, 저는 태어날 때 제 기분이 어떠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냥 그렇게 이 세상에 나온 거죠. 그리고, 어렸을 때 제 별명이 뭐지 아시겠어요? 덤이에요, 덤.

남자 : 덤?

여자 : 네. 왜 조금 더 주는 것 있잖아요. 그거래요, 제가. 아버지 사랑을 주구, 그리고 또 덤으로 저를 어머니에게 주었죠. 그러니까 덤 아니겠어요? 덤, 이 말 속엔 뭔가 그리운 게 있어요. 덤, 덤, 덤…… 아버지 덤이 태어나자 달아나셨대요. 말하자면 뺑소닐 치신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고 어머니에게 보여 줬던 그 많은 재산은 모두 다 잠시 빌렸던 거래요.

남자 : 덤, 덤, 덤.

여자 : 하지만요, 저는 아버지 미워 안 해요. 그 분에겐 뭔가 덤이라는 옛 이름처럼 그리운 데가 있어요. 덤, 혹시 그 분도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신 건 아닐지…… 안 그래요?

남자 : 덤, 덤, 덤…….

여자 : 어머니에겐 안됐지만요, 덤이라는 그 점이 저에겐 좋아요. 웬지 흥분하더군요. 이런 말을 하면 어머니 화를 내시곤 한답니다. 하긴 그렇죠. 고생 많으셨어요. 홀로 덤을 나아 키운다는 건…… 그만둘까요, 제 이야기?

남자 : 덤, 더 해 주세요.

여자 : 그래서 어머니는요, 단단히 버르시는 거예요. 이 덤을 키워서는 결코 사기꾼에게 주지 않겠다고요. 전 어머니 말을 이해해요.

남자 : 나도 알 만합니다.

<중략>

남자 : 빌린 건 돌려드립니다. 시간은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웬지 모르게 슬퍼진 건 무슨 까닭일까요? (관객석을 거닐며 그는 자기에게 돌려주듯 중얼거린다.) 덤, 덤, 덤, 난 당신을 사랑해. 덤, 덤, 난 당신을 사랑해……

여자 : 거기서 뭘 하시죠?

남자 : ㉠(계속 혼잣말처럼) 덤, 난 당신을 사랑해……

(다) 하인, 남자에게 덤벼든다. 호주머니를 뒤져서 소지품들을 몽땅 털어 간다.

남자 : ㉡이번엔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것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 자꾸만 행복해집니다.

여자 : (눈을 감은 채 미소를 짓고 있다.)

남자 : 그렇습니다, 덤. 여러 가지 것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들이 떠나갔습니다. 뭐, 놀랄 건 못 되지요. 그저 시간이 지난 것뿐이니깐요. 어떤 나무는요, 가을이 되자 수천 개의 이파리들을 몽땅 되돌려 주고도 아무 소리 없습니다. 덤, 나는 고양이 한 마리를 길러 봤었습니다. 고양이는 차츰 늙어지고, 그래서 시간이 다 지나가자 그 생명을 돌려주고도 태연했습니다. 덤, 덤, 덤…… 난 뭔가 진실한 걸 안 것 같습니다. 덤, 덤. 그래요. 난 이제 자랑거리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런 진실을 알았다는 것, 나에게서는 그게 유일한 자랑이 될 겁니다.

여자 : 너무 겸손하신 자랑이에요.

(라) 여자 : 나가라……. 그럼 당신 것이 아니었어요?

남자 : 내 것이라곤 없습니다.

여자 : (충격을 받는다.)

남자 : 모두 빌린 것들뿐이었지요. 저기 두둥실 떠 있는 달님도, 저 은빛의 구름도, 이 하늬바람도, 그리고 어찌면 여기 있는나마저도, 또 당신마저도. (미소를 짓고) 잠시 빌린 겁니다.

여자 : 잠시 빌렸다고요?

남자 : 네, 그렇습니다.

<중략>

여자 : ⊙(악의적인 느낌이 없이) 당신은 사기꾼이에요.

남자 : 그래요, 난 사기꾼입니다. 이 세상 것을 잠시 빌렸었죠. 그리고 시간이 되니까 하나둘씩 되돌려 주어야 했습니다. 이제 난 본색이 드러나 이렇게 빈털터리입니다. 그러나 덤,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 봐요. 누구 하나 자신 있게 이걸 내 것이다. 말할 수 있는가를,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없다니까요. 모두들 덤으로 빌렸지요. 눈동자, 코, 입술 하나 자기 것이 아니고 잠시 빌려 가진 거예요. (누구든 관객석의 사람을 붙들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리키며) 이게 당신 겁니까? 정해진 시간이 얼마지요? 잘 아꼈다가 그 시간이 되면 꼭 돌려주십시오. 덤, 이젠 알겠어요?

여자, 얼굴을 외면한 채 걸어 나간다.

하인. 서서히 그 무거운 구둣발을 이끌고 남자에게 다가온다. 남자는 뒷걸음질을 친다. 그는 마지막으로 절규하듯이 여자에게 말한다.

남자 : 덤, 난 가진 것 하나 없습니다. 모두 빌렸던 겁니다. 그런데 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가진 건 뭡니까? 무엇이 정말 당신 겁니까? (넥타이를 빌렸던 남성 관객에게) 내 말을 들어보시오. 그럼 당신은 나를 이해할거요. 내가 당신에게서 넥타이를 빌렸을 때, 그때 내가 당신 물건을 어떻게 다뤘었소? 마구 험하게 했었소? 어딜 망가뜨렸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빌렸던 것이니까 소중하게 아꼈다간 되돌려 드렸지요. 덤, 당신은 내 말을 들었어요?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이 증인 앞에서 약속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덤 당신을 빌리는 동안에 ⊙아끼고, 사랑하고, 그랬다가 연젠가 그 시간이 되면 공손하게 되돌려줄 테요. 덤! 내 인생에서 당신은 나의 소중한 덤입니다. 덤! 덤! 덤!

[B]

- 이강백, 「결혼」

성포고등학교 (경기)

1. 위와 같은 글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묘사하여 사건을 전개한다.
- ② 영화 상영이나 무대에서 상연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장면 구현에 자유롭다.
- ③ 화자를 내세워 추상적인 정서를 함축적이고 운율이 있는 언어로 형상화한다.
- ④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을 전달하는 특성이 있어 서사 갈래보다 현장성이 강하다.
- ⑤ 형식과 표현에 제약이 없으며 작가의 개인적인 체험이나 생각, 정서를 직접 드러낸다.

성포고등학교 (경기)

2.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탄생의 신비함에 놀란 '여자'의 심리를 나타낸다.
- ② ㉡은 자신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남자'의 소심한 성격이 드러난다.
- ③ ㉢은 더 이상 소유물을 가지 있게 생각하지 않는 '남자'의 태도가 나타난다.
- ④ ㉣을 고려할 때, ㉠에는 자신을 속이는 것을 미리 알고, 솔직히 말해주길 바라는 '여자'의 마음이 담겨있다.
- ⑤ ㉣은 필요한 물건을 빌리기 위해 '여자'를 설득하는 '남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성포고등학교 (경기)

3. 다음은 이 작품의 처음에 쓰인 '작가 노트'의 일부이다. 이를 고려하여 작품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작품은 응접실 또는 아담한 소극장(小劇場) 같은 곳, 그런 실내(室內)에서 공연하기 알맞도록 썼다. 음악으로 비교한다면 실내악(室內樂) 같은 것이다.

무대를 따로 만들 필요도 있지 않고 별다른 조명이나 효과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 장소에 모인 사람들이다. 이 연극의 등장인물, 하인은 그들로부터 잠시 모자라든가 구두, 넥타이 등을 빌려야 한다. 이 빌린 물건들을 단순히 소도구로 응용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이 작품을 검토하면 알겠지만, 이 잠시 빌렸다가 되돌려 준다는 것엔 더 깊은 의미가 있고, 이 연극에 있어 중대한 역할을 차지하게 된다.

- ① '하인'의 대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관객이 '하인'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 ② 넥타이는 '남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빈털터리인 '남자'의 모습을 비판하는 물건이다.
- ③ '남자'는 빌린 물건을 되돌려 주면서 세상의 모든 물건은 빌린 것이라는 소유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 ④ '남자'가 물건을 하나도 소유하지 않고 빌리는 모습을 통해, 무능력한 '남자'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여자'와 '남자'가 관객을 매개로 의사소통하는 것으로 보아, 관객도 하나의 등장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성포고등학교 (경기)

4. 다음과 같은 관점을 가진 사람과 '남자'가 나눌 대화로 적절한 것은?

소유욕은 이해(利害)와 정비례한다. 그것은 개인뿐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어제의 맹방(盟邦)들이 오늘에는 맞서게 되는가 하면, 서로 으르렁대던 나라끼리 친선 사절을 교환하는 사례를 우리는 얼마든지 보고 있다. 그것은 오로지 소유에 바탕을 둔 이해관계 때문이다. 만약 인간의 역사가 소유사에서 무소유사로 그 방향을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싸우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주지 못해 싸운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중략>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소유의 또 다른 의미이다.

- 법정, 「무소유」

- ① 법정 : 무엇인가를 소유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인간을 발전하게 만듭니다.
- ② 남자 : 제가 사랑하는 사람 역시 제가 빌리는 것이므로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 ③ 법정 : 인간은 변하지만 자연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자연을 소유해야 합니다.
- ④ 남자 : 빌린 물건은 삶을 외롭게 만들죠. 자신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 ⑤ 법정 : 나의 이익을 위해 무엇인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성포고등학교 (경기)

5. [A]와 [B]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위 작품의 특징을 쓰고, [A]와 [B]에서 각각 드러나는 관객의 역할과 그 효과는 무엇인지 <조건>을 참고하여 완성형 문장으로 서술하십시오.

<조건>

[B]에서 관객의 역할을 쓸 경우 [B]에 있는 단어를 활용하여 서술하십시오.

pt005pt (카톡 ID)
내용 질문, 오류 신고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하인, 또다시 남자에게 달려들어서 넥타이를 풀어낸다. 남자는 빼앗기지 않으려 힘껏 저항하지만 하인의 억센 힘을 당해 내지 못한다.

결국 빼앗기고 하인은 기계적인 동작으로 넥타이를 가지고 나간다. 여자는 두 남자의 다툼에 놀란다.

여자 : 왜들 그러시죠?

남자 : (씩씩거리면서 웃고 있다.) 이번엔 넥타이가 내 목에서 떠나갔습니다.

(나) 남자, 관객석을 투덕투덕 걸어 다니다가 넥타이를 맨 남성 관객 앞에 앉는다.

남자 : 물론 그래요. (속상하다는 듯이) 저 인정사정도 없는 하인이 나더러 잘해 보라고 그런 말 한마디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말입니다, 나도 그래요, 기죽을 필요야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도대체 지가 뭐라고. 겨우 심부름이나 하는 주제에…… 속 좀 상합니다만, 그야 뭐 그건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니까 말해 보나 마나겠고…… 저어, 당신 넥타이 참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아름다운 색깔, 기막히게 멋진 무늬, 딱 오 분만 빌립시다. 정확하게 오 분만. 더 이상은 여기지 않겠습니다. 빌려주시겠습니까? (남성 관객으로부터 넥타이를 빌려 착용하며) 고맙습니다. 빌린 동안에는 소중히 다룰 겁니다. 사실 이건 내 것이 아니라 당신 것인데…… 혹시 모르긴 하지요, 당신도 누구에게서 빌려 온 건지는. 아무튼 잘 사용하고 돌려 드리겠어요. 자아, 그럼 당신은 시간을 재고, 난 이만.

(다) 여자, 작별 인사를 하고 문 앞까지 걸어 나간다.

남자 : 잠깐만요, 덤…….

여자 : (멈칫 선다. 그러나 얼굴은 남자를 외면한다.)

남자 : 가시는 겁니까, 나를 두고서?

여자 : (침묵)

남자 : 덤으로 내 말을 조금 더 들어 봐요.

여자 : (악의적인 느낌이 없이) 당신은 사기꾼이에요.

남자 : 그래요, 난 사기꾼입니다. 이 세상 것을 잠시 빌렸었죠. 그리고 시간이 되니까 하나둘씩 되돌려 주어야 했습니다. 이제 난 본색이 드러나고 이렇게 빈털터리입니다. 그러나 덤,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누가 하나 자신 있게 이건 내 것이다, 말할 수 있는가를.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없다니까요. 모두들 덤으로 빌렸지요. 눈동자, 코, 입술, 그 어느 것 하나 자기 것이 아니고 잠시 빌려 가진 거예요. (누구든 관객석의 사람을 붙들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리키며) 이게 당신 겁니까? 정해진 시간이 얼마지요? 잘 아꼈다가 그 시간이 되면 꼭 돌려 주십시오. 덤, 이젠 알겠어요?

여자, 얼굴을 외면한 채 걸어 나간다.

하인, 서서히 그 무거운 구두발을 이끌고 남자에게 다가온다. 남자는 뒷걸음질을 친다. 그는 마지막으로 절규 하듯이 여자에게 말한다.

남자 : 덤, 난 가진 것 하나 없습니다. 모두 빌렸던 겁니다. 그런데 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가진 건 뭘입니까? 무엇이 정말 당신 겁니까? (넥타이를 빌렸던 남성 관객에게) 내 말을 들어 보시오. 그럼 당신은 나를 이해할 거요. 내가 당신에게서 넥타이를 빌렸을 때, 그때 내가 당신 물건을 어떻게 다뤘었소? 마구 험하게 했었소? 어딜 망가뜨렸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시다. 오히려 빌렸던 것이니까 소중하게 아꼈다간 되돌려 드렸지요. 덤, 당신은 내 말을 들었어요?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이 증인 앞에서 약속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덤 당신을 빌리는 동안에, 아끼고, 사랑하고, 그랬다가 언젠가 시간이 되면 공손하게 되돌려 줄 테요. 덤! 내 인생에서 당신은 나의 소중한 덤입니다. 덤! 덤! 덤!

- 이강백, '결혼'

운암고등학교 (대구)

6. <보기>는 '결혼'의 처음 부분에 쓰인 '작가 노트'의 일부이다. 뒷글과 <보기>를 참고하여 관객이 극에 참여하도록 만든 설정이 주는 효과를 서술하시오.

<보기>

무대를 따로 만들 필요도 있지 않고 별다른 조명이나 효과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 장소에 모인 사람들이다. 이 연극의 등장인물, 하인은 그들로부터 잠시 모자라든가 구두, 넥타이 등을 빌려야 한다. 이 빌린 물건들을 단순히 소도구로 응용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이 작품을 검토하면 알겠으나, 이 잠시 빌렸다가 되돌려 준다는 것엔 더 깊은 의미가 있고 이 연극에 있어 중대한 역할을 차지하게 된다.

- 이강백, 「이강백 희곡 전집 1」

운암고등학교 (대구)

7. (가)는 <보기>를 바꾸어 쓴 것이라고 할 때, 바꿔 쓰는 과정에서 작가가 고려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하인은 또다시 남자에게 달려들어 넥타이를 풀어냈다. 남자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힘껏 저항했지만 하인의 역센 힘을 당해 내지 못했다. 결국은 하인에게 넥타이를 빼앗기고 만 남자를 보며 여자는 놀라 물었다.

“왜들 그러시죠?”

씩씩거리는 숨을 가라앉히며,

“이번엔 넥타이가 내 목에서 떠나갔습니다.”

남자는 웃으며 말했다.

- ① 주인공의 삶과 갈등을 형상화한다.
- ② 주로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사건을 표현한다.
- ③ 서술자가 자신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전달한다.
- ④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나 성격을 해설하거나 묘사한다.
- ⑤ 서술자 없이 등장인물의 대화와 행동으로 사건을 전개한다.

효문고등학교 (서울)

8.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시문'에서 무대장치, 등장인물의 행동 등을 설명한다.
- ② 서술자가 관객에게 사건의 전개 양상을 직접 보여준다.
- ③ 특정 인물의 모습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소유의 본질은 소유하지 않는 데 있음을 역설적으로 제시한다.
- ⑤ 극의 흐름에 따라 결혼의 조건에 대한 인물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효문고등학교 (서울)

9. 뒷글에 나타난 남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신의 거짓된 모습을 직접적으로 고백하고 있다.
- ② 자신의 의견에 대해 관객에게 동의를 구하고, 이를 설득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 ③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여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와 동정심을 유발하고 있다.
- ④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질문을 던져 자신의 처지를 헤아려보도록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
- ⑤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결혼은 상대방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자신의 결혼관을 제시하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앞부분 줄거리] ‘남자’가 등장하여 한 사기꾼의 이야기가 쓰인 ㉠이야기책을 관객 앞에서 낭독한다. 이야기책 속의 사기꾼은 외로움에 지쳐, 결혼하고 싶지만 빈털터리이다. 그는 부자로 보이도록 저택, 모자와 넥타이, 호사스러운 의복, 건강한 하인을 빌린다. 그러나 빌린 물건은 제각기 정해진 시간 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는다. ‘남자’는 이야기 속의 사기꾼이 되어 맞선을 보기로 한다. ‘남자’는 ‘여자’를 만나자마자 청혼하고, ‘여자’는 갑작스러운 청혼에 놀란다.

(나) 하인, 또다시 남자에게 달려들어서 넥타이를 풀어낸다. 남자는 빼앗기지 않으려 힘껏 저항하지만 하인의 억센 힘을 당해 내지 못한다. 결국 빼앗기고 하인은 기계적인 동작으로 넥타이를 가지고 나간다. 여자는 두 남자의 다툼에 놀란다.

여자 : 왜들 그러시죠?

남자 : (씩씩거리면서 웃고 있다.) 이번엔 ㉡넥타이가 내 목에서 떠나갔습니다.

여자 :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이) 네에?

남자 : 뭐, 놀랄 게 못 됩니다. 그저 시간이 지난 것뿐이니깐요. 안심하십시오. 만약 내 목이 떠나가고 넥타이만 남았다면……

(다) 여자 :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남자 : 놀랐습니다, 갑자기.

여자 : 네, 태어난다는 건 언제나 갑자기죠. 그래서요, 저는 태어날 때 제 기분이 어땠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냥 그렇게 이 세상에 나온 거죠. 그리고, 어렸을 때 제 별명이 뭔지 아시겠어요? ㉢덤이에요, 덤.

남자 : 덤?

여자 : 네. 왜 조금 더 주는 것 있잖아요. 그거래요, 제가. 아버지 사랑을 주고, 그리고 또 덤으로 저를 어머니에게 주었죠. 그러니까 덤 아니겠어요? 덤, 이 말 속엔 뭔가 그리운 게 있어요. 덤, 덤, 덤…… 아버지 덤이 태어나자 달아나셨대요. 말하자면 뺑소닐 치신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고 어머니에게 보여 줬던 그 많은 재산은 모두 다 잠시 빌렸던 거래요.

남자 : 덤, 덤, 덤.

여자 : 하지만요, 저는 아버지 미워 안 해요. 그분께겐 뭔가 덤이라는 옛 이름처럼 그리운 데가 있어요. 덤, 혹시 그 분도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셨던 건 아닐지…… 안 그래요?

남자 : 덤, 덤, 덤…….

여자 : 어머니께겐 안됐지만요, 덤이라는 그 점이 저에게겐 좋아요. 왠지 흥가분하더군요. 이런 말을 하면 어머니

화를 내시곤 한답니다. 하긴 그렇죠. 고생 많으셨어요. 홀로 덤을 나아 키운다는 건…….

(라) 여자, 남자와 함께 의자로 돌아간다. 의자 앞에 놓여 있는 핸드백을 열고 그 속에서 얼굴만을 커다랗게 찍은 ㉣사진 석 장을 꺼낸다.

여자 : 이걸 좀 보세요.

남자 : 뭔데요, 그게?

여자 :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제 사진이에요. 저희 집 가문의 여인들은 대대로 미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남자 : (여자에게)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여자 : 제일 젊으니까 그렇죠.

<중략>

남자, 할머니의 사진을 여자의 얼굴에 대어 준다.

남자 : 시간이 더욱 지났습니다. 이젠 이 얼굴이 당신입니다. 몇 살이시죠?

여자 : (폭 신 목소리로) 일흔 살이 넘었어요.

남자 : 일흔 살이 넘으셨다, 늙으셨군요.

남자, 얼굴에 대었던 사진들을 탁상 위에 내려놓는다.

남자 : 재미난 놀이를 해 봤지요?

여자 : 네, 재미있었어요.

남자 : 짐작하셨겠지만, 이 놀이의 재미는 시간이 지나간다는 데 있습니다.

(마) 남자 : 그래요, 난 사기꾼입니다. 이 세상 것을 잠시 빌렸었죠. 그리고 시간이 되니까 하나둘씩 되돌려 주어야 했습니다. 이제 난 본색이 드러나고 이렇게 빈털터리입니다. 그러나 덤,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누구 하나 자신 있게 이걸 내 것이다, 말할 수 있는가를.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없다니깐요. 모두들 덤으로 빌렸지요. 눈동자, 코, 입술, 그 어느 것 하나 자기 것이 아니고 잠시 빌려 가진 거예요. (누구든 관객석의 사람을 붙들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리키며) 이게 당신 겁니까? 정해진 시간이 얼마지요? 잘 아꼈다가 그 시간이 되면 꼭 돌려주십시오. 덤, 이젠 알겠어요?

여자, 얼굴을 외면한 채 걸어 나간다.

하인, 서서히 그 무거운 구둣발을 이끌고 남자에게 다가온다. 남자는 뒷걸음질을 친다. 그는 마지막으로 절규하듯이 여자에게 말한다.

[남자 : 덤, 난 가진 것 하나 없습니다. 모두 빌렸던 겁니다. 그런데 덤, 당신은 어떻게습니까? 당신이 가진 건 뭡니까? 무엇이 정말 당신 겁니까? (넥타이를 빌렸던 남성 관객에게) 내 말을 들어 보시오. 그럼 당신은 나를 이해

할 거요. 내가 당신에게서 넥타이를 빌렸을 때, 그때 내가 당신 물건을 어떻게 다뤘었소? 마구 험하게 했었소? 어딜 망가뜨렸소? 아니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렸던 것이니까 소중하게 아꼈다가 되돌려 드렸지요. 덤, 당신은 내 말을 들었어요?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이 증인 앞에서 약속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덤 당신을 빌리는 동안에, 아끼고, 사랑하고, 그랬다가 언젠가 시간이 되면 공손하게 되돌려 줄 테요. 덤! 내 인생에서 당신은 나의 소중한 덤입니다. 덤! 덤! 덤!

남자, 하인의 ◎근듯발에 걷어챌다.

여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다급하게 되돌아와서 남자를 부축해 일으키고 포옹한다.

여자 : 그만해요!

남자 : 이제야 날 사랑합니까?

여자 : 그래요! 당신 아니고 또 누굴 사랑하겠어요!

효문고등학교 (서울)

10. 윗글에 쓰인 상징적 소재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 앞으로 극이 진행될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 : 극의 주제 의식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 : '여자'가 자신의 처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지금 이 순간의 젊음이 가장 빛나고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준다.
 ㉤ : '여자'가 '남자'의 청혼을 수락하게 하는 결정적 계기로, 갈등 해소의 역할을 한다.

- ① ㉠, ㉡, ㉢
- ② ㉠, ㉢, ㉣
- ③ ㉡, ㉣, ㉤

효문고등학교 (서울)

11. 윗글과 <보기>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다 : 간밤에 담요를 덮지 않아서 병이 났어요.
 촌장 : 이만한 나이 때 누구나 한 번씩은 앓는 병이겠지요.
 나 : 내 잘못이었어요. 담요를 꼭 덮어 줘야 하는 건데, (다에게) 애야, 난 널 좋아해. 아픈 것 빨리 좀 나아주렴.

다 : 고마워요…….

나 : (관객석 쪽으로 돌아서다가, 흠칫 놀라며) 웬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죠?

촌장 : 마을 사람들이죠.

나 : 마을 사람들이요?

촌장 : (관객들을 향해) 어서 오십시오, 주민 여러분. 이 애가 그 말을 꺼낸 파수꾼입니다. 저기 편지를 공개한 식량 운반인, 이 애가 틀림없지요? 네,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리 떼인지 아니면 흰 구름인지, 직접 이 아이의 입을 통하여 들어봅시다.

(파수꾼 다, 쓰러질 것 같은 걸음으로 망루를 향해 걸어간다. 나가 근심스럽게 쫓아간다.)

(중략)

촌장 : 그만 올라가게 하십시오.

(파수꾼 다는 망루 위에 올라간다. 긴 치목, 마침내 부르짖는다.)

다 : 이리 떼다, 이리 떼! 이리 떼가 몰려온다!

- 이강백, 「파수꾼」

- ① 대상에 대한 연민을 유발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②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여 관객의 집중을 이끌어내고 있다.
- ③ 주인공을 사기꾼으로 설정한 후,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인물의 태도 변화를 다루고 있다.
- ④ 인물 간의 신분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통해 사회에 대한 작가의 문제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 ⑤ 관객의 물건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극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고, 주제를 실감나게 드러내고 있다.

흥진고등학교 (경기)

12. 윗글과 같은 갈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간의 삶과 갈등을 형상화하는 문학 갈래이다.
- ② 상연을 전제로 하므로 장면 구현에 제약을 받기도 한다.
- ③ 민속극, 인형극, 드라마 대본, 시나리오, 희곡 등이 있다.
- ④ 서술자 없이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인물의 심리와 성격을 드러낸다.
- ⑤ 이야기를 '지금 진행 중인 사건'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서사 갈래보다 현장성이 약하다.

「반 통의 물」 정리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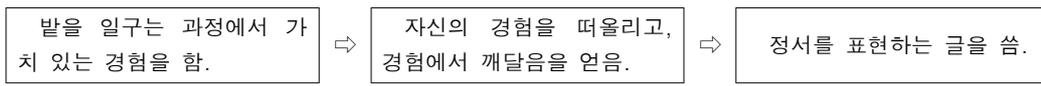
●특성강의

갈래	현대 수필
성격	사색적, 체험적, 성찰적
제지	밭을 가꾸는 일
주제	밭을 가꾸면서 얻은 깨달음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사를 짓는 자신의 체험에서 깨달음을 이끌어 내고 있음. •밭을 일구면서 느낀 점을 중심으로 짙막한 이야기들을 병렬적으로 나열함.

1. 작가의 경험과 깨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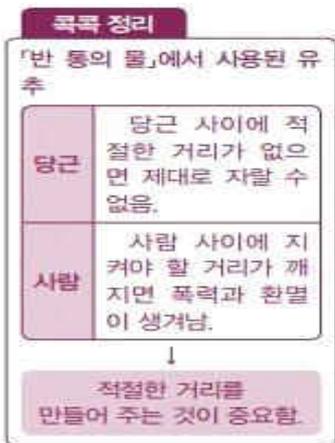
경험	깨달음
당근이 자랄 수 있도록 속아 준 일.	당근을 적절히 속아 내지 않으면 전체가 자랄 수 없음. 이를 통해 '적절한 거리의 중요성'을 깨달음.
밭에 풀을 뽑지 않아 잡초가 무성해진 일.	사람이 잡초와 채소를 구분하여 죽이고 살리는 것임. 선택보다는 공존의 질서가 필요함을 깨달음.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가 채소에 물을 주는 것을 본 일.	통에 담긴 물을 반 이상 쏟으면서도 물을 주러 가는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생명을 사랑하는 소중한 마음을 깨달음.

2. 「반 통의 물」을 쓴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는 수필의 갈래적 특성



수필의 특성

- 작가의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글로 표현함.
- 형식과 표현이 자유롭고, 작가의 개성과 가치관이 잘 드러남.



“반통의 물” 쓰기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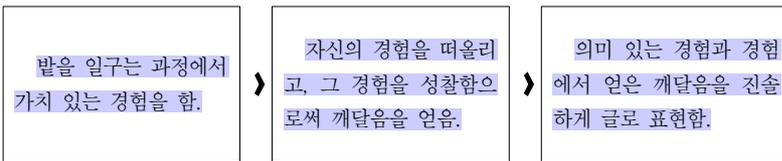
1. 글쓴이가 경험한 일과, 그 일에서 깨달은 점을 정리해 보자.

1	경험 2	경험 3
당근이 자랄 수 있도록 숙아 준 일.	밭에 난 잡초를 뽑지 않 아 밭에 풀이 무성해진 일.	몸이 불편한데도 채소에 물을 주기 위해 애쓰는 할 아버지를 본 일.
↓	↓	↓
깨달음	깨달음	깨달음
사이에도 적 절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음.	선택보다는 공존이 땅의 본래적 질서임을 깨 달음.	생명을 소중히 여기 는 마음을 깨달음.

2. 이 수필에서 알 수 있는 글쓴이의 삶의 태도를 말해 보자.

글쓴이는 농사를 짓는 경험을 통해 식물들 사이에도 사람들 사이와 같은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
고, 선택보다는 공존이 땅의 본래적 질서이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란 어떤 것인지 깨
달고 있다. 이런 깨달음으로 보아, 글쓴이는 작은 생명이라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생명
존중 사상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3. 다음은 글쓴이가 이 글을 쓴 과정을 추측한 것이다. 이를 참고하여 수필의 갈래적 특성을 파악해 보자.



- 수필은 작가가 자신의 경험에서 얻은 소재를 바탕으로 쓴 글이다.
- 수필은 개인의 사색과 성찰을 통해 쓴 글이다.
- 수필은 자신의 정서를 진솔하게 담아 쓴 글이다.

“반통의 물” 구원 원칙

1. [122쪽 11~13행] 그제야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적어도 세 알 이상씩 심는 뜻을 알 것 같았다. 한 알은 새를 위해, 한
알은 벌레를 위해, 그리고 한 알은 사람을 위해.

→ 글쓴이는 새들이 씨를 먹어서 씨가 돌아나지 않는 경험을 한 후, 농부들이 씨를 넉넉히 뿌리라고 한 이유를 깨닫고 있
다. 이는 자연을 대할 때 서로 나누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깨달음이다.

2. [122쪽 19~20행] 그것을 보면서 식물에게는 적절한 거리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글쓴이는 당근 싹들을 숙아 내지 않아 당근 전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것을 보고 식물에게도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
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식물의 간격이 너무 빽빽하여 제대로 영양 섭취를 하지 못하면 식물이 성장하기 어렵다.

3. [123쪽 2~3행] 농사를 배운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적절한 ‘거리’를 익히는 과정이 아닐까.

→ 농사는 모든 싹들을 그대로 두는 것보다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 이
는 글쓴이가 당근 농사를 지으며 얻은 깨달음이다.

4. [123쪽 4행] 미운 풀이 죽으면 고운 풀도 죽는다는 속담이 있다.

→ 미운 풀 곁에는 고운 풀도 있는 법이라서, 미운 풀을 죽이려고 밟다 보면 그 곁에 있던 고운 풀도 죽게 된다는 의미의 속담이다.

5. [123쪽 6~8행] 굵고 미운 것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 사람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잡초와 채소를 구분하여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살리는 것이 이른바 농사다.

→ 잡초와 채소는 인간의 기준에 의한 구분일 뿐이며, 농사는 모두가 공존하기보다는 선택해야 하는 일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6. [123쪽 9~10행] 선택보다는 공존이 땅의 본래적 질서라고 할 때, 밭은 숲보다 생명에 덜 가깝다.

→ 숲은 미운 풀이든 고운 풀이든 함께 공존하는 곳이다. 그러나 밭은 사람이 고운 풀은 남기고 미운 풀은 뽑아내어 선택적으로 키우기 때문에, 글쓴이는 숲에 비해 밭이 생명의 본래적 질서에서 벗어난다고 보고 있다.

7. [123쪽 18~19행] 변명 같지만, 다른 밭보다 우리 밭에 풀이 무성한 것은 게으름 때문만은 아니다. 만일 그렇다 해도 게으름이 농부의 악덕은 아닌 것이다.

→ 글쓴이는 생명 존중 의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글쓴이의 밭에는 다른 밭보다 풀이 무성하다. 즉 글쓴이와 같이 농부가 게을러 열심히 풀을 뽑지 않으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되므로 이는 악덕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 이렇듯 글쓴이는 김을 매면서 농사가 지닌 반생명성을 깨닫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다.

8. [123쪽 23~24행] 푸성귀들을 키우는 것은 물이 아니라 농부의 발소리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닌가 보다.

→ 농작물은 저절로 크는 것이 아니라, 물을 주기 위해 들판을 분주히 오가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에 담긴 사랑과 정성으로 자란다는 의미이다.

9. [124쪽 10~11행] 그 젖은 길은 이내 말라버리곤 했지만, 나는 그 길보다 더 아름답고 빛나는 길은 별로 보지 못했다.

→ 글쓴이는 젖은 길에서 할아버지를 보게 된다. 할아버지는 불편한 몸으로도 채소에 물을 주기 위해 안간힘을 써 가며 물통을 옮겼고, 글쓴이는 이 모습을 통해 할아버지의 소중한 마음을 느낀다. 따라서 젖은 길을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10. [124쪽 13~15행] 내가 열 번 오가야 할 것을 그 할아버지는 스무 번 오가야 할 것이지만, 내가 이 채소들을 키우는 일도 그 할아버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어떤 안간힘 때문은 아닐까.

→ 글쓴이는 할아버지가 불편한 몸으로 채소에 물을 주는 모습을 보며 생명을 사랑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있다. 또한 자신이 채소를 키우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된다. 힘이 들더라도 채소에게 생명의 기운을 쏟아 붓고 싶은 마음이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있음을 느끼는 것이다.

11. [124쪽 19~20행] 이 짙막한 이야기들은 그렇게 밭을 가꾸는 동안 절뚝거리던 내 영혼의 발소리 같은 것이다.

→ 글쓴이는 자신이 농사를 지으며 겪은 일을 통해 생명에 대한 사랑과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12. [124쪽 23~24행] 그들에게 물을 주고 돌아오는 물통은 언제나 비어 있다.

→ 채소를 키우며 그들에게 사랑을 흠뻑 쏟고 돌아오는 글쓴이 자신의 모습을 물통에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다.

“반 통의 물” 담겨 있는

1. 123쪽 - 글쓴이가 당근을 썰어 낸 이유는 무엇인가?

→ 당근 사이에 적절한 거리를 만들어 뿌리가 너무 뻣뻣하게 얽히는 것을 방지하여 당근이 제대로 자라게 하기 위함이다.

2. 123쪽 - 밭을 일구며 글쓴이가 가장 고민한 문제는 무엇인가?

→ 원래 땅의 주인이었던 풀들을 뽑아내는 것이 내키지 않은 글쓴이는 풀을 그냥 둘 것인지, 뽑을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3. 124쪽 - 글쓴이가 본, 텃밭에 물을 주러 가는 할아버지의 모습은 어떠한가?
 → 몸 반쪽이 마비되어 걷는 것이 자연스럽게 못하다. 절뚝거리면서 걷다 보니 물통의 물을 반 이상 흘리며 몸부림치듯 걸어간다. 그러나 그 모습에서는 이상한 평화가 느껴진다.

“반 통의 물” 읽기 포인트

1)

그것을 보면서 식물에게는 적절한 거리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거리가 깨졌을 때 폭력과 환멸이 생겨나는 것처럼, 좁은 땅에 서로 머리를 디밀며 얽혀 있는 그 불

2)

은 뿌리들에서도 어떤 아우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다. 내가 그들을 돕는 길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심는 아우성 같 때마다 조금씩 속아 주어서 그 아우성을 중재하는 일이었다. 농사를 배운 식물들 사이에 적절한 거리를 만들어 줌

3)

는 채소는 고운 풀이란 말인가. 곱고 미운 것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 사람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잡초와 채소를 구분하여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살리는 것이 이른바 농사다. 그러나 미운 풀이 죽으면 고운 풀도 죽는다

4)

이 짙막한 이야기들은 그렇게 밭을 가꾸는 동안 절뚝 거리던 내 영혼의 발소리 같은 것이다. 감히 농사라고는 할 수 없지만, 자연과의 행복한 합일이라고도 부를

5)

이 짙막한 이야기들은 그렇게 밭을 가꾸는 동안 절뚝 거리던 내 영혼의 발소리 같은 것이다. 감히 농사라고는 할 수 없지만, 자연과의 행복한 합일이라고도 부를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당근 싹은 좀 늦긴 했지만 총총하게 돌아났다. 처음엔 그 어렵게 틈워 낸 이쁜 싹들을 숨겨 내느니 차라리 잘고 못생긴 당근을 먹는 게 낫다고 그냥 두었다. 그러나 워낙 자라는 속도가 빨라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밀려나오는 뿌리가 하나둘이 아니었다. 이러다가는 당근 전체가 제대로 자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것을 보면서 식물에게는 적절한 거리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거리가 깨졌을 때 폭력과 환멸이 생겨나는 것처럼, 좁은 땅에 서로 머리를 디밀며 얽혀 있는 그 붉은 뿌리들에서도 어떤 아우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다. 내가 그들을 돕는 길은 갈 때마다 조금씩 숨겨 주어서 그 아우성을 중재하는 일이었다. 농사를 배운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적절한 '거리'를 익히는 과정이 아닐까.

(나) 곱고 미운 것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 사람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잡초와 채소를 구분하여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살리는 것이 이른바 농사다. 그러나 미운 풀이 죽으면 고운 풀도 죽는다고 하지 않는가. 선택보다는 공존이 땅의 본래적 질서라고 할 때, 밭은 숲보다 생명에 덜 가깝다.

그래서 밭을 일구면서 가장 고민되는 문제가 풀이다. 사람의 손이 미치지 오래전부터 이 둔덕에는 명아주, 저 둔덕에는 개망초, 이 고랑에는 돼지풀, 저 고랑에는 질경이……. 그들이 바로 이 땅의 주인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달갑지 않은 ㉠침입자가 삽과 호미를 들고 나타나 그것도 생명을 키운답시고 원주민을 쫓아내니, 사실 원주민 풀들에게는 명목이 서지 않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풀을 그냥 두면 뿌려 놓은 채소들이 자라지 못하게 되니 어느 정도는 뽑아 주어야 한다. 이런 안절부절 덕분에 우리 밭에는 채소가 반이고 잡초가 반이다. 변명 같지만, 다른 밭보다 우리 밭에 풀이 무성한 것은 게으름 때문만은 아니다. 만일 그렇다 해도 게으름이 농부의 악덕은 아닌 것이다.

(다) 물통을 들고 걸을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우리 집에서 가까운 텃밭을 일구시는 어떤 할아버지인데, 물을 주러 가시는 모습을 몇 번 본 적이 있다. 그 할아버지는 몸 반쪽이 마비되어 걷는 게 그리 자유롭지 못하다. 성한 한쪽 팔로 물통을 들고 걸어가는 모습은 거의 몸부림에 가까우면서도 이상한 평화 같은 것을 느끼게 한다. 절뚝절뚝 몸이 심하게 흔들릴 때마다 물은 찰랑거리면서 그의 낡은 바지를 적시고 길 위에 쏟아져, 결국 반통도 채 남지 않게 된다. 그렇게 몇 번씩 오가는 걸 나는 때로는 꿀 듯이 지나가는 발소리로 듣기도 하고, 때로는 마른 길 위에 휘청휘청 내고 간 젖은 길을 보고 알기도 한다.

그 젖은 길은 이내 말라 버리곤 했지만, 나는 그 길보다 더 아름답고 빛나는 길을 별로 보지 못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나 역시 그 밭의 채소들처럼 할아버지의 발소리를 기다리게 되었다. 반 통의 물을 잃어버린 그 발소리를.

물통을 나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곤 한다. 내가 열 번 오가야 할 것을 그 할아버지는 스무 번 오가야 할 것이지만, 내가 이 채소들을 키우는 일도 그 할아버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어떤 인간됨 때문은 아닐까. 몸에 피가 돌지 않는 것처럼 문득문득 마음 한쪽이 굳어져 가는 걸 느끼면서, 절뚝거리면서, 그러면서도 남은 반 통의 물을 살아있는 것들에게 쏟아붓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아니었을까?

- 나희덕, 「반 통의 물」

선사고등학교 (서울)

1. 밑글의 갈래적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형식과 표현이 자유롭다.
- ② 자신의 정서를 진솔하게 담아 쓴다.
- ③ 글쓴이의 개성과 가치관이 잘 드러난다.
- ④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에서 얻은 소재를 바탕으로 쓴다.
- ⑤ 글쓴이가 상상한 내용으로부터 얻은 깨달음이나 통찰을 표현한다.

선사고등학교 (서울)

2. 밑글의 내용으로 볼 때 ㉠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잡초 ② 채소 ③ 농부
- ④ 밭 ⑤ 풀

선사고등학교 (서울)

3. (다)에서 ㉡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 ② 삽과 호미로 잡초를 뽑아주는 일
- ③ 자연과도 나눌 줄 아는 넉넉한 마음
- ④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
- ⑤ 선택 보다는 공존의 질서를 지키려는 마음

선사고등학교 (서울)

4.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당근 싹을 솥아 내면 잘고 못생긴 당근을 먹게 된다고 생각해 당근 싹들을 그냥 두었다.
- ②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거리가 깨졌을 때, 폭력과 환멸이 증재된다.
- ③ 농사는 잡초와 채소를 모두 공존하게 하므로 숲보다 밭이 생명에 가깝다.
- ④ 글쓴이의 밭은 농부의 악덕인 게으름으로 풀이 무성하다.
- ⑤ 반 통의 물을 흘리며 가는 할아버지 모습을 보며 평화를 느낀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워낙 넉넉히 뿌린 탓인지, 새들이 당근씨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탓인지, 당근 싹은 좀 늦긴 했지만 촘촘하게 돋아났다. ㉠처음엔 그 어렵게 틈워 낸 이쁜 싹들을 솥아 내느니 차라리 잘고 못생긴 당근을 먹는 게 낫다고 그냥 두었다. 그러나 워낙 자라는 속도가 빨라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밀려 나오는 뿌리가 하나둘이 아니었다. 이러다가는 당근 전체가 제대로 자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것을 보면서 식물에게는 적절한 거리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거리가 깨졌을 때 폭력과 환멸이 생겨나는 것처럼, 좁은 땅에 서로 머리를 디밀며 얽혀 있는 그 붉은 뿌리들에서도 어떤 아우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다. 내가 그들을 돕는 길은 갈 때마다 조금씩 솥아 주어서 그 아우성을 증재하는 일이었다. 농사를 배운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적절한 '거리'를 익히는 과정이 아닐까.

미운 풀이 죽으면 고운 풀도 죽는다는 속담이 있다. 김을 맬 때마다 나는 그 말을 자주 떠올린다. 그럼 내가 뽑고 있는 잡초는 미운 풀이고, 키우고 있는 채소는 고운 풀이란 말인가. 곱고 미운 것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 사람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잡초와 채소를 구분하여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살리는 것이 이른바 농사다. 그러나 미운 풀이 죽으면 고운 풀도 죽는다고 하지 않는가. 선택보다는 공존이 땅의 본래적 질서라고 할 때, 밭은 숲보다 생명에 덜 가깝다.

그래서 밭을 일구면서 가장 고민되는 문제가 풀이다. 사람의 손이 미치지 오래전부터 이 둔덕에는 명아주, 저 둔덕에는 개망초, 이 고랑에는 돼지풀, 저 고랑에는 질경이……. 그들이 바로 이 땅의 주인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달갑지 않은 침입자가 삽과 호미를 들고 나타나 그것도 생명을 키운답시고 원주미를 쫓아내니, 사실 원주민 풀들에게는 명목이 서지 않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풀을 그냥 두면 뿌려 놓은 채소들이 자라지 못하게 되니 어느 정도는 뽑아 주어야 한다. ㉢이런 안절부절 덕분에 우리 밭에는 채소가 반이고 잡초가 반이다. 변명 같지만, 다른 밭보다 우리 밭에 풀이 무성한 것은 게으름 때문만은 아니다. 만일 그렇다 해도 게으름이 농부의 악덕은 아닌

것이다.

<중략>

물통을 들고 걸을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우리 집에서 가까운 텃밭을 일구시는 어떤 할아버지인데, 물을 주러 가시는 모습을 몇 번 본 적이 있다. 그 할아버지는 몸 반쪽이 마비되어 걷는 게 그리 자유롭지 못하다. ㉣성한 한쪽 팔로 물통을 들고 걸어가는 모습은 거의 몸부림에 가까우면서도 이상한 평화 같은 것을 느끼게 한다. 절뚝절뚝 몸이 심하게 흔들릴 때마다 이상한 평화 같은 것을 느끼게 한다. 절뚝절뚝 몸이 심하게 흔들릴 때마다 물은 찰랑거리면서 그의 낡은 바지를 적시고 길 위에 쏟아져, 결국 반통도 채 남지 않게 된다. 그렇게 몇 번씩 오가는 걸 나는 때로는 끝뚱이 지나가는 발소리로 듣기도 하고, 때로는 마른 길 위에 휘청휘청 내고 간 젖은 길을 보고 알기도 한다.

그 젖은 길은 이내 말라 버리곤 했지만, 나는 그 길보다 더 아름답고 빛나는 길을 별로 보지 못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나 역시 그 밭의 채소들처럼 할아버지의 발소리를 기다리게 되었다. 반 통의 물을 잃어버린 그 발소리를.

물통을 나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곤 한다. 내가 열 번 오가야 할 것을 그 할아버지는 스무 번 오가야 할 것이지만. ㉤내가 이 채소들을 키우는 일도 그 할아버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어떤 안간힘 때문은 아닐까. 몸에 피가 들지 않는 것처럼 문득문득 마음 한쪽이 굳어져 가는 걸 느끼면서, 절뚝거리면서, 그러면서도 남은 반 통의 물을 살아 있는 것들에게 쏟아 붓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아니었을까.

발곡고등학교 (경기)

5. 윗글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신의 깨달음을 설의적 물음으로 전달하여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 ② 글쓴이가 직접 경험한 것을 화자를 통해 전달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③ 관용적 표현을 사용하여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④ 짙막한 이야기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글쓴이의 삶의 태도와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 ⑤ 일상에서 겪은 일과 그것에 대한 깊은 생각을 통해 얻은 통찰을 글의 기본 구조로 하고 있다.

발곡고등학교 (경기)

6.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다다익선(多多益善)이라고. 당근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군.
- ② ㉡ : 풀과 채소가 주객전도(主客顛倒)된 모습을 통해 농사는 인위적인 행위라는 것을 깨달았군.
- ③ ㉢ : 밭의 풀을 맬 수도 없고 매지 않을 수도 없는 진퇴양란(進退兩亂)의 심정을 느낄 수 있군.

- ㉠ ㉡ : 겉모습과 풍기는 분위기가 모순(矛盾)적인 이유는 생명을 사랑하는 할아버지의 마음 때문이겠군.
- ㉢ ㉣ : 할아버지와 글쓴이가 채소를 키워내기 위해 고군분투(孤軍奮鬪)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군.

발곡고등학교 (경기)

7. 밑글에 쓰인 구절을 적절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은?

- ㉠ '아우성'은 채소가 촘촘하게 돌아나 있는 상태를 청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 ㉡ '고운 풀'은 밭에서 기르는 채소를 가리키는 말로 글쓴이에게 이익이 되는 존재를 함축한 표현이다.
- ㉢ '달갑지 않은 침입자'는 밭에 심은 채소들을 의인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 ㉣ '원주민을 쫓아내'는 것은 잡초를 뽑아버리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 '반 통의 물을 잃어버린 그 밭소리'는 채소를 키우기 위한 할아버지의 정성을 청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발곡고등학교 (경기)

8. 다음에서 말하는 '도(道)'를 밑글의 글쓴이가 깨달았다고 할 때, 그 깨달음의 결과로 적절한 것은?

“무릇 피와 기운이 있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소, 말, 돼지, 양, 벌레, 개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결같이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어찌 큰 놈만 좋아하고, 작은 놈만 죽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런즉, 개와 의의 죽은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큰 놈과 작은 놈을 적절히 대조한 것이지, 당신을 놀리기 위해서 한 말은 아닙니다. 당신이 내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당신의 열 손가락을 물어 보십시오. 엄지손가락만 아프고 그 나머지는 아프지 않습니까? 한 몸에 붙어 있는 큰 지절과 작은 부분이 골고루 피와 고기가 있으니, 그 아픔은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각기 기운과 숨을 받은 자로서 어찌 저 놈은 죽기를 싫어하고 이 놈은 좋아할 턱이 있겠습니까? 당신은 물러가서 눈감고 고요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하여 달팽이의 뿔을 쇠뿔과 같이 보고, 메추리를 대붕과 동일시하도록 해 보십시오. 연후에 나는 당신과 함께 '도(道)'를 이야기하겠습니다.”

- 이규보, <술견설> 중에서

이 : (사람의 몸에서 피를 빨아 먹는) 잇과의 곤충
 지절 : 팔다리의 관절
 대붕 : 하루에 구만 리를 날아간다는 매우 거대한 상상의 새

- ㉠ 촘촘하게 돌아난 당근을 적절하게 솟아준다.
- ㉡ 곱고 미운 것의 기준이 무엇인지 사색해 본다.
- ㉢ 자신의 텃밭에 김을 매지 않아 풀이 무성하다.
- ㉣ 텃밭의 채소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준다.
- ㉤ 몸 반쪽이 마비된 할아버지와 자신을 비교해 본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좀 넉넉히 넣어요. 넉넉히.”

당근씨를 막 뿌리려는 남편에게 나는 몇 번이나 말했다. 다른 씨앗들은 한번 키워 보았기 때문에 감을 잡을 수 있겠는데, 부추씨와 당근씨는 올해 처음 뿌리는 것이라 ㉠대중이 서지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아까부터 밭 주변을 종종거리는 참새 서너 마리가 어쩐지 마음에 걸린다. 작년에도 너무 얇게 씨를 뿌려 ㉡뽕뽕을 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씨 뿌린 지 두 주일이 넘도록 싹이 나오지 않아 웬일인가 했더니 새들이 와서 잘 잡숫고 간 뒤였다. 그제야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적어도 세 알 이상씩 심는 뜻을 알 것 같았다. 한 알은 새를 위해, 한 알은 벌레를 위해, 그리고 한 알은 사람을 위해.

워낙 넉넉히 뿌린 탓인지, 새들이 당근씨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탓인지, 당근 싹은 좀 늦긴 했지만 촘촘하게 돌아났다. 처음엔 그 어렵게 틈워 낸 이쁜 싹들을 솟아 내느니 차라리 잘고 못생긴 당근을 먹는 게 ㉢넋다고 그냥 두었다. 그러나 워낙 자라는 속도가 빨라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밀려 나오는 뿌리가 하나둘이 아니었다. 이러다가는 당근 전체가 제대로 자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것을 보면서 식물에게는 적절한 거리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거리가 깨졌을 때 폭력과 ㉣환멸이 생겨나는 것처럼, 좁은 땅에 서로 머리를 디밀며 얽혀 있는 그 붉은 뿌리들에서도 어떤 아우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다. 내가 그들을 돕는 길은 갈 때마다 조금씩 솟아 주어서 그 아우성을 ㉤중재하는 일이었다. 농사를 배운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적절한 '거리'를 익히는 과정이 아닐까.

미운 풀이 죽으면 고운 풀도 죽는다는 속담이 있다. 김을 맬 때마다 나는 그 말을 자주 떠올린다. 그럼 내가 뽑고 있는 잡초는 미운 풀이고, 키우고 있는 채소는 고운 풀이란 말인가. 곱고 미운 것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 사람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잡초와 채소를 구분하여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살리는 것이 이른바 농사다. 그러나 미운 풀이 죽으면 고운 풀도 죽는다고 하지 않는다. 선택보다는 공존이 땅의 본래적 질서라고 할 때, 밭은 숲보다 생명에 덜 가깝다.

그래서 밭을 일구면서 가장 고민되는 문제가 풀이다. 사람의 손이 미치지 오래전부터 이 둔덕에는 명아주, 저 둔덕에는 개망초, 이 고랑에는 돼지풀, 저 고랑에는 질경이……. 그들이 바로 이 땅의 주인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달갑지 않은 침입자가 삽과 호미를 들고 나타나 그것도 생명을 키운답시고 원주민을 쫓아내니, 사실 원주민 풀들에게는 명목이 서지 않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풀을 그냥 두면 뿌려 놓은 채소들이 자라지 못하게 되니 어느 정도는 뽑아 주어야 한다. 이런 안절부절 덕분에 우리 밭에는 채소가 반이고 잡초가 반이다. 변명 같지만, 다른 밭보다 우리 밭에 풀이 무성한 것은 게으름 때문만은 아니다. 만일 그렇다 해도 게으름이 농부

“음운 변동” 관련 명칭

1. 음운의 개념

음운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예) ‘발’과 ‘팔’의 ‘ㅂ’과 ‘ㅍ’은 두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음운이다.
-----------	---

2. 음운 변동 현상의 개념

음운 변동	음운이 일정한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음되는 현상.
--------------	-----------------------------

3. 음운 변동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



4. 음운 변동 현상의 종류

교체	비음화	비음이 아닌 음운이 비음을 만나 비음 ‘ㅇ, ㄴ, ㄹ’으로 교체되어 발음되는 현상. 예) 국물[궁물], 만며느리[만며느리], 잡는다[잠는다]
	유음화	비음 ‘ㄴ’이 유음 ‘ㄹ’의 앞 또는 뒤에서 유음 ‘ㄹ’로 교체되어 발음되는 현상. 예) 설날[설 : 랄], 난로[날 : 로]
	구개음화	앞말의 끝소리 ‘ㄷ, ㅌ’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구개음인 ‘ㅌ, ㅈ’으로 교체되어 발음되는 현상. 예) 해돋이[해도지], 같이[가치]
	편소리되기	일정한 환경에서 뒷말의 첫소리인 예사소리 ‘ㄱ, ㄷ, ㅂ, ㅅ, ㅈ’이 된소리 ‘ㄲ, ㄸ, ㅃ, ㅆ, ㅉ’으로 교체되어 발음되는 현상. 예) 국수[국쑤], 신고[신 : 꼬], 갑자기[갑짜기], 먹을지[머글찌], 갈등[갈똥]
축약	거센소리되기	예사소리 ‘ㄱ, ㄷ, ㅂ, ㅈ’이 ‘ㅎ’과 만나 두 음운이 축약되어 (거센소리)인 ‘ㅋ, ㅌ, ㅍ, ㅊ’으로 발음되는 현상. 예) 축하[추카], 만형[마형], 굽히다[구피다], 좋지[조 : 치]
탈락	모음 탈락	두 모음이 이어질 때 그중 한 모음이 탈락하는 현상. 예) 고파서(고프 - + - 아서), 가서(가 - + - 아서)
첨가	반모음 첨가	모음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 뒤에 모음 ‘ㄴ, ㄹ’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거나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조사 ‘에’가 결합할 때, 반모음 [j]가 새로 생겨 발음되는 현상. 예) 되어[되어/되여], 피어[피어/피여]

자음 탈락
모음이 탈락되듯이, 자음의 경우에도 두 개의 자음이 이어질 때 둘 중 하나가 탈락되어 소리가 나지 않기도 한다.

'ㄹ' 탈락	을-+-니 → 우네[우니]
'ㅎ' 탈락	출-+-은 → 풀은[조은]

모음 축약
자음이 축약되듯이, 모음의 경우에도 두 모음이 축약되어 하나의 모음으로 소리가 나기도 한다.

그리-+-어	→	그려
ㅣ+ㅣ	→	ㅣ
오-+-아서	→	와서
ㅗ+ㅗ	→	ㅜ

참고 자료
소리의 세기에 따른 자음의 분류

예사소리	입안의 기압 및 발음 기관의 긴장도가 낮아 막하게 터져 나오는 소리 예 ㄱ, ㄷ, ㅂ, ㅅ, ㅈ
원소리	목구멍의 근육을 긴장하거나 상대 사이의 틈을 좁혀 내는 소리 예 ㄷ, ㅌ, ㅍ, ㅊ, ㅍ
거센소리	숨이 거세게 터져 나오는 소리 예 ㅋ, ㆁ, ㅍ, ㅌ

- 원소리되기 나타나는 환경**
- 받침 'ㄱ, ㄷ, ㅂ'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원소리로 발음한다.
예 국밥[국꺄], 꽃다발[꽃따발], 김치대[김찌대]
 - 어간의 받침 'ㄴ, ㄹ' 뒤에 결합되는 어마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원소리로 발음한다.
예 꺼안다[꺼안따], 삼고[삼꼬], 달고[달꼬]
 -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ㅅ, ㅈ'은 원소리로 발음한다.
예 갈등[갈똥], 일사[일씨], 갈증[갈쑹]
 -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원소리로 발음한다.
예 할 것음[할꺼슴], 갈 대가[갈대기], 할 적에[할찌게]

“유음 현상” 모라신 유음

1. 다음 단어를 발음해 보고, 자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자.

명는다	닫는다	굽는다
[명는다]	[닫는다]	[굽는다]
ㄱ+ㄴ → ㄱ+ㄴ	ㄷ+ㄴ → ㄴ+ㄴ	ㅂ+ㄴ → ㅁ+ㄴ

2. 단어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음운 변동 현상을 알아보자.

단어	발음	바뀐 음운
신라	[실라]	ㄴ → ㄹ
칼날	[칼랄]	ㄴ → ㄹ
실내화	[실래화]	ㄴ → ㄹ

↓

‘ㄴ’이 ‘ㄹ’의 앞 또는 뒤에서 ‘ㄹ’로 발음되는 현상인 ‘유음화’가 나타난다.

4-(1) 음운 변동 [이론편]

3. 지명 중에서 같은 음운 변동 현상이 나타나는 것끼리 묶어 보자.

백마강 강릉 대관령 한라산 종로	백마강, 강릉, 종로 → 각각 '백마강[백마강], 강릉[강릉], 종로[종로]'로 발음된다.
	만리포, 대관령, 한라산 → 각각 '만리포[말리포], 대관령[대:팔령], 한라산[할:라산]'으로 발음된다.

4. 다음 표의 빈칸에 표나 표를 하고, 구개음화의 원리를 정리해 보자.

	미달이	불이다	디디다
'ㄷ, ㅌ'와 모음 'ㅣ'가 만나는가?	○	○	○
'ㄷ, ㅌ'이 앞 말의 끝소리인가?	○	○	×
모음 'ㅣ'가 형식 형태소의 첫소리인가?	○	○	×

↓

'미달이'와 '불이다'는 구개음화가 일어나 [**미다지**], [**부치다**]로 발음된다. 이처럼 우리말에서는 앞말의 끝소리 'ㄷ, ㅌ'이 모음 'ㅣ'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ㅈ, ㅊ'으로 변하여 소리 난다.

5.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을 써 보고, 된소리되기가 나타나는 환경을 알아보자.

된소리되기의 ㉠	된소리되기가 나타나는 환경
•어서 학교[학교]에 가자. •고집부리며 <u>뻔대지</u> [뻔대지] 마라. •잔에는 <u>입술</u> [입술]을 축이기도 모자랄 정도의 물이 남아 있을 뿐이다.	받침 'ㄱ, ㄷ, ㅂ'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그녀는 부담감을 안고[안꼬] 일했다. •나는 추억을 <u>더듬지</u> [더듬지] 앓으려 한다.	어간의 받침 'ㄴ, 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그는 절도[절또]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야기가 이제 <u>발전</u> [발전] 단계로 접어들었다.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나는 지금 갈 데개[갈떼개] 있어. •만날 사람 <u>만날씨람</u>]은 언젠가 꼭 만나게 된다.	관형사형 '-(으)르'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6. 다음 단어의 발음을 쓰고, 두 음운이 어떻게 축약되는지 알아보자.

쌀지[싸치] …… ㅎ+ㅈ → ㅊ
파랑대[파:라타] …… ㅎ+ㄷ → ㅌ
잡히대[자피다] …… ㅂ+ㅎ → ㅍ

4-(1) 음운 변동 [이론편]

7.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음운을 써 보자.

• 써서 삼킬 수 없었다.

쓰 - + - 어서 → 써서 '(-)' 탈락

• 나는 어제 꿈도 꾸지 않고 푹 잤다.

자 - + - 앓 - + - 다 → 잤다 '(ㅈ)' 탈락

• 이 횡단보도를 건너서 곧바로 가면 그 학교가 나온다.

건너- + - 어서 → 건너서 '(ㄷ)' 탈락

8. 두 단어에 나타난 음운 변동 현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 보자

법학[버팍] 푸-+-어서 → 퍼서	공통점 음운의 개수가 줄었다.
	차이점 '법학'은 'ㅂ'과 'ㅎ'이 만나 두 음운이 가지고 있던 소리의 성질을 지닌 '표'으로 축약되었고, '퍼서'는 모음 '우'가 완전히 탈락하였다.

9. 단어에 나타난 음운 변동 현상에 따라 카드를 분류해 보자.

	달나라	밥물	쇠붙이	침략
눈을 감고 들어 봐.	훈련	입학	음악 좀 꺼.	가방은 놓고 가.

밥물[밤물], 침략[참략]	유음화 훈련[훈련], 달나라[달라라]	거센소리되기 입학[이팍], 가방은 놓고[노코] 가.
구개음화 쇠붙이[쇠부치/쉐부치] 톱	뒤소리되기 톱밥[툼뻬], 눈을 감고[감꼬] 들어 봐	모음 탈락 음악 좀 꺼[꺼 ← 끄- +-어].

4-(1) 음운 변동 [이론편]

10. 다음 규칙에 따라 단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어 보자.

	‘, ㅋ’이 음절의 끝에 올 경우 ‘ㄱ’으로 발음된다.	‘스, 썸, 자, 츠, 트, 흥’이 음절의 끝에 올 경우 ‘ㄷ’으로 발음된다.	‘표’이 음절의 끝에 올 경우 ‘ㅃ’으로 발음된다.
단어	백[박] 부엌[부억]	넋[날]넋[날] 넋[날]넋[날] 날[날]히읃[히은]	숲[습]

11. 음절의 끝에 자음이 올 때의 발음 원리를 알아보자.

- 우리말에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음절의 끝에서 발음된다.
- 음절의 끝에 7개 외의 자음이 오면 7개의 자음 중 하나로 바뀌어 발음된다.

12. 밑줄 친 단어가 발음되는 과정을 정리해 보자.

<u>앞날</u> 은 희망으로 가득하다.		
1단계	[압날]	음절의 끝에 온 받침 ‘ㅍ’이 ‘ㅃ’으로 바뀐다.
2단계	[압날]	받침 ‘ㅃ’이 뒤에 오는 비음 ‘ㄴ’을 만나 비음 ‘ㅃ’으로 바뀐다.
결심을 <u>굳</u> 힌 그 사람을 아무도 말릴 수 없었다.		
1단계	[구된]	예사소리 ‘ㄷ’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 ‘ㅌ’으로 축약됨.
2단계	[구친]	‘ㅌ’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구개음 ‘ㅊ’으로 발음됨.

13. 다음 단어가 어떻게 발음되는지 적어 보자.

합나다 [합니다]	확정 [확정]	역할 [여갈]
문혀 [무쳐]	커지고 [커지고]	관리 [괄리]

14. 다음 노랫말이 어떻게 발음되는지 써 보자.

바람이 분다. 서러운 마음에 텅 빈 풍경이 불어온다. [바라미 분다 서러운 마으메 텅 빈 풍경이 부러온다]
머리를 자르고 돌아오는 길에 내내 글썽이던 눈물을 쏟는다. [머리를 자르고 도라오는 기레 내내 글썽이던 눈무를 쏟는]
하늘이 젖는다. 어두운 거리에 찬 빗방울이 떨어진다. [하느리 젖는다 어두운 거리에 찬 비뿡우리/빔뿡우리 떠러진다]
무리를 지으며 따라오는 비는 내게서 먼 것 같아 이미 그친 것 같아. [무리를 지으며 따라오는 비는 내게서 먼 걸 가타 이미 그친 걸 가타]
세상은 어제와 같고 시간은 흐르고 있고 나만 혼자 이렇게 달라져 있다. [세상은 어제와 같꼬 시가는 흐르고 인꼬 나만 혼자 이러케 달라져 인따]

모락고등학교 (경기)

5.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협력 → [협녁] ㉡ 휴만 → [휴만] ㉢ 옷맵시 → [온맵씨]

- ㉠ ㉠ : 인접한 자음의 특성에 동화되는 음운 변동이다.
- ㉡ ㉡ : 음운 변동 후 음운의 수가 많아진 것은 아니다.
- ㉢ ㉢ : 2번의 음운 변동이 나타난다.
- ㉣ ㉠, ㉡, ㉢ : 비음이 아닌 음운이 비음 앞에서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 ㉤ ㉠, ㉡, ㉢ : 표기와 발음이 달라지는 이유는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양재고등학교 (서울)

6. 다음은 문법 수업의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에 들어갈 말을 차례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도입	• 선생님의 설명 : ‘굳이[구지], 끝이[끄치], 붙이다[부치다]’처럼 ‘ㄷ, ㅌ’이 모음 ‘ㅣ’를 만나면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을 ㉠ 라고 합니다. 그런데 ‘견디다[견디다], 티끌[티끌], 흠이불[흔니불]’ 등에서도 ‘ㄷ, ㅌ’이 모음 ‘ㅣ’를 만나지만 ‘ㅈ, ㅊ’로 발음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학습활동을 차례대로 풀어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전개	(1) 각 단어의 형태소를 분석해 보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r>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td>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td> </tr> <tr> <td> • 굳이=굳-+-이 • 끝이=끝+-이 • 붙이다=붙-+-이-+-다 </td> <td> • 견디다=견디-+-다 • 티끌=티끌 • 흠이불=흠-+-이불 </td> </tr> </table> (2) (1)을 통해 알 수 있는 음운 변동 환경을 정리해 보자. → ㉠에서는 ‘ㄷ, ㅌ’와 ‘ㅣ’가 ㉡에서 만나고, ㉢에서는 ‘흠이불’을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ㄷ, ㅌ’와 ‘ㅣ’가 ㉣에서 만난다. (3) 모음 ‘ㅣ’가 속해 있는 형태소의 의미를 파악해 보자. → ㉠의 ‘-이’는 문법적인 의미를 가진 ㉢이고, ㉡의 ‘이불’은 구체적인 의미를 가진 ㉣이다.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 굳이=굳-+-이 • 끝이=끝+-이 • 붙이다=붙-+-이-+-다	• 견디다=견디-+-다 • 티끌=티끌 • 흠이불=흠-+-이불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 굳이=굳-+-이 • 끝이=끝+-이 • 붙이다=붙-+-이-+-다	• 견디다=견디-+-다 • 티끌=티끌 • 흠이불=흠-+-이불				
정리	• 선생님의 설명 : 위의 학습활동에서 살펴본 것처럼 ㉠ 현상은 형태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 구개음화/한 형태소/형태소 경계/형식 형태소/실질 형태소
- ㉡ 구개음화/형태소 경계/한 형태소/실질 형태소/형식 형태소
- ㉢ 구개음화/형태소 경계/한 형태소/형식 형태소/실질 형태소
- ㉣ 거센소리되기/형태소 경계/한 형태소/실질 형태소/형식 형태소
- ㉤ 거센소리되기/형태소 경계/한 형태소/형식 형태소/실질 형태소

양재고등학교 (서울)

7. 다음 문장에서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는 단어를 모두 찾아 <조건>에 맞게 표준 발음을 쓰시오.

나는 오늘 새로 산 운동화를 신고 지은이와 선릉역 서점에 갔는데 지하철을 잘못 타서 조금 늦게 서점에 도착했다.

<조건>
작성 방법 : 국민[궁민]

양재고등학교 (서울)

8. <보기>의 ㉠~㉣의 밑줄 친 부분에 적용된 음운 변동이 동일하게 나타난 예가 아닌 것은?

<보기>

국어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된소리되기, 거센소리되기 등의 음운 변동이 있다.

- ㉠ 우리 누나는 법학과[버팍팍]에 다니고 있다.
- ㉡ 이번 방학에 뜻하지[뜨타지] 않은 행운을 만났다.
- ㉢ 밥을 다 먹었는데[머건는데] 빵도 먹었다.
- ㉣ 친구들을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나뉘똥].
- ㉤ 마을 최고의 권력자[겉력짜]는 촌장이었다.

- ㉠ ㉠올해 입학식은 3월 2일이었다.
- ㉡ ㉡이렇게 번듯한 가구를 왜 버리는지 모르겠다.
- ㉢ ㉢새로 이사 간 우리 집은 분얼만 크다.
- ㉣ ㉣수지가 나에게 꽃다발을 선물로 주었다.
- ㉤ ㉤촌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권력을 동원했다.

“한글 맞춤법” 학습 정리

1. 한글 맞춤법의 총칙

<p>제 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p>	<p>제 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p>
<p>소리대로 적기</p>	<p>어법에 맞게 적기</p>
<p>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에는 발음하는 대로 적음.</p>	<p>한 단어를 여러 형태로 표기하면 뜻을 알기 어려우므로 형태를 고정하여 적음.</p>
<p>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말의 단위인 (단어)를 기준으로 띄어 씀으로써 문장의 의미를 명확히 함.</p>	

2. ‘형태와 소리에 관한 것’ 관련 조항

<p>형태에 관한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 먹다, 먹고, 먹어 •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먹이, 미닫이, 걸음, 믿음, 같이, 익히 • 제20항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곳곳이, 날날이 •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1.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 냇가, 아랫니, 뒷일 2.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 찻잔, 훗날, 예삿일 • 제35항 모음 ‘ㄱ, ㅍ’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려 ‘ㅏ/ㅑ, ㅓ/ㅕ’으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 보아 - 봐, 두어 - 뒤, 주었다 - 줬다, 쏘았다 - 쏘다
<p>소리에 관한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 어깨, 오빠, 기쁘다, 산뜻하다, 잔뜩, 훨씬 • 제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 딱딱, 쓱쓱쓱, 곳곳하다, 씹씹하다 • 10항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 ㉠ 여자(女子), 연세(年歲), 유대(紐帶), 이토(泥土) • 제11항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 양심(良心), 역사(歷史), 용궁(龍宮), 유행(流行)

3. 띄어쓰기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p>...</p>	<p>㉠ 꽃이, 꽃마저, 꽃밖에, 꽃에서부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p>...</p>	<p>㉠ 아는 것이 힘이다. / 나도 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p>...</p>	<p>㉠ 차 한 대, 소 한 마리, 연필 한 자루</p>

4. 글쓰기를 통한 사회적 상호 작용

<p>글쓴이</p>	<p>배경지식과 자료를 (지포적)하여 글을 구성하되, 독자를 염두에 두고 씀.</p>	<p>↕ ↕ ...</p>	<p>독자</p>	<p>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글의 의미를 해석함.</p>
<p>서로 의미를 주고받는 (의사소통) 과정</p>				

'만큼', '뿐', '같이'의 띄어쓰기 용례

만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존 명사일 경우 - 주는 만큼 받아오다. • 조사일 경우 - 짐이 대궐만큼 크다.
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존 명사일 경우 - 이제 막 들었을 뿐 한 것은 없네. • 조사일 경우 - 이제 믿을 것은 <u>실력뿐</u>이다.
같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사일 경우 - 친구와 <u>같이</u> 사업을 하다. • 조사일 경우 - <u>얼음장같이</u> 차가운 방바닥.

참고 자료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하나의 용언이 된 단어의 예

-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단어: 넘어지다, 흠어지다, 벌어지다 등
- 본뜻에서 멀어진 단어: 드러나다, 사라지다, 쓰러지다 등

참고 자료

명사의 본래 모양을 밝혀 적는 단어의 예

- 곳곳: [명사] 여러 곳 또는 이곳저곳.
곳곳아: [부사] 곳곳마다.

- 삼발: [명사] 세 개의 발.
삼발아: [명사] 동근 쇠 태두리에 발이 세 개 달린 가열용 기구.

“한글 맞춤법” 그외의 원칙

1. 다음 각 표기에 한글 맞춤법 총칙의 어떤 원칙이 적용되었는지 써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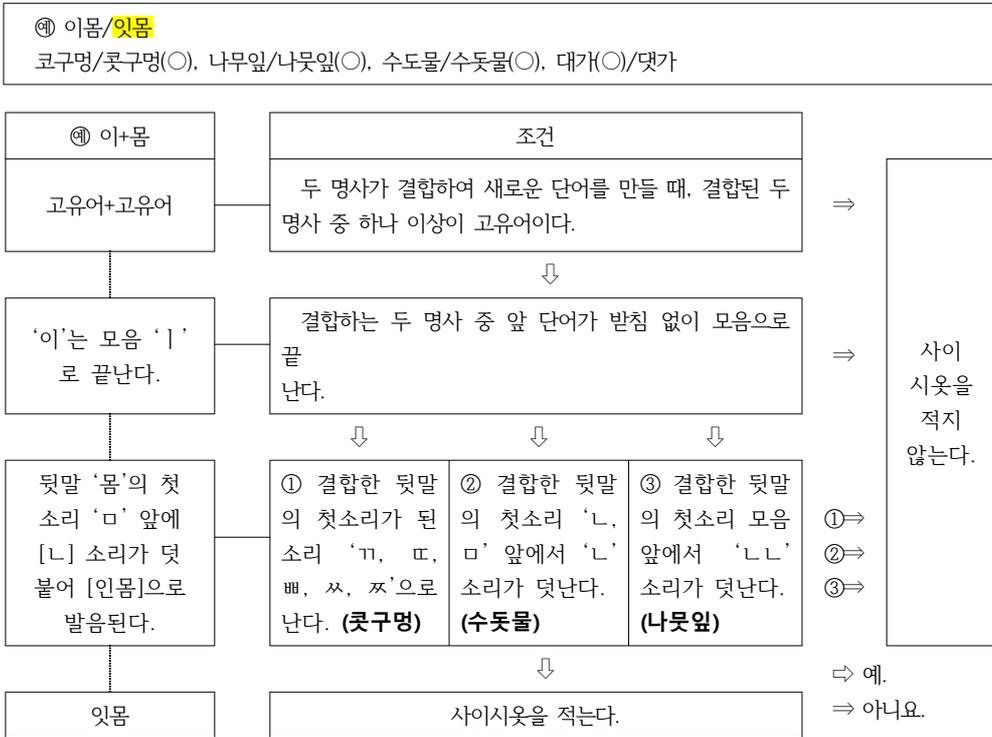
- *바다가[바다가]: 소리대로 적기
- *넓다[널따]: 어법에 맞게 적기.

2. 밑줄 친 부분을 맞춤법에 맞게 고쳐 쓰고, 고친 이유를 설명해 보자.

- *이 길로 가면 우리 집까지 한참 도라간다.
→ 돌아간다 (‘돌아가다’는 앞말인 ‘돌다’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한다.)
- *달팽이는 더드미로 감각을 느낀다.
→ 더듬이 (‘더듬이’는 어간 ‘더듬-’에 접미사 ‘-이’가 붙어 명사로 된 경우이므로,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한다)
- *날씨가 좋은 날에는 바람을 꽤어야 해.
→ 꽤야/꽤어야 (‘꽤-’와 같이 어간이 ‘뇌’로 끝나는 말에 어미 ‘-어’가 결합하면 축약되어 ‘내’가 된다. 따라서 ‘꽤야’로 쓰거나, 두 음절을 줄이지 않고 구분한 ‘꽤어야’로 써야 맞다)

4-(2) 한글 맞춤법 [이론편]

3. 사이시옷을 적는 조건을 참고하여 두 단어 중에서 바른 표기를 확인해 보자.



4. 다음 문장에서 맞춤법에 어긋난 단어를 찾아 바르게 고쳐 보자.

- 아이는 법씩을 피우며 청소를 하였다.
- 그는 짐을 몽둥그려 든 채로 급하게 뛰어갔다.
- 이 화폐의 정확한 제작 년도를 알 수가 없다.
- 그녀는 씩씩한 맛이 나는 차를 좋아한다.

법씩	→	법석
몽둥그려	→	몽둥그러
년도	→	연도
씩씩한	→	씩씩한

5. 다음 받아쓰기 답안지를 채점하며 틀린 부분에 밑줄을 긋고 바르게 고쳐 보자.

1	우리 반이 농구 대회 결승에 진출할 확률이 높아졌다.
2	갑짜기 내린 소나기를 맞았더니 갑기에 걸렸다. 갑자기
3	시중에 공급되는 통화양이 많아지면 화폐의 가치가 하락한다. → 통화량
4	나는 다친 다리를 절뚝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 절뚝거리며
5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은 시청율이 높다. → 시청률

6. 다음 누리집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을 읽고 답변을 해 보자.

- * ‘씩씩씩’과 ‘씩씩씩’ 중 맞는 표기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씩씩씩’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글 맞춤법 제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에 해당하는 예이기 때문입니다.

4-(2) 한글 맞춤법 [이론편]

7. 다음 문장을 읽고, 띄어 써야 할 곳에 표시(✓)를 해 보자.

- **✓**동생보다**✓**일찍**✓**학교에**✓**간다.
- 그가**✓**노력한**✓**만큼**✓**좋은**✓**결과를**✓**얻기를**✓**바랄**✓**뿐이다.
- 여러**✓**번**✓**물에**✓**손을**✓**담그자**✓**손이**✓**얼음장같이**✓**차가워졌다.

8. 누리소통망(SNS) 글에서 띄어쓰기가 틀린 부분을 찾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자.

♥ 좋아요 20개

줄넘기를 시작할지 아뢴제다. 벌써 똘이 가법다.

#운동 병독 #줄넘기 천재

댓글 모두 보기

진이 나는 나대로 운동중인데. 같이 할래?

햇삼 난 너무 피곤해서 줄넘기는 커녕 앉아 있는 것도 힘든데. 대단하다!

- 시작한 지: ‘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다. 따라서 앞말과 띄어 쓴다.
- 운동 중: ‘중’은 ‘무엇을 하는 동안.’이라는 뜻을 가진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 줄넘기는커녕: ‘는커녕’은 앞말을 지정하여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뜻을 강조하는 보조사이므로 붙여 쓴다. (‘는커녕’은 보조사 ‘는’에 보조사 ‘커녕’이 결합한 말.)

9. 다음 질문의 답변을 참고하여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를 점검해 보자.

*‘안되다 / 안 되다’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 ‘일, 현상, 물건 따위가 좋게 이루어지지 않다.’, ‘사람이 훌륭하게 되지 못하다.’, ‘일정한 수준이나 정도에 이르지 못하다.’, ‘섭섭하거나 가엾어 마음이 언짢다.’, ‘근심이나 병 따위로 얼굴이 많이 상하다.’의 뜻을 나타낼 때에는 ‘안되다’로 붙여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면 안 돼.’와 같이 부사 ‘안’이 뒤에 오는 동사인 ‘되다’를 꾸밀 때에는 띄어 씁니다.

10. ‘예시’에서 바른 것을 고르고 그에 해당하는 ‘한글 맞춤법’을 찾아보자.

예시	한글 맞춤법
(달맞이/달마지)를 하면서 꼭 소원을 빌어야지.	㉠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 동생은 (얹은채/얹은 채) 잠이 들었다.	㉢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들은 띄어 쓴다.
㉢ 우리 반이 축구 경기에서 (삼대영/삼대 영)으로 졌다.	㉣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 이따가 다시 전화(할계/할게)!	㉤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룰’은 ‘열, 울’로 적는다.
㉤ 어제 만난 그 사람은 말을 (잘하더라/잘하더라).	㉥ 어미 ‘-(으)르걸, -(으)르게’ 등은 된소리로 소리 나지만 예사소리로 적는다.
㉥ (백분률/백분율)로 환산해서 적어 줘.	㉦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는 ‘-더라, -던’으로 적는다.

- ㉠ 달맞이-㉣, ㉡ 얹은 채-㉠, ㉢ 삼대 영-㉣, ㉣ 할계-㉣, ㉤ 잘하더라-㉤, ㉥ 백분율-㉤

4-(2) 한글 맞춤법 [이론편]

11. 라디오 방송의 누리집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한글 맞춤법에 어긋나는 표기를 찾아 바르게 고치자.

시간 22:00-24:00	늦은 밤에 우리끼리 쓱닥쓱닥 요일별 게시판_화요일: 이것이 궁금하다.
■ 알립니다. ■ 선곡표 ■ 요일별 이야기 ·[월] 요즘 나 해요. ·[화] 이것이 궁금하다. ·[수] 그들이 사는 세상. ·[목] 자랑합니다. ·[금] 제가 한번 해 볼게 요.	제목: 맞춤법 틀리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며칠 전부터 친구들이 제 블로그 글을 보면서 자꾸 웃더군요. 왜 웃냐고 물어 도 대답이 없어서 기분이 몹시 상했어요. 그런데 오늘 등교길에 만난 단짝 친구 가 저에게 그 이유를 말해 주었어요. 제가 쓴 글의 맞춤법이 마니 틀려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업썬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고민이 해소될까 해서 블로그에 글을 올렸거든요. 그 글을 쓰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저를 위로해 주기는커녕 웃다니요. 맞 춤법이 틀렸다고 의미가 통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	고쳐 쓴 표기와 그 이유
몹씨	몹시 → 예사소리 ‘ㅅ’이 된소리 ‘ㅆ’으로 발음되지만 이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등교길	등곳길 → 한자어인 ‘등교(登校)’와 고유어인 ‘길’이 결합하여 만들어졌으며, [등교길] 또는 [등곳 길]로 발음된다. 앞 단어인 ‘등교’가 모음 ‘요’로 끝나고, 뒷말 ‘길’의 첫소리 ‘ㄱ’이 된소리 ‘ㄱ’ 으로 발음되므로 사이시옷을 붙여 적어 주어야 한다.
마니	많이 → ‘많이’는 형용사 ‘ 많다’의 어간 ‘ 많-’에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부사이다. 한 글 맞춤법 제19항에 따르면 ‘ 많이’처럼 용언의 어간에 접미사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어 주어야 한다.
업썬요	업어요 → ‘업어요’는 형용사 ‘없다’의 어간 ‘ 없-’에 종결 어미 ‘-어요’가 결합한 것이다. 한글 맞 춤법 제15항에 따르면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어 주어야 한다.
해소될까	해소될까 → ‘해소될까’는 동사 ‘해소되다’의 어간 ‘해소되-’에 의문형 종결 어미인 ‘-ㄴ까’가 결 합된 말이다. ‘되-’가 ‘돼-’가 되려면, 어간 ‘되-’에 어미 ‘-어’가 결합하여야 하므로 여기에서는 굳이 ‘될’을 ‘뻔’로 쓸 이유가 없다.
쓰는데	쓰는 데 → 여기에서의 ‘데’는 ‘일’이나 ‘것’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다. 따라서 앞말과 띄 어 써야 한다.

12.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를 찾아 바르게 고쳐 보자.

- 우리 고기집
- 미소화장품-바르면 우윳빛 피부가 되요.
- 선율음악학원-남여노소 누구나 배우는 피아노!
- 깨끗 세탁소-웃 달입니다. 1000원 / 부재 시 전화주세요
- 이름 : 바둑이 / 곱쓸곱쓸한 갈색 털, 민밋하고 긴 꼬리. / “찾아주신 분께는 사례하겠습니다.”
- 이모네-떡볶이 3000원 / 만두국 5000원
- 번개이동통신-공짜 휴대 전화 / 모두 야단법석!
- 공사중이니 돌아서 가십시오.

고기집 → 고깃집, 선룰 → 선율, 남여노소 → 남녀노소, 바르면 우윳빛 피부가 되요 → 바르면 우윳빛 피부가 돼요
 곱쓸곱쓸한 → 곱슬곱슬한, 민밋하고 → 민맛하고, 웃 달입니다 → 웃 다립니다, 만두국 → 만둣국, 공사중 → 공사 중

발곡고등학교 (경기)

1. 한글 맞춤법에 맞게 쓴 문장은?

- ㉠ 몹시 더웠는데 바람을 쐬니까 기분이 좋다.
- ㉡ 갈국수를 먹어야 하니 깎뚜기를 듬뿍 담아라.
- ㉢ 모든 학생들이 대청소를 하느라 야단법석이다.
- ㉣ 정부는 낮은 출산률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 ㉤ 올 해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이전 년도보다 높다.

발곡고등학교 (경기)

2. ㉠~㉤을 한글 맞춤법 규정에 맞게 띄어 쓴 것으로 바른 것은?

남자 : 그렇습니다. 덤, 여러 가지 것들, ㉠헤아릴수없이많은 것들이떠나갔습니다. 뭐, 놀랄 건 못되지요. ㉡그저시간이 지난것뿐이니까요. 어떤 나무는요, 가을이 되자 ㉢수천개의 이파리들을되돌려주고도아무소리없습니다. 덤, 나는 고양이를 한 마리를 길러 보았습니다. 고양이는 차츰 늙어지고, 그래서 시간이 다 지나가자 그 생명을 돌려주고도 태연했습니다. 덤, 덤, 덤 ㉣난뭔가진실한걸안것같습니다. 덤, 덤, 그래요. 난 이제 자랑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 진실을 알았다는 것, ㉤나에게는그게유일한자랑이될 겁니다.

- ㉠ ㉠ : 헤아릴 수없이 많은 것들이 떠나갔습니다.
- ㉡ ㉡ : 그저 시간이 지난 것 뿐이니까요.
- ㉢ ㉢ : 수천개의 이파리들을 되돌려 주고도
- ㉣ ㉣ : 난 뭔가 진실한 걸 안 것 같습니다.
- ㉤ ㉤ : 나에게는 그게 유일한 자랑이 될 겁니다.

발곡고등학교 (경기)

3. 다음 글에서 띄어쓰기가 틀린 부분을 갖고 그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침 운동으로 줄넘기를 시작한지 이틀째다. 줄넘기를 시작하면 오 분만에 숨이 찬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도 잘 안 된다. 그래도 한달 동안 꾸준히 해 볼 생각이다. 큰 욕심은 없다. 소녀시대 율야만큼 날씬해지고 싶을 뿐이다.

- ㉠ '시작한지'에서 '지'는 '동작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이라는 뜻의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 ㉡ '오 분만'에서 '만'은 시간이 얼마간 계속되었다는 의미의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 ㉢ '안 된다'는 '일정한 수준이나 정도에 이르지 못하다.'는 동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 ㉣ '한달'에서 '달'은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 ㉤ '율야만큼'에서 '만큼'은 '같은 정도나 한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발곡고등학교 (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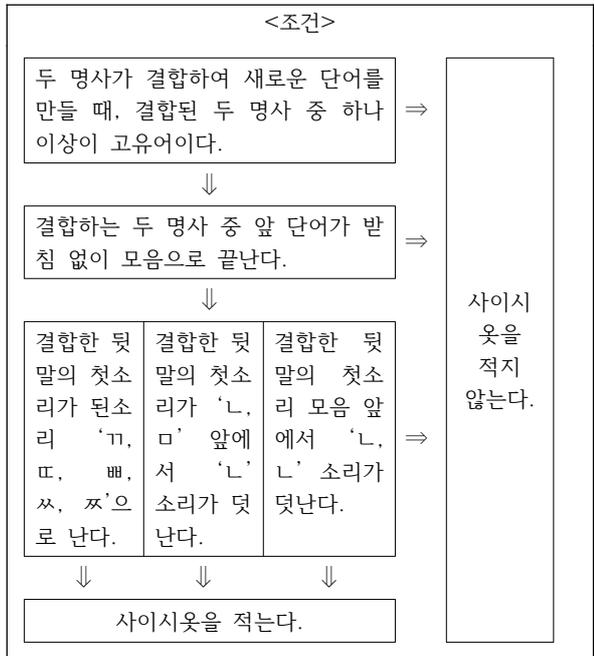
4. 다음 중 한글 맞춤법 규정에 맞게 쓰지 않은 사람은?

강철 : 점심시간에 했던 풋살 경기는 어떻게 됐어?
 어준 : 12반이 이겼어. 전반전에는 삼 대 삼이었는데, 후반전에 12반이 한 골을 더 넣었지.
 아영 : 그런데 심판이 매우 편파적이었다고 하는데?
 순이 :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하지 않나?
 용민 : 내가 내일 학교에 가서 자세한 상황을 알아볼게.

- ㉠ 강철
- ㉡ 어준
- ㉢ 아영
- ㉣ 순이
- ㉤ 용민

발곡고등학교 (경기)

5. <조건>을 참고하여 각 단어의 정확한 표기와 표기의 근거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 ㉠ '뒷말'은 뒷말 '일'의 모음 'ㅣ'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므로 사이시옷을 적는다.
- ㉡ '양치물'의 뒷말 '물'의 첫소리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므로 사이시옷을 적는다.
- ㉢ '비소리'는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지 않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 ㉣ '국숫집'은 고유어 '국수'와 '집'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새로운 단어이므로 사이시옷을 적을 수 있다.
- ㉤ '갯수'는 한자어 개(個)와 수(數)가 결합된 단어이므로 고유어가 아니지만 예외로 사이시옷 적는 것을 인정한다.

효문고등학교 (서울)

6. (가)를 바탕으로 (나)의 표현을 검토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한글 맞춤법 제4장 제5절 제35항>
 [붙임2] ‘기’ 뒤에 ‘-어, -었-’이 어울려 ‘새, 썼’으로 될 적에도 준 대로 적는다.

(나)

<보기>

ㄱ. ‘햇볕 좀 쬐려고’는 고치지 않는다.
 ㄴ. ‘말도 안 되는’은 ‘말도 안 되는’으로 고친다.
 ㄷ. ‘타고 오면 돼’는 ‘타고 오면 되’로 고친다.
 ㄹ. ‘나중에 봐요’는 ‘나중에 봐요’로 고친다.
 ㅁ. ‘일 해야 돼’는 ‘일 해야 돼’로 고친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효문고등학교 (서울)

7. ㉠~㉣에 대한 답변으로 옳바르지 않은 것은?

<발표 주제>
 올바른 띄어쓰기의 사용

<발표 내용>

1. <한글맞춤법 총칙 제2장>에 대한 설명
2. 헛갈리기 쉬운 띄어쓰기의 예시 설명

<발표를 들은 후 친구들이 질문한 내용>

- ㉠ : ‘어쩔수없었다’의 띄어쓰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가고 싶은 데가 있다’에서 ‘데’는 왜 띄어 쓰나요?
 ㉢ : ‘피아니스트마냥’에서 ‘마냥’을 앞에 말에 붙여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 ‘노력한 만큼’과 ‘나도 너만큼’에서 ‘만큼’의 띄어쓰기는 왜 다른가요?
 ㉤ : ‘어머니를 도와드린다’에서 ‘도와’와 ‘드린다’는 붙여 써야 하나요? 띄어 써야 하나요?

- ① ㉠ : ‘어쩔 수 없었다.’로 띄어 써야 합니다.
 ② ㉡ : ‘데’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의 말과 띄어 써야 합니다.
 ③ ㉢ : ‘마냥’은 조사이므로 앞의 말과 붙여 써야 합니다.
 ④ ㉣ : ‘노력한 만큼’의 ‘만큼’은 의존 명사이고 ‘나도 너만큼’의 ‘만큼’은 조사이기 때문입니다.
 ⑤ ㉤ : ‘드린다’는 ‘도와’에 결합한 보조 용언이므로 앞말과 붙여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효문고등학교 (서울)

8. 아래의 글에서 띄어쓰기를 제외하고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부분을 있는 대로 찾아 모두 바르게 고치시오. (단, 맞춤법에 맞는 표현을 고치면 감점)(맞춤법에 어긋난 부분과 다르게 고친 내용이 모두 맞아야 정답으로 인정)

친구는 건넛방에 있었다. 나는 숨소리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입을 막고 조용히 방에서 나와 계단으로 내려갔다. 아랫집은 텅 비어있었고 대문은 잠겨 있었다. 주변을 살살히 뒤졌지만 열쇠 같은 건 없었다. 달빛 아래 나무가지가 언뜻언뜻 보였다. 깨끗이 정리된 건물 구석에는 찻간 불빛 같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빛이 어렴풋이 흔들리고 있었다. 불빛 근처에서 말소리와 함께 무언가를 싹싹싹 자르는 소리가 들렸다.

“자금 회전률이 왜 이렇게 별로야?”

“그러게 얼른 이 지긋지긋한 셋방을 떠야하는데.”

순간 지금 이곳을 탈출하지 못하면 살아날 확률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속으로 숫자를 3까지 세고 뛰어 나가기로 했다. 밤하늘의 달은 촛점 없는 눈으로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흥진고등학교 (경기)

9. <보기>에서 한글 맞춤법에 맞는 것만 골라 묶은 것은?

<보기>

ㄱ. 달팽이는 더드미로 감각을 느낀다.
 ㄴ. 오늘 저녁에 우리 고깃집에서 만나자.
 ㄷ. 나는 김밥과 매운 떡볶이를 좋아한다.
 ㄹ. 학생들은 법석을 피우며 청소를 했다.
 ㅁ. 그녀는 씩씩한 맛이 나는 차를 좋아한다.
 ㅂ. 인형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얼마나 놀랐던지 몰라.

-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ㄴ, ㄹ, ㅁ ④ ㄱ, ㄷ, ㅁ, ㅂ
 ⑤ ㄴ, ㄷ, ㄹ, ㅁ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 ‘비가’, ‘오니’, ‘핀다’는 소리 나는 대로 단어의 형태를 적은 것이다. 이처럼 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에는 소리대로 적는 것이 자연스럽다.

• ‘꽃이’, ‘꽃만’, ‘꽃도’를 [꼬치], [꼴만], [꼴또]처럼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꽃[化]’을 ‘꽃’, ‘꼴’, ‘꼴’이라는 여러 형태로 적게 되어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렵고 독서의 능률도 크게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꽃’이라는 본래 형태를 고정하여 어법에 맞게 적으면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쉽다.

(나) 한자음 ‘녀, 뇨, 뉴, 니’나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오면 두음 법칙에 따라 ‘여자(女子), 예의(禮儀)’처럼 적고, 그 외에는 ‘남녀(男女), 혼례(婚禮)’처럼 본음대로 적는다.

다만, ‘렬/률’은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오면 ‘열/을’로, ‘ㄴ’이 아닌 받침 뒤에 오면 ‘렬/률’로 적는다.

흥진고등학교 (경기)

10. (가)를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ㄱ. 그새 문이 닫힌 것이다.
 ㄴ. 이곳은 나무가 많**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ㄷ. 마음을 다**친** 사람에겐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다.

- ① ㄱ의 ‘닫힌’은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것이군.
 ② ㄱ의 ‘닫힌’은 독서의 능률이 떨어지는 표기이군.
 ③ ㄴ의 ‘많-’은 뜻을 쉽게 파악하기 위한 표기이군.
 ④ ㄷ의 ‘다친’은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군.
 ⑤ ㄱ의 ‘닫힌’과 ㄷ의 ‘다친’은 발음만으로는 의미를 구분할 수 없군.

흥진고등학교 (경기)

11. (나)를 참고할 때, 맞춤법에 맞게 표기된 것으로만 묶인 것은?

- ㉠ 진열(陳烈), 성공률(成功率)
 ㉡ 분열(分裂), 외형율(外形律)
 ㉢ 선렬(先烈), 내재율(內在律)
 ㉣ 확율(確率), 실패률(失敗率)
 ㉤ 규율(規律), 시청율(視聽率)

흥진고등학교 (경기)

12. <보기>에서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 3가지를 찾아 각각 바르게 고치시오. (단, 띄어쓰기 오류는 찾지 말 것.)

<보기>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다. 하지만 난 수학 공부를 해야 한다. 이 문제는 백분률로 환산해서 적어야 하는데 정답을 모르겠다. 어떤 댓가를 바라고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공부만 하려고 하면 다른 일을 하고 싶어질까? 이런 내 모습은 내가 봐도 안됐다.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에는 공부보다는 역시 밖에 나가서 바람을 쐬어야 해.

흥진고등학교 (경기)

13. <보기>를 바탕으로 한글 맞춤법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1.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2. ‘ㄴ, ㄹ, ㅁ,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제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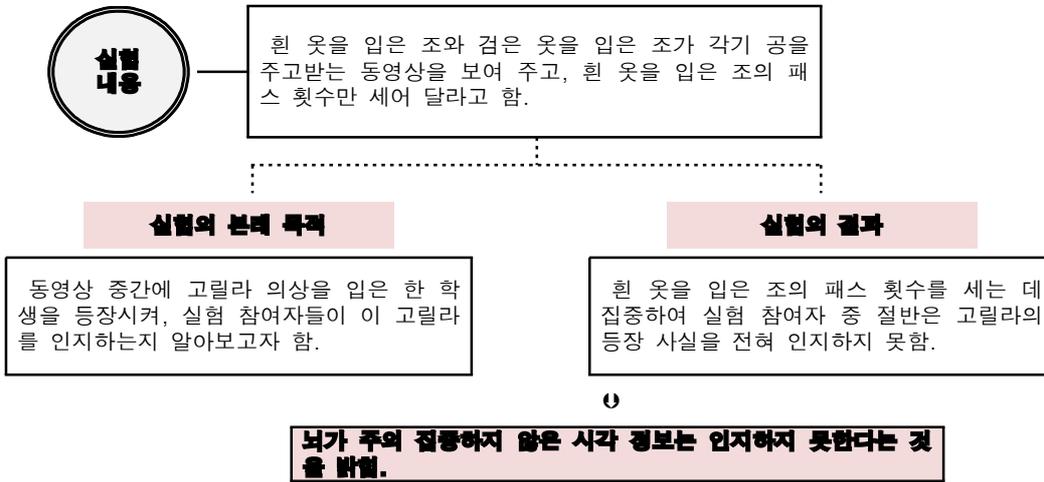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고릴라를 못 본 이유” 문헌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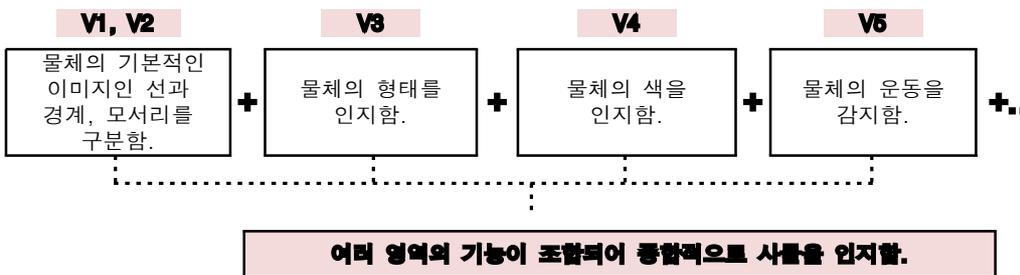
● 핵심 정리

갈래	설명문
성격	사실적, 과학적
제지	뇌의 정보 처리 방식.
주제	주의 집중한 시각적 정보만 받아들이는 뇌의 특성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 개념과 관련된 실험을 소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움. • 적절한 예와 비유를 활용하여 어려운 과학적 개념을 쉽게 풀이함.

1. 고릴라 실험의 내용과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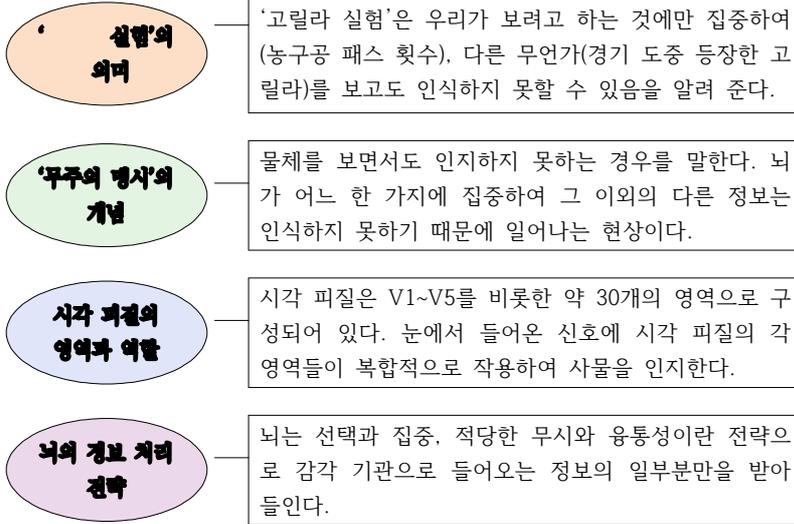


2. 시각 피질의 여러 영역과 역할



“고릴라를 못 본 이유” 이론편

1. 이 글을 읽고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자.



2. 글쓴이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만 인정한다면’이라고 한 것은어떤 삶의 태도를 뜻하는 것일지 말해 보자.

→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볼 수 없다’는 것은 자신이 본 것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의미이다. 즉, 자신의 눈으로 본 것만이 옳은 것이라는 절대적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글쓴이는 자신이 잘못 보거나 보지 못한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상대방의 주장과 의견에 포용적인 태도를 보이려는 제안을 하고 있다.

“고릴라를 못 본 이유” 두번째 질문

1. [178쪽 8~9행] 그런데 과연 눈으로 보는 정보들은 다 믿을 수 있는 것일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눈에 보이는 대로’만 존재하는 것일까?

→ 글쓴이는 첫 문단의 마지막 부분에서 ‘눈으로 보는 정보들은 다 믿을 수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글의 핵심 개념인 ‘무주의 맹시’로 독자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개 글쓴이가 던지는 질문은 글의 주제와 관련되어 있거나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독자는 그러한 질문에 대한 을 예측해 보며 글을 읽어 나갈 필요가 있다.

2. [178쪽 10~11행] 1999년 신경 과학 분야의 국제 학술지인 『퍼셉션』에 「우리 가운데에 있는 고릴라」라는 제목으로 실린 논문이 있다.

→ 글쓴이는 시각 정보에 대한 신뢰가 타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 제기에 대한 답으로 한 논문을 소개하고 있다. 이 논문에 담긴 고릴라 실험은 인간의 ‘무주의 맹시’라는 현상을 밝혀 낸 실험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정보를 모두 믿을 수는 없다는 글쓴이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3. [178쪽 16~19행] 동영상은 1분 남짓이었으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흰옷을 입은 조의 패스 횟수를 맞히는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그들 중 절반은 왜 이런 간단한 실험을 하는지 목적을 파악하지 못해 고개를 갸웃거렸다.

→ 실험자가 참가자들에게 준 과제는 매우 쉽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이었으므로, 참가자들은 실험자가 이 실험에서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후 이어지는 실험의 목적에 대한 설명을 보면, 고개를 갸웃거린 실험 참가자들은 실험자가 준 과제에 집중함으로써 그것 이외의 정보는 얻지 못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4. [179쪽 6~7행] 그러면서 실험자가 자신을 놀리려고 다른 동영상을 보여 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기도 하였다.

→ 글의 도입부에서 글쓴이가 말했듯이, 우리는 자신의 시각을 굳게 믿고 있다. 실험 참가자들도 자신이 본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굳게 믿고 있으며, 모든 것을 제대로 보았을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실험자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의심까지 하게 된 것이다.

5. [180쪽 3~4행] 두 눈을 멀쩡히 뜨고 있는데 보지 못한다고? 정말 황당한 소리이다.

→ ‘무주의 맹시’라는 개념에 대한 설명을 읽은 독자가 마음속으로 느낄 당혹감을 글쓴이가 대신 표현한 문장이다. 이처럼 글쓴이는 독자의 반응을 예측하고 그에 공감하면서 독자와 호응하고 있다.

6. [180쪽 9행] 고릴라는 어디에나, 언제나 존재한다.

→ ‘무주의 맹시’라는 현상이 특별한 경우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문장이다. 독자는 이 문장에서 ‘고릴라’가 실험 속 고릴라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보기도 인지하지 못한 대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는 점을 파악하며 글을 읽어야 한다.

7. [180쪽 13행]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경로로 세상을 보는 것일까?

→ 글쓴이는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보면서도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질문을 던지며 화제를 전환하고 있다. 이 질문 이후에는 우리의 눈이 시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경로를 설명하고, 시각 피질의 여러 영역들이 조합되어 사물을 인지하는 과정을 밝히고 있다. 글쓴이는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눈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세상을 보지만, 그중 정말로 ‘인지’되는 것은 주의 집중된 정보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8. [181쪽 8~11행] 여러 개의 악기가 모여 각자가 정확한 순간에 정확한 음을 연주해야 제대로 된 음악을 전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처럼, 모든 영역이 각자의 역할에 맞게 일시에 조율되어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

→ 시각 피질을 구성하고 있는 약 30개의 영역들이 조합되어야 비로소 사람이 사물을 인지한다는 사실을, 오케스트라에서 여러 악기가 동시에 정확하게 연주되어야 음악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

9. [181쪽 15~17행] 예를 들어 시각 피질의 V4 영역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색맹이 아니었던 사람도 세상이 흑백으로 보이며, V5 영역이 손상되면 질주하는 자동차를 보아도 그것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 앞서 시각 피질의 V4 영역이 색을 담당하고, V5 영역이 운동을 감지한다고 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 주고 있다. 색을 인지하는 V4 영역의 손상은 세상을 흑백으로 보게 하고, 운동을 감지하는 V5 영역의 손상은 물체의 운동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 [182쪽 4~7행] 우리는 쥐의 꼬리만 봐도 벽 뒤에 숨은 쥐 전체의 모습을 그릴 수 있으며, 빨간색과 파란색의 스펙트럼만 봐도 그 색이 주는 이미지와 의미까지 읽어 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때와 장소, 현재의 관심 대상과 그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 글쓴이는 구체적인 예를 들며 뇌의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뇌는 세상의 모든 정보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서 선택적으로 정보를 처리한다. 뇌는 어떤 대상에 집중하면, 부분적인 정보만으로 전체를 파악하거나 시각 정보의 심층적 의미까지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뇌가 그 정보에 집중할 때만 발휘되는 능력으로, 그 외의 정보는 눈에 보이더라도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다는 점을 글쓴이는 강조하고 있다.

11. [182쪽 10~11행] 감각 기관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고스란히 받아들이지 않고 제 입맛에 맞는 부분만 편식하는 것은 뇌의 보편적인 특성으로, 다른 감각도 마찬가지이다.

→ 앞 문단에서 설명한 뇌의 전략인 ‘선택과 집중’이라는 표현을,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 입맛에 맞는 부분만 편식하는 것’으로 바꾸어 설명해 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뇌의 선택적 정보 수용 전략은 시각뿐 아니라 후각, 미각, 청각 등 다른 감각에도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려 주고 있다.

12. [182쪽 20~22행]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만 인정한다면, 서로 시각이 다른 현실에서 내 눈으로 본 것만이 옳다며 핏대를 세우거나 서로를 헐뜯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 글쓴이는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의 뇌가 ‘선택과 집중’의 전략으로 정보를 처리한다는 과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글쓴이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었던 시각 정보마저 믿을 수 없는 만큼, 그 누구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다고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점을 인정한다면 서로 갈등하는 일이 줄어들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고릴라를 못 본 이유” **유추의 방식**

1)

된다. 그런데 과연 눈으로 보는 정보들은 다 믿을 수 있는 것일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눈에 보이는 대로'만 존재하는 것일까?

보편적 생각에 의문을 던지면서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이 글에서 다룰 내용을 제시함

시각 정보에 대한 의문 제기

사람들이 시각 정보를 굳게 신뢰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함

1999년 신경 과학 분야의 국제 학술지인 『퍼센서』에 「우리 가운데에 있는

2)

이들은 각각 따로따로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다. 여러 개의 악기가 모여 각자가 정확한 순간에 정확한 음을 연주해야 제대로 된 음악을 전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처럼, 모든 영역이 각자의 역할에 맞게 일시에 조율되어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 같은 피아니스트가 같은 곡을 동일하게 연주해도 피아노 건

유추의 방식

3)

우도 많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만 인정한다면, 서로 시각이 다른 현실에서 내 눈으로 본 것만이 옳다며 핏대를 세우거나 서로를 헐뜯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모든 것을 다 볼 수 없다는 사실 인정의 필요성

자신아 본 것만이 옳다는 절대적 믿음으로부터 벗어나야 힘을 강조함

▶자료실 파일 다운로드◀

- 출제 예상 연계 작품 정리
- 답 제거된 문제 반복 연습 파일
- 각종 시험 대비 자료 (기본문제, 자습서 등)

목적 노트

"기억나는 모든 것을 떠올려 보고 설명하고 써보라"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람은 오감(五感), 즉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통해 세상을 인식한다. 이 다섯 가지의 감각 중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은 시각으로, 사람의 습득하는 정보의 80퍼센트는 오로지 시각에 의존한 정보들이다. 대부분의 정보를 시각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시각의 능력을 높이 신뢰하게 된다. ㉠그런데 과연 눈으로 보는 정보들은 다 믿을 수 있는 것일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눈에 보이는 대로'만 존재하는 것일까?

(나) 1999년 신경 과학 분야의 국제 학술지인 「퍼셉션」에 「우리 가운데에 있는 고릴라」라는 제목으로 실린 논문이 있다. 당시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대니얼 사이먼스의 크리스토퍼 차브리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실험을 하였다. 그들은 흰옷과 검은 옷을 입은 학생 여러 명을 두 조로 나누어 같은 조끼리만 이리저리 농구공을 주고받게 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었다. 그리고 이를 사람들에게 보여 주고 이렇게 주문하였다. “검은 옷을 입은 조는 무시하고 흰옷을 입은 조의 패스 횟수만 세어 주세요.” 라고 동영상은 1분 남짓이었으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흰옷을 입은 조의 패스 횟수를 맞히는 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그들 중 절반은 왜 이런 간단한 실험을 하는지 목적을 파악하지 못해 고개를 갸웃거렸다.

(다) ㉡사실 실험의 목적은 따로 있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보여준 동영상 중간에는 고릴라 의상을 입은 한 학생이 걸어 나와 가슴을 치고 퇴장하는 장면이 무려 9초에 걸쳐 등장한다. 재미있는 사실은 동영상을 본 사람들 중 절반은 자신이 고릴라를 보았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나머지 절반은 고릴라를 알아보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심지어 고릴라를 인지하지 못한 이들에게 고릴라의 등장 사실을 알려주고 동영상을 다시 보여 주자, 분명 먼젓번 동영상에서는 고릴라가 등장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면서 실험자가 자신을 놀리려고 다른 동영상을 보여 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기도 하였다. 도대체 왜 이들은 고릴라를 보지 못한 것일까?

(라) 대니얼 사이먼스와 크리스토퍼 차브리스는 이를 ‘무주의 맹시’라고 칭했다. 이는 시각이 손상되어 물체를 보지 못하는 것과는 달리, 물체를 보면서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두 눈을 멀쩡히 뜨고 있는데 보지 못한다고? 정말 황당한 소리이다. 하지만 우리는 늘 ㉢이런 경험을 한다. 실연한 뒤에는 유난히 행복한 연인들의 모습이 눈에 자주 띄고,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의 늙은 모습에 마음이 찢었던 날에는 유독 나이 든 어른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그런 장면들은 어쩌나 그렇게 내 마음이 요동칠 때에 잘 맞춰 나타나는지. 하지만 당연하게도 세상이 내 맘에 맞게 움직여 줄 리는 없다.

(마) ㉣고릴라는 어디에나, 언제나 존재한다. 다만 내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들은 갑자기 새롭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늘 존재하였다. 하지만 평소에는 주의 깊게 보지 않아서 인식하지 못했던 것을 비로소 오늘에서야 뇌가 인지한 것이다.

(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경로로 세상을 보는 것일까? 우리의 신체는 눈만이 빛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진화해 왔다. 그래서 눈이 손상되거나 다른 이유로 기능을 잃게 되면, 우리는 그 즉시 빛 한 점 없는 어둠 속에 갇히게 된다. 하지만 눈 자체가 세상을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눈동자를 지나 눈알 안쪽으로 파고든 빛은 망막의 시각 세포에 의해 전기적 신호로 변환된다. 그리고 이 신호가 시신경을 통해 눈의 반대편, 즉 뒤통수 쪽에 위치한 뇌의 시각 피질로 들어가야만 우리가 비로소 세상을 ‘본다’(고 느낀다.)

(사) 시각 피질은 단일한 부위가 아니라 현재 밝혀진 것만 약 30개의 영역으로 구성된 복합적인 영역이다. 시각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 물체의 기본적인 이미징인 선과 경계, 모서리를 구분하는 V1, V2 영역을 비롯하여 형태를 구성하는 V3, 색을 담당하는 V4, 운동을 감지하는 V5, 그리고 이 밖의 다른 영역이 조합되어 종합적으로 사물을 인지한다.

(아) 뇌의 많은 영역이 오로지 시각이라는 감각 하나에 배정되어 있음에도, 세상은 워낙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눈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를 뇌가 빠짐없이 처리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뇌가 선택한 전략은 선택과 집중, 적당한 무시와 엄청난 융통성이다. ㉤우리는 쥐의 꼬리만 봐도 벽 뒤에 숨은 쥐 전체의 모습을 그릴 수 있으며, 빨간색과 파란색의 스펙트럼만 봐도 그 색이 주는 이미지와 의미까지 읽어 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때와 장소, 현재의 관심 대상과 그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하나에 집중하면 다른 것은 눈에 뻘히 보여도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다. 즉, 우리는 정말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것에는 눈을 질끈 감는 것이다.

(자) 감각 기관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고스란히 받아들이지 않고 제 입맛에 맞는 부분만 편식하는 것은 뇌의 보편적인 특성으로, 다른 감각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니까 엄마의 잔소리를 흘려듣는 십 대 아이의 귀에 달린 엄청난 여과 능력은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눈앞에서 판전을 피우는 아이의 귀에, 아니 뇌에 소리를 흘려 넣고 싶다면, 일단은 달콤한 말로 시작해서 집중시키는 것이 그나마 효과적이다. 눈앞에 뻘히 보이는 고릴라를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눈이 잘못되거나 얼빠진 것이 아

안곡고등학교 (경기)

6. 윗글의 주제와 내용을 고려할 때, ㉠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람은 오감(五感), 즉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통해 세상을 인식한다. 이 다섯 가지의 감각 중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은 시각으로, 사람이 습득하는 정보의 80퍼센트는 오로지 시각에 의존한 정보들이다. 대부분의 정보를 시각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시각의 능력을 높이 신뢰하게 된다. 그런데 과연 눈으로 보는 정보들은 다 믿을 수 있는 것일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눈에 보이는 대로'만 존재하는 것일까?

대니얼 사이먼스와 크리스토퍼 차브리스는 이를 '(㉠)'라고 칭했다. 이는 시각이 손상되어 물체를 보지 못하는 것과는 달리, 물체를 보면서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두 눈을 멀쩡히 뜨고 있는데 보지 못한다고? 정말 황당한 소리이다. 하지만 우리는 늘 이런 경험을 한다. 실연한 뒤에는 유난히 행복한 연인들의 모습이 눈에 자주 띄고,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의 늙은 모습에 마음이 찢었던 날에는 유독 나이 든 어른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그런 장면들은 어쩌나 그렇게 내 마음이 요동칠 때에 잘 맞춰 나타나는지. 하지만 당연하게도 세상이 내 맘에 맞게 움직여 줄 리는 없다.

고릴라는 어디에나, 언제나 존재한다. 다만 내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들은 갑자기 새롭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늘 존재하였다. 하지만 평소에는 주의 깊게 보지 않아서 인식하지 못했던 것을 비로소 오늘에서야 뇌가 인지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경로로 세상을 보는 것일까? 우리의 신체는 눈만이 빛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진화해 왔다. 그래서 눈이 손상되거나 다른 이유로 기능을 잃게 되면, 우리는 그 즉시 빛 한 점 없는 어둠 속에 갇히게 된다. 하지만 눈 자체가 세상을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눈동자를 지나 눈알 안쪽으로 파고든 빛은 망막의 시각 세포에 의해 전기적 신호로 변환된다. 그리고 이 신호가 시신경을 통해 눈의 반대편, 즉 뒤통수 쪽에 위치한 뇌의 시각 피질로 들어가야만 우리가 비로소 세상을 '본다'(고 느낀다).

시각 피질은 단일한 부위가 아니라 현재 밝혀진 것만 약 30개의 영역으로 구성된 복합적인 영역이다. 시각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 물체의 기본적인 이미지인 선과 경계, 모서리를 구분하는 V1, V2 영역을 비롯하여 형태를 구성하는 V3, 색을 담당하는 V4, 운동을 감지하는 V5, 그리고 이 밖의 다른 영역이 조합되어 종합적으로 사물을 인지한다.

이들은 각각 따로따로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다. 여러 개의 약기가 모여 각자가 정확한 순간에 정확한 음을 연

주해야 제대로 된 음악을 전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처럼, 모든 영역이 각자의 역할에 맞게 일시에 조율되어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 같은 피아니스트가 같은 곡을 동일하게 연주해도 피아노 건반이 몇 개 사라지거나 음이 제대로 조율되지 않으면 결과물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눈이 같은 것을 보더라도 시각 피질의 각 영역이 제대로 조율되지 않으면 세상을 갈게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시각 피질의 V4 영역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색맹이 아니었던 사람도 세상이 흑백으로 보이며, V5 영역이 손상되면 질주하는 자동차를 보아도 그것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뇌의 많은 영역이 오로지 시각이라는 감각 하나에 배정되어 있음에도, 세상은 워낙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눈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를 뇌가 빠짐없이 처리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뇌가 선택한 전략은 선택과 집중, 적당한 무시와 엄청난 융통성이다. 우리는 쥐의 꼬리만 봐도 벽 뒤에 숨은 쥐 전체의 모습을 그릴 수 있으며, 빨간색과 파란색의 스펙트럼만 봐도 그 색이 주는 이미지와 의미까지 읽어 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때와 장소, 현재의 관심 대상과 그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하나에 집중하면 다른 것은 눈에 뻘히 보여도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다. 즉, 우리는 정말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것에는 눈을 질끈 감는 것이다.

감각 기관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고스란히 받아들이지 않고 제 입맛에 맞는 부분만 편식하는 것은 뇌의 보편적인 특성으로, 다른 감각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니까 엄마의 잔소리를 흘려듣는 십 대 아이의 귀에 달린 엄청난 여과 능력은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눈앞에서 만전을 피우는 아이의 귀에, 아니 뇌에 소리를 흘려 넣고 싶다면, 일단은 달콤한 말로 시작해서 집중시키는 것이 그나마 효과적이다. 눈앞에 뻘히 보이는 고릴라를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눈이 잘못되거나 얼빠진 것이 아니라, 집중하지 않은 시각적 정보는 은근슬쩍 뭉개 버리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뇌는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본다. 있어도 보지 못하거나 잘못 보는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만 인정한다면, 서로 시각이 다른 현실에서 내 눈으로 본 것만이 옳다며 핏대를 세우거나 서로를 헐뜯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 이은희, 「고릴라를 못 본 이유」

상명고등학교 (서울)

7. 다음 중,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옳은 것끼리 묶인 것은?

- ㄱ. 질문을 던지고 답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ㄴ.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해서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다. 공신력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를 인용하여 글쓴이의 주장에 신뢰성을 더하고 있다.
 리. 설명 대상과 유사한 속성을 가진 다른 대상을 가져와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견주고 있다.

- ① 가, 나 ② 가, 다
- ③ 가, 리 ④ 나, 다
- ⑤ 다, 리

상명고등학교 (서울)

8.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릴라는 어디에나, 언제나 존재한다.’에서 ‘고릴라’는 보았는데도 인지하지 못한 대상을 의미한다.
- ② 시각 피질의 V1, V2 영역이 손상되면 모서리의 경계를 인식할 수 없다.
- ③ 글쓴이는 오케스트라 연주와 시각 피질 각 영역의 조율이 유사하다고 보았다.
- ④ ‘선택과 집중’은 시각뿐 아니라 다른 감각에도 두루 적용되는 뇌의 일반적 특성이다.
- ⑤ 글쓴이는 우리가 본 것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집중력이 좋은 사람과 의견을 신뢰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상명고등학교 (서울)

9. <보기>는 윗글을 읽으며 학생이 사용한 읽기 전략을 나타낸 표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읽기 전	㉠ ‘고릴라를 못 본 이유’라는 제목의 의미는 무엇인가? 덩치가 큰 고릴라를 왜 보지 못했다는 것일까?
읽기 중	㉡ 글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니 ‘시각’, ‘고릴라’, ‘뇌’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네. 이 글은 어떤 내용일까?
	㉢ 눈알로 들어온 빛이 어떻게 전기적 신호로 변환되는 것일까? 인터넷 검색을 통해 더 알아보자.
읽기 후	㉣ ‘뇌가 선택한 전략은 선택과 집중, 적당한 무시와 엄청난 융통성’이라는 부분은 중요하니까 밑줄을 그어두자.
	㉤ 이 글을 읽은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 하며 느낀 점을 공유해보자.

- ① ㉠ ② ㉡
- ③ ㉢ ④ ㉣
- ⑤ ㉤

상명고등학교 (서울)

10. 윗글의 [㉦]에 들어갈 개념을 아래를 참고하여 적으시오.

<실험심리학 용어사전>

[㉦] : 주위가 다른 곳에 있어서 눈이 향하는 위치의 대상이 작아지지 못하는 현상이나 상태.

상명고등학교 (서울)

11. 다음은 국어 숙제를 하기 위해 도서관에 간 영희의 생각이이다. 잘 읽고, ㉠와 ㉡에 해당하는 독서방법을 각각 한 단어로 쓰시오.

오랜만에 도서관에 오니까 좋다. 나는 보통 집에서 혼자 책을 읽을 때 소리 내어 읽는 편이지만, 여기는 도서관이니까 ㉠소리를 내지 않고 읽어야겠어.

자, 국어 숙제가 일제강점기에 쓰인 단편 소설 세 편을 요약해보는 거였지? 내가 고른 소설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필요는 없겠어. 책에서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읽어야지. 그리고 시간이 충분하니까 각 작품을 ㉢꼼꼼하게, 글의 내용을 헤아리면서 천천히 읽자.

㉠	
㉡	
㉢	정독

안곡고등학교 (경기)

12. 윗글과 같은 글을 읽는 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1) 자화상

1.② 2.① 3.④ 4.⑤ 5.③ 6.⑤ 7.④ 8.'거울': 자아성찰의 매개체임. 9.① 10.① 11.③ 12.⑤ 13.④ 14.③ 15.④ 16.② 17.③ 18.④ 19.우물 20.② 21.③ 22.⑤ 23.⑤ 24. 2단계: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없어짐(연민), 3단계: 도로 가 들어가다 보니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짐(미움), 4단계: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짐(그리움), 결과: 화해(내적 갈등의 해소) 25.① 26.⑤ 27.④ 28.③ 29.② 31.② 32.② 33.② 34.④ 35.⑤ 36.① 37.④ 38.⑤ 39.④ 40.㉠점층법, ㉡시적허용 41.아름답고 조화로운 자연과는 달리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나이를 미워하다가 자연 속에서 조화롭게 있는 사나이를 통해 그리움으로 변함. 42.④ 43.④ 44.① 45. 가없어집니다. 46.④ 47.미움, 연민(가없음), 미움, 그리움

1-(2) 책 속에 길이 있다

1.① 2.③ 3.② 4.② 5.③ 6.④ 7.④ 8.③ 9.② 10.③ 11.⑤ 12.㉠수없이 많은 문학 작품이 담긴 그릇 ㉡ : 바람직한 삶의 방향 13.④ 14.④ 15.③ 16.④ 17.② 18.② 19.④ 20.④ 21.㉢무관해 보이는 정보를 엮어서 유관한 그 무엇으로 다시 만들어 내는 능력이 필요하다. ㉣정보를 바탕으로 가치 있는 지식을 창조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한다. 22.그것은 바로 수많은 정보 가운데 의미 있는 것을 골라내는 눈입니다, 그리고 무관해 보이는 정보를 엮어서 유관한 그 무엇으로 다시 만들어 내는 능력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치 있는 지식을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23.② 24.② 25.③ 26.② 27.⑤ 28.① 29.④ 30.① 31.④ 32.(1) 언어로 이루어진 상상의 집 (2) 정신의 키 (3) 비늘 (4) 바람직한 삶의 방향 33.④ 34.① 35.① 36.③ 37.④

2-(1) 매체를 읽는 눈

1.⑤ 2.① 3.② 4.④ 5.④ 6.⑤ 7.②④ 8.① 9.⑤ 10.⑤ 11.② 12.③ 13.④ 14.⑤ 15.④ 16.⑤ 17.③ 18.④ 19.④ 20.⑤ 21.③ 22.③ 23.② 24.④ 25.③ 26.③ 27.② 28.① 29.② 30.③ 31.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으로 제목을 써서 올바른 정보의 전달을 방해한다.

2-(2) 책임감 있게 글 쓰기

1.① 2.② 3.④ 4.④ 5.③ 6.② 7.① 8.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다른 사람에게 큰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9.③ 10.⑤ 11.(1)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 (2) 개인의 창작 의욕을 떨어뜨린다. 12.⑤ 13.③ 14.⑤ 15.⑤ 16.⑤ 17.② 18.⑤ 19.④ 20.④ 21.④ 22.④ 23.⑤

2-(3) 서로를 존중하는 대화

1.② 2.③ 3.㉠순서 교대의 원리 ㉡: 협력의 원리 ㉢: 관련성의 격률 ㉣: 태도의 격률 4.② 5.⑤ 6.③ 7.② 8.⑤ 9.① 10.⑤ 11.㉤는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지 않아 겸양의 격률을 위반하였다. 겸양의 격률이란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신을 칭찬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자신을 낮추는 표현은 최대화하는 방법이다. ㉥는 압구현의 질문에 관련이 없는 대답을 하여 관련성의 격률을 위반하였다. 관련성의 격률이란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와 관련된 것을 말해야한다는 것이다. 12.② 13.① 14.⑤ 15.② 16.자신의 입장만 생각하여 말했다,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서 직설적이고 거칠게 말했다. 17.의문문을 사용하여 '규비'에게 선택권을 주면서 완곡하게 부탁하고 있기 때문에 요령의 격률을 잘 지키고 있다. 18.② 19.① 20.⑤ 21.(1)같이 국어 공부하면 좋지. 그런데 오늘 석식 시간에 동아리 활동에 꼭 가야하거든. 미안해, 주이야. 다음에 저녁 먹고 같이 국어 공부 하자고. (2)주이는 같이 저녁을 먹고 공부 하기를 바라는 아인과 의견 차이가 있지만, 먼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준 후 자신의 의견을 말하여 서로의 의견 차이를 최소화하였다. 22.① 23.② 24.④ 25.⑤ 26.⑤ 27.② 28.② 29.④ 30.② 31.① 32.⑤ 33.② 34.⑤ 35.② 36.① 37.공손성의 원리 중에 겸양의 격률을 고려하여 말하고 있다. 38.② 39.③ 40.⑤ 41.상대방의 말을 가로채서 순서 교대의 원리가 지켜지지 않았다. 42.④

3-(1) 첫사랑

1.⑤ 2.③ 3.③ 4.첫사랑을 이름. 5.③ 6.⑤ 7.④ 8.① 9.④ 10.② 11.역설(모순), 아름다운 상처 12.③ 13.③ 14.③ 15.①④ 16.① 17.④ 18.③ 19.② 20.③ 21.④ 22.④ 23.① 24.③ 25.④ 26.② 27.⑤ 28.④ 29.(1)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2) 역설법 30.⑤ 31.자연 현상에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 32.2연,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와 같은 유사한 단어의 반복, '싸그락 싸그락, 난분분 난분분'과 같은 음성 상징어의 사용, '-겠지'라는 어미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33.㉔ 34.㉓ 35.㉔ 36.㉔ 37.㉓
38.㉗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순수한 마음 ㉘ 첫사랑
을 겪고 난 후에 도달한 정신적 성숙 39.㉓ 40.㉓
41.㉔ 42.㉔

3-(2)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1.㉑ 2.㉓ 3.㉔ 4.㉓ 5.㉔ 6.㉒ 7.㉑ 8.㉔ 9. (1)자신의
정체가 탄로난 것을 알고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심정에서 한 말이다. (2)윗글에서는 '오 선생'이
서술자로 등장하여 주인공인 '권 씨'를 관찰하는 입
장에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권 씨'의 심
리가 구체적으로 전달되지 않는다. 반면 <보기>는
주인공인 '권 씨'가 서술자로 등장하여 자신의 심리
와 태도를 독자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해 주고 있다.
10.㉒ 11.㉑ 12.㉗ 1인칭 관찰자 시점 ㉘ 심리 ㉙ 권
씨 13.㉔ 14.㉔ 15.㉔ 16.㉓ 17.㉔ 18.㉒ 19.㉒㉔ 20.
㉔ 21.(1) (나)는 1인칭 관찰자 시점, <보기>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2) 주인공의 내면과 심리가 더 잘
드러난다. 22.㉒ 23.㉓ 24.㉓ 25.㉔ 26.강도(권 씨)를
안심시켜 편안하게 돌아가게 하려고 했으나, 도리어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여 집을 나가게 한다. 27.(1)
찰스 램은 빈민가의 사람들에게 대해 동정과 연민을
쏟아 글과 인간이 일치된 삶을 살았으나, 찰스 디킨
스는 빈민가의 어린이들에게 못되게 굴어 글과 인간
이 일치되지 않았다. (2) '나'는 권 씨가 빌린 돈을 갚
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의 부탁을 거절한다.
28.㉒ 29.㉓ 30.㉓ 31.㉒ 32.㉔ 33.수술비를 빌리는
문제로 '권 씨'와 '나'가 갈등하고 있다. 34.㉑ 35.㉒
36.㉓ 37.㉔ 38.㉔ 39.㉔ 40.㉔ 41.㉓ 42.㉒ 43.㉔ 44.
위 글에서는 권 씨의 부재를 상징하고, <보기>의 내
용을 고려해 볼 때 산업화와 도시화 속에서 소외된
개인의 비참한 처지를 상징하고 있다. 45.㉔ 46.㉔
47.㉒ 48.㉓ 49.'구두'는 '권 씨'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대상으로, 그의 심리 상태를 암시하며, 지식인으로서
의 '권 씨'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소재이다.

3-(3) 결혼

1.㉔ 2.㉓ 3.㉓ 4.㉒ 5.특징: 관객을 극에 참여시킨다.
A에서의 관객의 역할: 소품을 빌려준다, B에서의 관
객의 역할: 관객이 증인이 된다. 효과: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여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고 관객의 몰입
을 유도한다. 6.관객의 극 중 참여를 유도하여 관객
의 집중도를 높이고, 관객이 극 중 상황에 친밀감을

느끼게 한다. 또한 극의 상황과 주제 의식을 관객에
게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7.㉔ 8.㉒ 9.㉓
10.㉑ 11.㉒ 12.㉔ 13.㉓ 14.㉓ 15.㉑ 16.㉔ 17.㉒ 18.
관객을 극에 참여시켜 작품의 주제 의식을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관객이 극 중 상황에 친
밀감을 느끼고 더욱 몰입하게 된다. 19.㉔ 20.㉑ 21.
㉑ 22.㉔ 23.㉓ 24.㉓ 25.㉓ 26.(1) 대사와 행동을 통
해 인물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2) 서술자
가 등장인물의 심리나 성격을 해설하거나 묘사한다.
(3) 현재 시제로 사건을 표현한다. (4) 주로 과거 시
제를 사용하여 사건을 표현한다. 27.㉑㉔ 28.㉑㉔ 29.
㉓ 30.㉑ 31.㉓ 32.㉑ 33.㉔ 34.㉒ 35.㉔ 36.㉒ 37.㉑
38.㉔ 39.㉔ 40.㉓ 41.뎀 42.㉔ 43.㉓ 44.㉔ 45.㉔ 46.
㉔ 47.㉓ 48.㉔ 49.㉓ 50.㉓ 51.㉔ 52.㉓ 53.㉑ 54.극
갈래는 서사 갈래와 달리 서술자가 없다. 그리고 현
재형의 문학이다.

3-(4) 반 통의 물

1.㉔ 2.㉓ 3.㉑ 4.㉔ 5.㉒ 6.㉑ 7.㉓ 8.㉓ 9.㉔ 10.㉔
11.㉓ 12.㉓ 13.㉑ 14.㉓ 15.㉔ 16.㉒ 17.㉓ 18.㉔ 19.
㉒ 20.A: 적절한 거리 B:선택보다는 공존 21.㉒ 22.㉔
23.㉓ 24.㉔ 25.㉒ 26.㉔ 27.사람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잡초와 채소를 구분하여 하나는 죽이
고 하나는 살리는 것이 이른바 농사이다. 28.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29.㉓ 30.㉔ 31.㉔ 32.㉔ 33.㉔ 34.㉔
35.㉒ 36.㉓ 37.㉒

4-(1) 음운의 변동

1.㉑ 2.㉑ 3.㉔ 4.㉓ 5.㉓ 6.㉓ 7.신고[신고], 선풍역[설
릉녁], 갔는데[간는데], 잘못[잘몰], 늦게[늦께], 도착했
다[도차캬따] 8. ㉔ 9.㉑ 10.㉔ 11.㉒ 12.㉗ [달근] ㉘
[다가페] 13.㉒ 14.㉓ 15.㉓ 16.㉔ 17.㉗ 18.㉒ 19.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20.㉓ 21.
㉓ 22. ㉒ 23. ㉔ 24. ㉔ 25. 구개음화, 구개음화는
음절의 끝소리 ㄷ, ㅌ이 형식 형태소 'ㅣ'나 반모음
'ㅣ'를 만나 구개음인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26.㉓ 27.㉔ 28.㉔ 29.㉔ 30.(1) 타라, 모음 탈락 (2)
입학, 거센소리되기 31. (1) [침:낙] (2) 유음인 'ㄹ'이
(3) 비음 'ㄹ'의 뒤에서 (4) 비음 'ㄴ'으로 변하는 (5)
비음화 현상이다. 32.㉔ 33.㉑ 34.㉔ 35.㉔ 36.㉒ 37.
㉔ 38.첨가 39.신고, 갑자기, 왔다 40.㉔ 41.㉒ 42.㉔
43.㉒ 44.㉓ 45.㉑ 46.㉔ 47.㉒ 48.㉔ 49.㉑ 50.㉒ 51.
㉒ 52.㉓ 53.㉔ 54.㉓ 55.㉑ 56.㉔ 57.㉑ 58.㉔ 59.㉔

60.⑤ 61.③ 62.② 63.④ 64.④ 65.⑤ 66.① 67.② 68.② 69.① 70.③

4-(2) 한글 맞춤법

1.① 2.④ 3.⑤ 4.③ 5.④ 6.② 7.⑤ 8.살살히→살살이, 나뭇가지→나뭇가지, 싹둑싹둑→싹둑싹둑, 회전롤→회전롤, 촛점→초점 9.⑤ 10.② 11.① 12.백분률→백분율, 댓가→대가, 빼어야→빼야(씨어야) 13.② 14.⑤ 15.③ 16.⑤ 17.④ 18.⑤ 19.(1)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날 때 (2) ㉠ 빗물, 아랫마을 ㉡ 뒷일, 깻잎 20.④ 21.② 22.수만마리가→수만마리가, 선롤→선율, 몹씨→몹시, 얇은 체→얇은 채, 안된다→안 된다. 23.④ 24.③ 25.③ 26.④ 27.① 28.(1)어름→얼음 (2)어간에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기 때문에 '얼음'으로 표기해야한다. 29.꺼져가는 불꽃처럼 사라질 것인가, 주사위를 한 번 더 던져 볼 것인가. 30. (1) 황금율→황금률: '렬/률'은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오면 '열/율'로, 'ㄴ'이 아닌 받침 뒤에 오면 '렬/률'로 적는다. (2)우유빛→우윳빛: 합성어를 이룰 때 뒷말이 된소리로 발음되면 사이시옷을 적는다. 31.(1)열일곱살, 수는 만 단위로 띄어 쓰며, '살'은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2) 쓰는데, '-는데'는 연결어미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32.④ 33.① 34.⑤ 35.① 36.① 37.운동한√만큼√좋은√결과를√연기를√바랐지만√일등은커녕√꿀찌를√했다 38.1) 머거→먹어, 용언은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적어야 한다. 2) 여기에서 부터→여기에서부터, 조사는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39.⑤ 40.⑤ 41.④ 42.㉠누나의 해쓱한 모습에 어머니께서도 걱정이 되셨나봐. ㉡누나, 짹짹한 음식은 몸에 해로워. ㉢어머니의 정이 듬뿍 담긴 반찬을 먹고 힘을 내길 바라. 43.② 44.② 45.잇몸-(4), 대가-(6) 46.몽둥그려→몽뚱그려:㉠, 씹술한→씹쓸한:㉡ 47.④ 48.④ 49.③ 50.③ 51.② 52.③ 53.⑤ 54. (1)도라간다→돌아가다 (2)두 용언이 어울려 하나의 용언이 된 경우 앞말의 본래 의미가 유지되고 있으면 원형을 밝혀 적는다. 55.② 56.⑤ 57.줄넘기를√시작한√지√이틀째인데√겨우√열√개를√할√뿐이다. 58.⑤ 59.① 60.③ 61.④ 62.③ 63.① 64. ㄱ. 되요→돼요 ㄴ. 뵈요→뵈요 ㄷ. 되요→돼요 ㄹ. 뵈요→뵈요 65.②

5-(1) 고릴라를 못 본 이유

1.② 2.② 3.④ 4.④ 5.④ 6.무주의 맹시는 우리 주변

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다. 7.④ 8.⑤ 9.② 10.무주의 맹시 11.㉠ 목독 ㉡ 발취독 12.⑤ 13.⑤ 14.⑤ 15.① 16.① 17.④ 18.② 19.⑤ 20.⑤ 21.⑤ 22.'고릴라 실험'은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에만 집중하여, 눈 23.① 24.⑤ 25.물체를 보면서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무주의 맹시라고 한다. 26.④ 27.① 28.③ 29.② 30.④ 31.② 32.윗글에 나타난 서술상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은 ㉠,㉡,㉢이다.

- 끝 -

총력만능국어
www.chongmangug.co.kr
기본 문제
오류 체크
자습서 파일
시험 대비 자료

1-(1) 자화상

1. ②

▶들여다보거나 돌아가버리는 등의 구체적 행동을 통해 화자의 심리 변화(연민→미움→그리움 등)를 형상화함

▶넣어둬, 패턴 공략◀

계절은 직접적인 어휘(봄, 여름, 겨울, 가을, 겨울)로 금방 알 수 있지만 (봄-새싹, 여름-매미, 가을-낙엽, 겨울-눈) 등 간접적으로도 알 수 있다.

▶어머, 이건 외워야 해!◀

1. 색채어 (★)

빛깔을 직접 나타내야하며 색을 가지고 있더라도 색깔의 명칭이 직접 드러나지 않는 대상물은 색채어가 아니다.

*푸르다, 누렇다, 불그스레하다, 새빨갳다 →(색채어 ○)

*물감, 무지개, 색연필, 포도, 도화지 →(색채어 ×)

2. 시에서의 '대화' (★★)

<두 사람 이상이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 행위>하는 화법의 대화와는 다르게, 시에서는 직접 상대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상대를 의식하고 부르거나 건네는 말만 있어도 독백체가 아닌 <대화체>로 본다.

2. ①

▶화자가 '외판' 우물을 '홀로' 찾아가서 그 안을 들여다보는 것은 자신을 세상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성찰하는 것임.

▶넣어둬, 패턴 공략◀

'차분히 보는 것', '~아는 것', '깨달음', '성찰', '반성'은 모두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3. ④

▶'그 사나이'와의 추억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면 그 사나이와 함께한 일들이 있어야 하는데 시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음.

① 우물은 자아 성찰의 매개체이기에 적절함 ⑤ 평화 속에 사나이기 있기에 적절함

4. ⑤

▶'미워져'→'가엾어집니다'→'미워져'→'그리워집니다'를 통해 알 수 있음.

① 현재와 과거의 비교는 없음 ② 인생의 소중함이 아닌, 자아 성찰을 노래함 ③ 일제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볼 수 있음 ④ 미래지향적 태도가 아닌, 과거와 관련된 자아성찰적 태도임

5. ③

▶(ㄱ)의 시대 현실이 일제시대라는 암울한 역사와 연관됨

6. ⑤

① 내면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성찰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매개체임 ② 배경 묘사만 있을 뿐 갈등은 없음 ③ 초라한 자아를 부정할 뿐 화해하는 것은 아님 ④ '그렇다'고 심리가 직접 드러남

▶어머, 이건 외워야 해!◀

1. 내적 갈등 vs 외적 갈등 (★★★)

ㄱ. 내적 갈등: 마음속 내면의 고민, 걱정 (짜장, 짬뽕 무엇을 먹지)

ㄴ. 외적 갈등: 인물vs인물 / 인물vs사회 환경이 서로 대립 (부모와 자식 간의 가치관의 차이/자유를 빼앗은 일제에 대한 인물의 투쟁)

2. 직접적 제시 vs 간접적 제시 (★★★)

ㄱ. 직접 제시: 서술자가 직접 관련된 어휘 사용.

ㄴ. 간접 제시: 대화, 행동을 통해 객관적으로 제시됨.

7. ④

▶④'파아란 바람'(촉각의 시각화)과 같이 '울음이 타는'(청각의 시각화)은 공감각적 표현임

▶어머, 이건 외워야 해!◀

1. 시의 심상과 감각 (★★★)

ㄱ. 시각-눈으로 보는 것 (푸른 산, 높은 하늘, 빨간 꽃)

ㄴ. 청각-귀로 듣는 소리 (은은한 종소리)

ㄷ. 미각-혀가 느끼는 맛 (쓰디쓴 약)

ㄹ. 후각-코로 맡는 냄새 (향기로운 꽃)

ㅁ. 촉각-피부의 느낌 (서늘한 옷자락)

2. 공감각 vs 복합 감각 (★★)

ㄱ. 공감각: 한 감각이 다른 감각 불러일으킴.

(주관적 심리 상태에 영향)

ㄴ. 복합 감각: 각각의 감각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음.

*푸른(시각) 휘파람 소리(청각)

-원래의 청각이 새로운 시각을 불러일으킴 [공감각]

*노란(시각) 빛깔의 달콤한(미각) 오렌지

-시각과 미각의 단순한 나열일 뿐 [복합 감각]

시 문제에서 <감각적 형상화>라는 말이 나오면, 위와 같은 내용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9. ①

②, ③ 독자와 관련됨 (외재적 요소) ④ 작가와 관련됨 (외재적 요소) ⑤ 시대와 관련됨 (외재적 요소)

▶넣어둬, 패턴 공략◀

자주 출제되는 선지 대립 양상

자연적 ↔ 인위적 / 객관적 ↔ 주관적 / 능동적 ↔ 수동적

내재적 ↔ 외재적 / 추상적 ↔ 구체적 / 내적 ↔ 외적

10. ①

▶(감각의 전이 ×) 시각적 심상에 해당.

②, ③ 청각의 시각화 (감각의 전이 ○) ④ 시각의 청각화 (감각의 전이 ○)

⑤ 청각의 후각화 (감각의 전이 ○)

11. ③